

나는 설교자다

정용섭

<차례>

신약성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성서는 텍스트다!

설교학 교수에게 말한다

-정인교의 한국설교학회 학술대회 발제안을 읽고-

한국교회 강단, 세울 것인가 허물 것인가

-정인교 박사의 <설교자여 승부수를 던져라>를 읽고-

시적 감수성과 설교

-민영진 박사의 “나의 설교를 말한다”를 읽고-

목마른 시대를 위한 설교

탈식민지적 글쓰기와 설교문제

듣기 싫은 설교, 듣고 싶은 설교

산상수훈의 ‘의’에 관한 해석학적 문제

설교와 생명의 신비

설교 쉽게 하기의 한계와 설교 지평 넓히기

설교의 대중추수주의를 넘어서!

한국교회 강단과 남북통일문제

부록- 성결교회 목사 설교 비평

모성적 영성의 원초적 힘

-장충단교회 박순영 목사-

행복을 파는 행복한 설교자

-서초교회 김석년 목사-

윤리신학자의 눈높이 설교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

긍정적 설교의 빛과 그림자

-동대전교회 허상봉 목사-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

-여주교회 이성관 목사-

설교의 해석학적 요청

-후암백합교회 김세진 목사-

“토종목사”가 전하는 토종복음의 정체

-수유리교회 방인근 목사-

내러티브 설교의 함정

-만리현 교회 이형로 목사-

설교의 중심에 대해

-안산영광교회 송창원 목사-

케리그마와 설교

-삼천포교회 박상진 목사-

신약성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신약을 본문으로 하든지, 또는 구약을 본문으로 하든지 설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 사이에 다리를 놓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 다리가 필요한 이유는 성경인 텍스트와 그것을 읽는 독자인 콘텍스트 사이에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간격 앞에서 설교자는 한편으로 절망하고, 다른 한편으로 더 철저하게 설교 행위에 매진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 6:9)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과 21세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다르다. 창세기 창조 전승에 따르면 하늘은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이다. 그들은 바다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 바다를 가장 낮은 단계의 세계로 보았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보고 하늘 너머에 물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하늘에 속한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현대인들은 우주 물리학에 관한 정보를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략은 안다. 빅뱅 이후로 우주가 138억 년 동안 팽창했고, 지금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서 지동설과 천동설을 혼동하는 사람은 없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늘을 현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려면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다리를 놓는 작업이 해석학이다.

해석학의 첫 단계는 신약성경이라는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다. 여기서 ‘세계’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걸 역사라는 말이나

삶이라는 말로 바뀌도 좋다. 그림에도 세계가 있고, 시에도 세계가 있고, 음악이나 건축에도 세계가 있다. 언어 자체가 세계다. 그 세계는 텍스트 안에 은폐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 그걸 볼 수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9). 예를 들어 마 5:17절은 이렇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다른 공관복음에도 없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예수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태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대담한 사람들이다.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상상력에 근거해서, 이걸 통합적 영성이라 할 수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과감하게 수정 편집했으니 말이다. 복음서의 병행구절을 비교해보면 숫자나 인물 등에서 종종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신문기자처럼 기계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성경은 죽은 문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마태가 그 이외의 복음서에 없는 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 회중들을 위해서 기원후 70년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약성서와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70년이라는 해수는 구약을 이해하는데 기원전 587년(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자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방향을 돌렸다.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들은 필요 없게 되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주류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라 부르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했다. 만약 유대 기독교가 이들의 강요를 거부하면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교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로마의 종교 관용정책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유대교의 강요를 따를 수는 없었다. 이게 당시 유대 기독교가 처한 딜레마였다. 당시 유대 기독교는 이방 기독교와 달리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에티엔느 트로크메의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참조하라. 유대 기독교의 입장을 마태는 본문에서 천명한 것이다. 자신들은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거라고 말이다. 신약개론에서 다룬만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전제할 때만 마 5:21절 이하에 거론된, 소위 반(反)명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 나름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걸 성서신학자들은 삶의 자리(Sitz im Leben)라고 부른다.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자. 여기서 마태는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는 예수의 가르침을 다섯 항목으로 설명한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지막 항목에 속하는 마 5:43, 44절은 이렇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다. 또는 이 구절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레 19:18절에 따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예수는 파격적으로 말씀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사랑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 사랑도 어렵다.

원수 사랑보다는 부담이 적어 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앞 대목인 마

5:38-42절에 나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출 21:24)라는 명제를 인용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어서 네 가지 특별한 상황을 예로 든다. 첫 번째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 5:39)다. 다른 조항을 더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런 명령을 실제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번째 항목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2)다. 한두 번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복할 수는 없다. 예수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신 걸까? 예수님이 엄격한 도덕군자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구절을 근거로 신자들에게 청교도적인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그는 신약성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설교자다.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교를 향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중이다. 기독교는 율법의 형식에 머물지 않고 율법의 본질에 천착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이다.

마태는 5장48절에서 예수의 입을 빌려서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문장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원수 사랑처럼 말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는 삶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다. 완전은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가능한 삶의 능력이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라는 예수의 첫 선포가 공연한 게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회중들을 도덕적 규범으로 압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나라의 의(義)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설교자에게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라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현령 비현령으로 다루는 설교자들도 많다. 교회 정책에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비판한다. 어떤 여성 신자가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구타당한다고 하자.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목사에게 상담을 청했다.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자동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흔하다.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데, 인식론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으로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마 5:41절은 이렇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 ” 당시에 로마 군인은 현지인인 유대인을 데려다가 길을 안내받거나 짐을 운반하게 할 수 있었다.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한 일도(마 27:32) 이런 이유에서다. 로마 군인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순교 역사를 다룬 앤도 슈사쿠의 『침묵』이 미국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에 의해서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올해 2월에는 그 영화가 한국에서도 개봉되었다. 포르투갈 해외 선교회 소속 사제 로드리게스는 일찍이 일본 선교에 나선 선배 사제가 박해를 못 이겨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일본으로 온다. 그도 역시 온갖 고초를 당한 뒤에 후미에

앞에 섰을 때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밟아도 좋다.”라는 말을 듣는다. 후미에는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부조로 새겨진 판이다.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지만 밟지 않으면 순교를 당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순교 당하더라도 후미에를 밟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속을 감춘 채 형식적으로 후미에를 밟고 살아남는 것인가. 목사는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할 수 있기에 최후의 심판에 설 각으로 설교해야 한다.

지금 신약성경이라는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작업이 설교자에게서 우선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이다. 그 한 예로 70년에 벌어진 예루살렘 함락 이후 전개된 유대교의 상황이 마태복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간략히 살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설교 시간에 다 풀어서 전할 필요는 없지만, 설교자는 일단 그런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설교의 콘텐츠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정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문화, 철학적인 것들도 많다. 유대교의 묵시 사상과 그리스의 영지주의와 스토아 철학 등등도 신약성경 기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텍스트의 세계가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라는 뜻이다.

그중에 한 가지 개념만 보자. 요 1:1은 이렇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로고스 기독교론의 핵심 구절이다. 요한복음 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스토아 철학의 핵심개념인 로고스로 표현했는지를 생각해보라. 로고스는 사전적으로 언어, 이성이라는 뜻이지만 개념적으로는 훨씬 깊고 함축적이다. 로고스는 “자신 안에서 자신에 대해 자신을 나타내는 신”이다. 신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로고스로서 나타난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로고스가 유일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런 근거에서 요한복음은 그 유명한 성육신론을 완성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스토아 철학의 핵심개념인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자는 요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설교하더라도 변죽만 울리거나 본문을 왜곡시킬 개연성이 높다.

오해는 말자. 신약성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의 정치 사회 문화 철학적인 관점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요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 경험이다. 그 경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는 공허해진다. 그 경험의 내용이 곧 예수의 오심, 십자가, 부활, 재림을 근본으로 하는 케리그마(kerygma)다.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케리그마의 실체와 깊이로 들어가려는 데에 있다. 케리그마는 세례받을 때 공부하는 간략한 교리문답과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다. 그런 교리문답만으로 케리그마를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열린 질문, 즉 영적인 화두다. 케리그마가 진리로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진리의 속성 자체가 질문이다. 설교자는 회중들을 케리그마에 대한 질문의 깊이로 끌어들임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태를 놓치면 그는 약장사가 된다.

예수의 십자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다. 저 명제를 설득력 있게 전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질문해보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빛이여, 존재하라.”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을 언어로 창조한 분이기 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운명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기도했다. 만약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속명적으로 주어진 길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혀 뜻밖의 말을 내뱉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그리고 이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둔다(마 27:50). 마가복음도 예수의 운명 순간을 똑같은 시각으로 전한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소위 ‘가상철연’이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호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회중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은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설교는 일방적으로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회중들이 알아들도록 해명하는 작업이다. 무슨 말인가?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왜 옳은지를 신학적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설교자만이 신약성경이라는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다. 부활과 재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따라오는 질문이 오죽 많겠는가?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즉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는 명제에도 수많은 질문이 따른다.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는 역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문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약성서 세계를 이룬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본인에게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

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자질이 없는 설교자에게는 설교 행위가 평생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짐을 피하려고 우회로를 찾게 된다. 회중들을 도덕적으로 뉘달하든지, 심리적으로 위로하든지, 심지어는 종교적 여흥으로 이끈다. 그렇게 해도 일정한 회중들은 나름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심약한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와 비슷한 심리 현상이다.

이 글의 제목은 “신약성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였다. <월간목회> 편집부에서 받은 제목이다. 이 주제를 설교 방법론으로 보면 곤란하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설교는 단순한 기술적 기교(Technik)로 변질하여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날과 같이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교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어서 하는가, 하는 질문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다.”(교의학 개요, 15쪽). 그렇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는 곧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부단히 텍스트와 씨름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약성서의 고유한 세계가 말을 걸어오는 짜릿한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는 설교자는 행복하다. (2017년 5월, 월간목회)

성서는 텍스트다!

목사 치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기 저기서 들은풍월도 많고, 어느 정도 설교 경력이 있으면 나름으로 노하우가 다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 설교자로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뽕족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설령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그걸 따를 필요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이제 나는 설교 준비 방법과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설교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성서는 텍스트다!”라는 명제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서 나의 설교 준비 과정도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이다.

겨울철을 맞을 때마다 나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종종 듣는다. 슈베르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빌헬름 뮐러의 연작시(詩)에 감동하여 곡을 붙인 노래다. 주로 바리톤 가수가 부르지만, 테너 가수가 부를 때도 있다. 독일 가곡 연주는 성악가만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자의 역할도 아주 크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악가가 이 노래를 불렀다. 각각의 노래가 다 다르게 들린다. 그 이유는 각자 노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겨울 나그네>는 전체가 스물네 곡으로 되어있는데, 첫 번 곡이 “잘 자요”(Gute Nacht)이고, 마지막 곡이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다. 노랫말은 이렇다.

마을 변두리에 라이엘 악사가 홀로 서서
추위에 언 손으로 쉬지 않고 라이엘을 돌리네.

얼음 위에서 발을 동동거리는데,
그의 작은 접시는 비었네.

그의 연주를 듣는 사람도 없고, 그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개들만 모여들어 노인을 향해 짖어대네.
그러나 그는 애써 못 본 척 하면서
계속해서 라이엘을 돌리네.

이상한 노인이며, 내가 당신과 함께 노래 부를까요?
내 노랫소리에 맞춰 라이엘을 커주시겠어요?

라이엘은 원통을 돌려서 소리를 내는 독일 토속 악기다. 이 장면이
그림처럼 떠오를 것이다. 혼자다. 날씨가 추운데 누가 거리에 나설 것
이며, 누가 대수롭지 않은 라이엘 연주를 듣고 접시에 돈을 놓겠나.
이 악사는 노인이다. 거리 연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지, 밥벌이 때문
인지는 시가 말하지 않는다. 돈 접시가 비어있다는 게 강조된 걸 보면
밥벌이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관객은 없
고 돈 접시는 비어있고, 동네 개들만 짖어댄다. 황량한 풍경이다. 그래
도 이 노인 악사는 라이엘을 계속 연주한다.

목사의 한평생이 라이엘을 연주 노인과 같은 게 아닐는지. 목사만
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런 운명에 떨어진다. 실제로 옆
에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이 있다 해도 모든
인간은 빈 접시 앞에서 연주하는 이 라이엘 악사처럼 가난하다. 이건
메타포가 아니라 실재(reality)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근원
적인 가난과 고독을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눈치채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특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손이 시린 날 황량한 거리에서 홀로 라이엘을 연주하는 이 늙은 악사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누가 듣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접시에 돈이 놓이든지 않는지 상관없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도승처럼 홀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연에 화자가 등장한다. “내 노랫소리에 맞춰 라이엘을 쳐주시겠어요?” 노인은 라이엘을 돌려 반주를 넣고, 사랑과 이별과 온갖 희로애락을 거쳐 온 나그네는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누가 위로했고,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 여전히 돈 접시는 비어있고, 사람들은 안 보이고, 개만 짖는다. 그게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함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목사의 설교 행위는 성악가의 노래 행위와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 성악가가 우선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것처럼 설교자 역시 성서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다.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시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 즉 성서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거리의 악사’가 가리키는 세계도 그걸 대하는 성악가와 반주자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표현되듯이 성서 텍스트가 가리키는 세계도 설교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서텍스트는 문자다. 문자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성서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기호다. 지시하는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기 어렵지만, 손가락에만 머물러 있어도 달을 못 보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했다. 문자, 또는 언어가 궁극적인 진리를 세우지 못한다는 뜻이

다.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 문자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게 궁극적인 진리 앞에서 선 인간의 딜레마다. 설교자도 똑같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성서라는 문자만 앞에 놓여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 설교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성서텍스트의 깊이에 관한 생각 없이 청중들에게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마치 성악가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 대한 음악적 깊이에는 관심이 없고 청중들을 감동하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포퓰리즘은 대중 가수들에게나 어울린다. 설교자에게 청중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청중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중들의 호응 현상에만 매달리면 설교자의 영혼은 메말라간다. 영혼이 메마른 설교자는 시간이 갈수록 청중들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결국에는 설교자도 죽고 청중들도 죽는다.

성서텍스트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럴 때만 하나님 경험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험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증적인 차원보다 더 심원하다. 루돌프 오토의 『Das Heilige』에 따르면 그것은 누미노제(거룩한 두려움)이고, 쉼라이에르마허에 따르면 절대 의존 감정이고, 바르트에 따르면 절대 타자 경험이다. 이런 깊은 차원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 즉 하나님의 창조, 죄, 구원, 칭의, 율법,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하나님 나라, 성령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는 교회력에 담보되어 있다. 대림절, 성탄

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이 그것이다. 나는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교회력이 제시하는 3년 주기 “성서일과”를 따른다. 설교자는 교회력을 신뢰해도 좋다. 이것은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엄마 밥상과 같다. 나는 매월 초에 한 달간 설교할 성서 본문과 제목과 찬송가를 미리 정한다. 한 주일에 해당하는 성서일과(lectionary)는 구약과 신약 서신과 복음서다. 한 달에 보통 복음서를 두 번, 구약과 서신을 각각 한 번 설교 본문으로 삼는다. 한 달 설교 계획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가 정해진다. 그걸 도표로 만들어, 내 책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서 본문과 제목을 묵상한다. 그러다가 제목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주제가 더 심화한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내 목회의 대부분이 설교 행위에 투자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질 때 찾아온다. 평생 설교자로 살았고, 성서 전체를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지만, 성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온다. 나는 그걸 신탁(神託)이라고 생각한다. 오해는 말자. 내가 다른 설교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차원에서 성서의 깊이를 천기누설하듯이 설교한다는 게 아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예를 한 가지 들겠다. 일전(2016-2017년 교회력의 대림절 첫 주일)에 마 24:35~44절을 본문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본문에 두 사람이 발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지막 심판 때 한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은 배제된다는 뜻이다. 나는

이걸 좀더 현실적인 삶에서 설명하고 싶었다. 궁극적인 진리는 단독자로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가는 데만 바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꽃과 나비와 구름과 바람을 깊이 느낀다. 두 목사 똑같이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한 목사는 목회 자체에 매몰되었지만 다른 한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통치를 영혼으로 경험한다. 이게 바로 똑같이 밭에 있다가, 또는 똑같이 땀 흘리다가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한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게 아닐는지. 이게 얼마나 성서주석의 차원에서 옳은지는 둘째 치고 설교자가 성서텍스트의 새로운 깊이나 차원을 보았을 때 영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한 달을 단위로 설교를 구상하지만, 해당 주일의 설교는 목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일단 성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다. 눈으로 읽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한다. 성서텍스트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과 독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이고, 이것을 처음 읽는 태도를 보이는 게 다른 하나다. 목사로 살다 보면 성서텍스트에 대한 전이해(고정관념)가 너무 강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어렵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위의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둔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 텍스트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경험을 종종 한다.

다음 단계는 성서주석 읽기다. 필자는 두 가지 주석을 본다. 가장 간략한 주석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 독일성서공회 해설 2004, 대한성서공회)다. 독일 루터성경에 나오는 해설 번역문이 실려 있다. 이것만 읽어도 본문의 기본 주제와 신학적 발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성서주석』(한국신학연구소)이다. 이런

주석을 통해서 성서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방지할 수 있다.

성서읽기와 주석읽기에 이어서 목요일 밤에 설교 개요를 작성한다. 설교 노트 두 쪽에 해당하는 개요다. 이런 개요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신학적인 마인드다. 창조와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직신학적인 바탕에서 해명할 수 없으면 설교 개요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은 대개 조직신학적인 사유가 분명했다. 이런 조직신학적인 사유 능력은 단시일에 주어지지 않는다. 철학과 인문학 공부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 설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평생 이런 책 읽기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설교문은 금요일에 작성한다. 이게 설교 준비의 핵심이다. 글을 쓰다 보면 글의 흐름을 타게 된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설교자가 아니라 글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다. 내가 설교 초안과 골격을 작성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이 작성 과정에서 일종의 계시처럼 드러난다. 창조적 사건의 한 단면이다. 시인들도 자신이 시를 썼다고 말하지 않고 “시가 내게 왔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창조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설교자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평생 수행 정진하듯이 설교 준비를 한 사람은 그게 뭔지 느낄 것이다. 토요일은 교정에 몰두한다. 컴퓨터 화면으로 교정을 보다가 나중에는 출력해서 교정을 본다. 교정이 다 끝난 원고를 다시 소리를 내서 읽는다. 대략 오후 3시쯤 모든 게 끝난다. 잠들기 전에 다시 원고를 읽고, 잠들면서 머릿속으로 설교 내용을 복기한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원고를 다시 한번 더 읽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읽는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오자가 나오기도 하고,

문맥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대목이 나온다. 그때는 (빨강)펜으로 교정한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선다. (월간목회 2017년 3월호)

설교학 교수에게 말한다

-정인교의 한국설교학회 학술대회 발제안을 읽고-

2007년 11월2,3일에 한일장신대에서 열린 제6차 한국설교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된 설교학 교수 정인교 박사(이하 '정인교')의 글 “한국교회와 설교비평- 이상과 현실 그리고 미래”(이하 '비평')가 같은 해 12월호 <기독교사상>에 게재되었다. 정기학술대회에서 설교비평 문제를 의제로 다뤄준 한국설교학회 회원들에게 설교비평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필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지난 수년간 설교비평 작업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설교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나대는 게 아닌지, 다른 한편으로 이러다가 언젠가는 크게 한번 혼나지,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

정인교는 '비평'에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설교비평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뒤에, 주로 필자의 설교비평 작업을 다루었다. 그는 직접 “논자는 이 글에서 찬반의 중심에 선 정용섭의 설교비평에 초점을 모으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인교는 필자가 시도한 설교비평의 항목과 기준을 다섯으로 분석한 뒤에, 이어서 설교비평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었으며, 끝으로 한국교회의 설교비평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일곱 가지 항목으로 제시했다.

정인교의 '비평'을 읽고 필자는 역시 설교학 전문가의 시야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필자의 설교비평 작업

은 조직신학과 인문학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진행되다 보니 설교학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인교는 설교비평의 기준을 일곱 항목으로 제시했지만, 필자는 그중에서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그 두 가지는 성서의 중심 주제를 찾는 것과 조직신학적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인교에 따르면 그 이외에도 설교의 전달 방식도 설교비평의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그는 “설교자의 역량 인토테이션 클라이맥스의 처리 휴지 기법, 제스처, 원고의 장악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의 결과도 물어야 하며, 설교가 형성하는 공동체의 성격도 물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필자는 설교 행위의 일부만을 침소봉대의 방식으로 비판한 게 되어, 지금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필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닐는지. 정인교도 그런 염려를 ‘비평’ 마지막 문단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특히 영화나 미술, 문학 등 다른 분야의 비평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설교비평은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분야처럼 인식되는 것도 곤혹스런 과제이다. 적어도 설교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은 설교비평의 전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우려는 설교비평이 설교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평을 폄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의 손에 들어간 것 치고 이런 훼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설교비평이 피할 수 없는 당위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즐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위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설교비평이 그리 만만치 않은 난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설교의 존엄성’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설교학자의 고뇌가

그대로 물어난다. 이 마지막 문단만이 아니라 무려 200자 원고지 160매에 이르는 그의 글 구석구석에 한국교회 강단을 향한 충정과 한탄과 아쉬움, 그리고 무분별한 설교비평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배어 있다. 그의 글은 그동안 조자룡 현칼 쓰듯 설교비평 글을 겁 없이 쏟아낸 필자에게 일종의 죽비였다. 이런 글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필자가 자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옆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부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다시 강조하거니와 필자의 설교비평이 설교학의 전체 구도에서 볼 때 반드시 다뤄야 할 대목을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그래도 마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여겨 이렇게 반론 성격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인교가 필자의 설교비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근본 문제까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것의 사실성 여부와 정당성 여부는 이 글이 진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만, 이것이 필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되돌아보니, 필자가 설교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많은 설교자가 바로 현재의 필자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어쨌든지 이 글은 설교학 전문가의 비판 중에서 일부에 대한 비전문가의 자기방어에 불과하다.

정인교의 ‘비평’을 읽으면서 필자에게 다가온 강한 인상은 글쓰기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설교비평 글에 대한 이해가 일단 정확하지 않고, 자신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논거가 거의 없거나 아주 부실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그가 “전반적으로 정용섭에 의해 제기된 설교비평의 당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이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한마디 했지만, 내 어떤 생각에 이의가 없다는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가 말하는 당위는 설교비평이 필

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 지적일 뿐이지 정작 설교비평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설교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공동 발제자로 참여한 류응렬 교수는 한국교회 강단의 가장 큰 문제가 성서텍스트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이라는 필자의 문제 제기를 정확하고 소상하게 짚었다. 글쓰기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설교학 전문가인 정인교의 ‘비평’에서는 그걸 찾아보기 어려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용섭의 인격 모독형 발언

필자가 보기에 정인교의 글쓰기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에 기울어진 탓이 크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자의 글투를 몹시 불편해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투가 거친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따라서 상대하기 싫은 것처럼 말이다. 그는 필자의 발언이 “공격적이고 곤혹스런 인격 모독형”이라고 평했다. 심지어 설교비평의 제목이 ‘섬뜩하다’라고 했다. 필자가 보기에 아주 평범한 제목인데, 그에게 왜 그렇게 비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서택의 설교는 “종교적 모범생 콤플렉스에 의한 복음의 훼손”이고, 이동원의 설교는 “규범설교의 역사허무주의”, 장경동의 설교는 “허무주의 영성”, 정필도의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은폐된 폭력성”, 릭 위렌의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도구화”, 박옥수의 설교는 “구원을 향한 과도한 욕망의 끝자락” 등이 정인교가 섬뜩한 제목이라고 인용한 것들이다.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결국 “설교비평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도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그는 과민할 정도로 걱정하

는 것 같다. 한국교회 강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전에 시도된 다른 설교학 교수들의 비평은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춘 정중한 것”이었데, 필자는 그런 균형감을 완전히 놓쳤다. “이러한 표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가 손댄 모든 설교자에 대한 비평에서 예외 없이 발견된다.” 좀 속된 표현으로, 당신의 말투는 싸가지가 없어, 하고 나무라는 게 아닐는지.

정인교에 따르면 이렇게 예의범절이 없는 필자의 설교비평은, 즉 “비평을 넘어 비난의 선을 넘나드는 이러한 비평”은 두 가지를 목표로 의도된 것이다.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국교회의 설교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충정이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자들의 권력담론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설교비평이 정인교에게 그렇게 비쳤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권력담론 운운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설교비평에서 누누이 밝혔지만 설교비평의 대상이 되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젊어질 젊은 설교자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썼다. 이것을 푸코의 개념인 권력담론의 관점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쥐를 잡기 위해서 도끼를 드는 형국과 비슷하다.

필자가 보기에 정인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지 않는다. 인격 모독형 발언이 “김기석, 박종화, 민영진 등 몇몇 설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교자에게 해당한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

한국설교학회의 정기학술대회가 열린 2007년 11월은 졸저 『속빈 설교 짝찬설교』,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가 출간되었고, 2008년 5월에 출간된 『설교의 절망과 희망』에 실린 원고 중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설교비평만 나오지 않은 때였다. 그

렇다면 그는 필자가 쓴 37편의 설교비평을 읽었을 것이다. 그 많은 줄고를 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필자는 정인교가 지적인 몇 사람 이외에도 옥한흠, 김영봉, 이민재, 홍정길, 판넨베르크, 로이드 존스, 박영선, 이재철, 임영수 등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필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분들의 좋은 점들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는 필자가 대다수의 설교자를 무조건 공격적으로 대한 것처럼 주장한다.

물론 정인교가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발언이 ‘인격 모독적’이라는 그의 느낌도 역시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필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그에게는 왜 모독적으로 들리는가? 그걸 필자가 정확하게 해명할 자신은 없다. 다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정인교의 생각과 필자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닌가, 하고 유추해볼 뿐이다. 예컨대 그가 섬뜩한 제목이라고 열거한 것 중의 하나는 “예언과 선동의 갈림길에서”이다. 이미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 전승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언과 선동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누가 예언자이며, 누가 선동가인지 구별도 안 되었으며, 역사가 그걸 판단했다.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필자는 그 제목에 해당되는 설교가 왜 선동인지를 가능한대로 정확한 논거로 입증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명실상부한 신탁의 담지자로서 예언을 선포해야 한다는 뜻으로 위의 제목을 달았는데, 정인교는 그것이 해당 설교자에게 ‘당혹과 충격’을 준다고 마뜩잖게 생각한다. 정인교와 필자가 각자 자신의 생각에 정직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결국 발을 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제각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독자들의 인내심을 구하면서, 인격모독 운운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해야겠다. 이 대목에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필자의 글쓰기에 대한 정인교의 모든 생각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예루살렘의 유대-기독교 공동체와 바울의 이방-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치열하게 치고받았는지를 짚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과격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갈 1:8,9절) 복음의 확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막말도 마다하지 않은 셈이다. 바울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은 이단들이니 그의 거친 표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야고보에게서 파송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루터는 당대에 동일한 종교 개혁 운동의 한 파라고 할 수 있는 재세례파를 열광적 분파주의자들로 칭하면서 모욕적인 연사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기꾼들이다.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다.”(갈라디아서 강해, 상, 루터신학대학교출판부, 2003년, 38쪽) 바울과 루터의 표현에 비해서 필자의 표현은 양반이다. 그래도 정인교에게는 필자의 글이 치사량을 넘은 ‘독’과 같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설교비평의 문제

정인교는 내 글쓰기의 방식만 문제로 삼는 건 아니다. 비록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친 표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수용할만했다면 필자의 글을 ‘비평’에서 볼 수 있듯이 곤혹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그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것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비슷한 내용을 독자

들이 혼란을 느낄 정도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글을 쓸 뿐만 아니라 글 쓰기의 흐름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설교학 대가들의 이론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필자는 그의 글 중에서 필자에게 해당하는 대목만 간추려서 정리하겠다.

정인교에 따르면 필자가 설교를 비평하는 항목과 기준은 설교관, 설교 취향, 신학적 경향, 성서관, 교회력, 이렇게 다섯 가지이다. 그가 말하려는 핵심은 필자가 설교학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비평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이미 글머리에서 인정했듯이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의 한계이다. 설교학 전반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어찌겠는가. 다만 필자가 다룬 주제만은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한국설교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선 학자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아니었을까. 그가 제기한 다섯 가지 문제도 그의 글에서 서로 중첩되는데, 그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목이니까 그대로 따라가겠다.

첫째,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과 태도가 ‘부정적 비판일변도’라고 한다. 그는 필자의 진술을 두 군데 인용했다. 그중의 하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근본이 약화되고 대신 감성적이거나 도덕적 가치와 심지어는 주술적인 욕망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설교는 하나님 망각현상”에 빠져 있다. 그는 필자의 이런 진술이 옳은지 아닌지를 신학적으로 논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 시각이라고 재단해버린다. 필자는 정인교의 글에서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학인의 풍모가 아니라 특 하면 “저 친구들은 좌파야.” 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일종의 매카시즘적 모습을 본다. 표현은 모호하지만 그 내면에는 독단이 숨어 있다. 그가 필자의 글을 인용한 뒤에 볼

인 해명을 보라.

이러한 태도는 비평이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일반론에서 보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은 율법의 시시비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이다. 기독교인 됨이 ‘근본’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포괄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근본이 결여된 비평은 비난으로 달리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독자들은 위의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는가? 필자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지만, 확 와 닿지 않았다. 힘들어 곱씹어보면 기독교의 근본인 은혜가 필자의 글에 모자랐다는 말인 것 같은데, 필자의 설교 비평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학문적으로 논해야 할 장면에서 은혜가 왜 등장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왜 정용섭의 설교비평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설교비평 문제를 다루면서 ‘은혜’ 운운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는 발언이다. “은혜로 합시다.” 하는 말이 교회 현장에서 진리의 영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가?

둘째, 정인교에 따르면 필자의 설교비평은 지나치게 설교의 내용에 치중함으로 설교를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설교의 실천적 차원을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 실천적 차원이 설교 전달 방법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청중들의 변화를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지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필자는 전반적으로 설교의 내용에만 천착함으로써 결국 설교학자들이 바라보는 설교비평의 통전적 관점을 놓친 게 분명하다.

셋째, 필자가 설교비평의 기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설교비평이 다뤄야 할 기준이지만,

선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필자는 바로 그 선택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보수와 진보의 문제나 친북과 친미의 문제 같은 것들이다. 정인교에 따르면 필자가 “신학적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서서 반대 입장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자의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은 게 분명하다. 이런 흔적은 곳곳에 나타난다. 필자의 설교비평이 주관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거론한 조현정 목사는 필자를 가리켜 “보수적인 성결교단의 배경을 갖고 독일의 보수적이고 관념적인 판넨베르크 조직신학을 전공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필자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진술이 진실인가 하는 점을 조직신학과 인문학적 토대에서 지적한 것뿐이다. 일종의 진리논쟁이지 이념논쟁이 결코 아니었는데도, 그게 정인교에게는 진보의 시각으로 보수를 매도한 것처럼 전달된 모양이다.

넷째, 필자가 선택의 문제를 당위의 문제로 물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제기된 것과 비슷한 항목인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성서해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평자가 신학의 한 극단에 서서 다른 쪽을 매도하는 것이라든지, 충분치 않은 성서의 지식을 가지고 개연성에 근거한 성서해석을 마치 진리인양 밀어 붙이는 것은 건전한 비평의 자리매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서 텍스트가 도구화되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대신해준 것 같다. 그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한 탓인지 필자가 충분하지 않은 성서 지식으로 다른 설교자를 재단한 다섯 가지 예를 자세하게 들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간단히 검토하겠다.

1)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6)를 인용하면서 필자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열 시간 일한 사람이나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는 게 바로 과수원 주인의 뜻이라는 예수의 비유를 굳이 들이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력보다는 생존권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정인교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견해는 “마태복음 20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로 그는 아무 말이 없다. 필자의 진술이 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인지,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만 알아들을 게 아닌가. 그는 근거 없이 판단만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글은 논술이 아니라 설교에 가깝다.

2) 필자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의 설교를 다루는 자리에서 성서 텍스트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 전승을 예로 들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정답을 무조건 답습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다른 시각의 텍스트 읽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거기서 필자는 그 본문이 바로 고대인들의 인신 제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정인교는 그 설명을 이렇게 평가했다. “객관적인 진실을 일개 학문적 가설로 대치하는 것이다.” 정인교의 글읽기와 글쓰기가 최소한의 진정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학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 대목에서 필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인신 제사라는 가설이 전혀 아니었다. “지금 필자는 이런 해석의 신학적 정당성 여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삶과 역사와 존재의 신비를 안고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으면 성서 텍스트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우리의 설교가 죽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그는 같은 문단에 들어 있는 필자의 이런 진술을 애써 외면했다. 이런

글쓰기는 곡학아세의 한 전형이다.

다섯째, 정인교는 필자의 “독선적 무례함”이 문제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탓인지 그는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는 ‘인격 모독형’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독선적 무례함’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내적 소명과 신학을 공부하고 공회 앞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이며, “명예와 긍지 자존감을 먹고 사는 존재들”인 설교자들에게 왜 불손하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독선적이고 무례한 설교비평이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을 크게 염려했다. 결국 필자의 태도는 “그 근본 선한 동기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무례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필자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예를 아홉 군데나 들었다. 그가 인용한 진술만 놓고 본다면 어떤 독자들에게는 필자의 글이 냉소가 가득한 독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맥락을 그가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 제일 처음으로 인용한 한 대목만 짚자. 김진홍 목사의 설교에 대한 비평 “영웅 이야기에 밀려난 하나님 이야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그것이다. “성서텍스트 안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스테반에 관한 본문을 놓고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공과지도를 하듯 엘리야의 일대기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귀중한 설교시간을 허비하기 마련이다.” 필자는 김진홍 목사의 설교행위에 드러난 어떤 사실을, 즉 성서 텍스트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근거로 분석해서 전했을 뿐인데, 정인교의 눈에는 그것이 독선으로 비쳤다. 정인교가 학자라면 필자의 진단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신학적으로 검토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문제를 전혀 다루지도 않았고, 아니 다를 생각마저 없다는 듯이 무례함 운운하고 말았다. 실체는 없이 주

관적 느낌만 가득한 글을 어찌 학인의 것이라고 하겠는가.

설교학의 미래

필자는 이 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 하나는 전통적 설교학의 기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정인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두 번째 사실을 여기서 다뤘다. 물론 두 번째의 사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이라면 동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비평받을 때가 됐지만 너무 과격하게 몰아붙이지 말라거나, 교회의 덕을 살리는 쪽으로 작업하라는 일반적인 충고로 말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학술대회의 발제로서는 정인교의 글에 논리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옳고 그름 이전에 글쓰기의 진정성이 달린 문제였다. 필자를 날카롭게 비판한 류응렬의 발제에는 그것이 살아 있었다. 그는 필자와 본인 사이에 놓인 성서론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짚었다. 정인교가 그런 근거들을 충실하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또는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다. 이제라도 그의 설명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인교는 앞으로 설교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설교비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덕담이나 주례사 차원이 아니라 종말론적 진리의 지평에서 수행될 수 있는 설교비평의 학문적인 틀과 기준을 구축해주시고, 더 나아가 설교학자들께서 먼저 예언자적 영성으로 비평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거기에 바로 한국교회 강단과 한국교회 자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설교비평이 반드시 설교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틀

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는지. 조직신학을 전공한 필자 스스로 절감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전문가 집단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전문적일 수 있지만, 근본과 보편에서는 오히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간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철학자와 자연과학자가 공동의 주제로 담론을 형성해나가듯이 설교학자와 조직신학자가, 성서신학자와 윤리신학자가 공동의 신학 작업을 펼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신학의 꽃이라 할 설교 문제는 단지 설교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이외에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더불어서 풀어가야 할 공동 분과에 가깝다.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설교학회에서 설교학자와 조직신학자, 그리고 성서학자가 더불어 발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기독교사상, 2008년 10월호)

한국교회 강단, 세울 것인가 허물 것인가

-정인교 박사의 <설교자여 승부수를 던져라>를 읽고-

스타 설교자의 함정

서울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며 한국설교학회 회장인 정인교 박사(이후 '정 박사'로 약함)의 최근작 <설교자여 승부수를 던져라>를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첫 번은 책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생각으로 주마간산 격으로 읽었다. 앞표지 디자인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안성맞춤이다. '탁월한 설교를 향한 16가지 승부 전략'이라는 부제가 돋보였다. 하단에 선정적인 카피가 달렸다. 설교 하나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한국교회 최고 설교자 16인의 설교비법 완전 분석! 뒤표지에는 이 책의 서문 격인 '연구를 시작하며'에서 인용한 글이 바탕에 깔렸다. '설교는 ... 전쟁이다!'라는 큰 폰트의 구호가 두드러졌다. 하단에도 앞표지와 마찬가지로 선정적인 카피가 달렸다.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의 비밀, 평범한 설교자를 비범하게 만드는 최강의 설교 노하우·테크닉 대공개! 기분이 찼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법'이라니, 낯 뜨거웠다. 마치 수능 족집게 학습 참고서를 선전하는 문구가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쩌랴. 그것만 갖고 시비를 걸 일은 아니다. 아무리 진리와 벗하는 학자의 글이라 하더라도 튀어야 살아남는 요즘과 같은 세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내용만 충실하다면 표지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두 번째 읽기는 정독이었다. 16명의 설교자들이 거론되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설교자들이었다. 이들의 설교에 대한 분

석을 382 쪽의 분량으로 담았다. 각주까지 일일이 붙였다. 여기에 들어간 정 박사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지는 긴 말이 필요 없다. 개별 설교자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 설교자를 다루기 위해서 백 편 이상의 설교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다. 평균 50편만 잡아도 물경 800편의 설교라는 말이 된다. 노작이다. 책을 읽어가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설교학 전문가답게 16명의 설교자에게 드러나는 설교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이 책에는 16종류의 설교 ‘승부수’가 담겨 있다. 파트 별로 4명 씩의 설교자를 묶었다. Part1에서는 아래의 승부수가 제시되었다. 차례에 나온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1) 곰국 끓이듯 묵상과 기도로 메시지를 꼭~ 고아라!(꿈꾸는 설교자: 강준민) 2) 대도시에서 승부하기: 도시의 지성을 파악하라, 맛깔나게 설교하라!(지성인을 위한 복음: 객선희) 3) 치열한 신학과 교리로 승부하기: 눈물의 열심에 치열한 교리를 심어라!(눈물의 열심: 김남준) 4) 상식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으로 승부하라!(패러독스의 복음: 김동호)

Part2는 아래의 설교자들이 거명된다. 5)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회중의 기본 심리를 자극하라!(부드러운 강함: 김삼환) 6)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복음으로 승부하라!(적극적인 신앙으로 만든 뉘페식 설교: 김선도) 7) 체험을 통과한 복음으로 승부하라!(체험에 실린 ‘느림’의 복음: 김진홍) 8) 거침없는 직설에 거룩함을 실어라!(성화로의 거침없는 하이킥: 박영선)

Part3은 아래와 같다. 9) 전통적 진중함으로 승부하라!(설교의 모범 답안: 옥한흠) 10) 훈련된 능변으로 승부하라!(웅변을 넘어서는 설교: 이동원) 11) 철저한 강해설교로 승부하라!(설교이전의 설교: 이재철) 12) 부드러운 목회적 감각으로 승부하라!(소박한 세련: 이정익)

마지막으로 Part4는 다음과 같다. 13) 다양한 정보로 승부하라!(설교의 특성화: 전병욱) 14)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승부하라!(축복을 전하는 영적 설교: 조용기) 15) 맛깔나는 전달로 승부하라!(순교의 열정: 하용조) 16) 겸손과 성숙한 인격의 삶으로 승부하라!(인격으로 전하는 복음: 홍정길)

위의 소제목만으로도 정 박사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열 여섯 가지의 비법을 다시 각각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묵상, 지성, 눈물, 역설, 심리, 긍정, 체험, 직설, 모범, 능변, 강해, 소박, 정보, 성령, 열정, 인격이다. 정 박사는 여기서 설교자의 성품, 영성, 스피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글쓰기 방식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승부수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리이다. 둘째 단계는 승부수를 익히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고, 셋째 단계는 해당 설교의 특징과 문제점 제시이다. 한 설교자가 여기에 제시된 특징을 모두 배울 수는 없다. 가능한대로 몇 개를 소화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중에 자신에게 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면 될 것이다.

정독한 뒤의 느낌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이 바로 이 글의 목표다. 설교학 전문가의 노작을 이렇게 한 마디로 편해한다는 건 인간적인 예의에도 어긋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는 게 낫지 굳이 문제를 들춰낼 필요가 있나, 하고 염려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 박사에게는 미안한 일이겠지만 지금 나는 내 눈에 들어온 실체를 그대로 말해야겠다. 잘못 본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지적해주기 바란다.

정 박사가 다룬 열여섯 명의 설교자 중에서 두 명만 제외하면 필

자의 설교비평 작업에서 다른 이들과 겹친다.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호기심이 갔다. 내가 다른 설교자를 설교학 전문가는 어떤 평을 내리는지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욕을 먹을 각오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실망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젊은 설교자들이 따라가면 안 될 설교자로 필자가 생각한 이들까지 정 박사는 치켜세웠다. 설교에 대한 정 박사의 시각이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다음과 같다. 그는 설교행위 전반을 다룬다면 나는 주로 설교 내용을 다룬다. 이것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그는 설교 행위의 성과에 비중을 두지만 나는 그것을 낮게 본다. 더 근본적으로 그는 각각 설교자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면 나는 비평적으로 읽는 작업을 했다. 그는 목회의 차원에 설교를 다뤘다면 나는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다뤘다. 그는 실용적인 관점을 높이 샀지만 필자는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 샀다. 이런 차이는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최소한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은, 또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은 서로 공유되는 게 있어야만 했다. 그게 없었다. 자잘한 것은 있었지만 큰 것은 없었다. 필자가 체면 불고하고 젊은 목사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설교자로 거론한 이들을 정 박사는 모범적인 설교자에 속하는 이들로 선정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건 단지 시각의 차이로만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 강단을 세우는가 허무는가에 달린 문제이며, 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정 박사는 16명을 모범적인 설교자로 선정했다. 물론 16명이 모두 완벽한 설교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의 입장은 이렇다. 이들 16명의 설교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이다. 옳은 말이긴 하나, 하나마나한 말이다. 그의 논리

대로라면 모든 설교자가 모범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많은 단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적은 장점을 배우면 되니 말이다. 그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완벽한 설교는 없다는 말로 자신이 추천한 설교자들의 문제를 변호하고 있다. 그는 16명을 선정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설교의 뚜렷한 성과, 둘째는 일반 목회를 하는 설교자, 셋째는 복음주의 설교자, 넷째는 연설적 능력이 탁월한 설교자이다. 말하자면 정 박사가 모범적인 설교자로 추천한 이들은 복음주의에 속하면서 대중성을 얻은 이들인 셈이다. 더 줄이면 개신교 스타 설교자들이다.

그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름으로 필요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타 설교자들을 내세워서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사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발상 자체가 내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제2의 조용기, 제2의 강준만, 제2의 전병욱을 키우는 게 설교학자의 사명이라는 말인가? 정 박사에게는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한국개신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스타 설교자의 출몰이다. 교회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스타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스타 설교자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로마가톨릭교회에는 스타 강론자가 없다. 고만고만한 강론자들이 고만고만하게 사목을 하고 있지만 가톨릭교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스타 설교자가 준비한 개신교회는 총체적으로 뒷걸음을 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스타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자들의 쏠림현상이 이에 일조하고 있다. 일조가 아니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론이 가능하다. 이런 책임을 대중적인 스타 설교자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말이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설교의 대중성을 확보한 설교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의 개신교 전체가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설교학자는 스타 설교자를 배출하는 것보다는 바른 설교자를 배출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닐는지. 승부수를 던지는 기술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진득하게 천착하는 설교자를 추천해야 하는 게 아닐는지.

논리적 모순

정 박사는 대중성이 있는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알팍한 인식의 이면을 설교의 핵심으로 삼고 성경은 단지 하나의 치장으로 전략시키는 설교자는 퇴출되어야 할 대상”(14 쪽)이라고 옳게 주장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정 박사는 각선희 목사의 설교에서 배워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나눴다. 먼저 배울만한 점은 청중의 수준에 맞추는 설교, 교양적 문화도시인에 초점을 맞춘 진행, 다양한 보조자료를 통한 들을거리가 있는 설교, 청중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적 접근, 화려한 수사적 기법과 강단을 장악하는 설교 매너, 설교 내용에 대한 완벽한 소화와 암기, 매력적인 설교 제목 등이다. 이런 요소들은 설교의 중심이 아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치장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할 점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 박사가 각 목사의 설교를 정확하게 보았다는 뜻이다. 각 목사의 설교가 설교의 중심이 아니라 치장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는가.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네 가지가 거론되었는데,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첫째만 인용하겠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귀는 즐거운데 영적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는다.”(58 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한 메시지가 성경의 깊이보다는

들을 만한 어떤 보조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설교자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루는 ‘설교적 관찰’과 성경에 의지하는 ‘기도생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곧 각 목사가 성경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고, 기도생활에도 시원치 않다는 뜻이 아닌가. 혹독한 비판이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귀만 즐겁게 설교하는 각 목사는 정 박사 말대로 퇴출 대상이다. 그런데 글 마무리에서 “곽선희 목사와 같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정 박사는 왜 한 입으로 두말을 하시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다. 정 박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각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문제점은 장점과 비교할 때 심각한 게 아니라고 말이다. 과연 그런가? 청중을 부릴 줄 아는 능력만 있다면 성경이 침묵하는 설교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선정적인 방식으로 청중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설교를 모범으로 삼아도 좋으리라. 지금 필자가 트집 잡기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의 논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설교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짐은 이미 머리글에서부터 노골화되어 있다. 그는 설교 행위를 전쟁으로 비유한다. “설교는 곧 영적 전쟁인 동시에 회중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이 걸린 실제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설교자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11 쪽)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 상대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인가, 청중인가, 성장이 멈춘 교회 현상인가? 그가 추천한 설교자들의 면모를 보면 답이 나온다. 모두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키운 이들이다. 이들이 설교하는 교회로 몰려간 청중들은 또 다른 교회의 신자들이었다. 이 사실을 정 박사도 모르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설교자의 적은 바로 다른 설교자라는 말이 된다. 다른 설교자들과의 전쟁에서 살

아남기 위해서 승부수를 배우라고 선동한 것이다. 필자의 오해였다면 해명을 바란다.

필자가 보기에 정 박사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영성 없이 단순히 청중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를 본받아야 할 설교로 내세우는 게 아니겠는가. 김동호 목사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성경이 뒤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했다. 성경본문을 예화나 인용자료처럼 취급하는 설교가 대단히 많았다고도 한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그는 이 설교로, 정확히 말하면 상식의 허를 찌르는 역설적인 설교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설교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성경의 깊이로 승부해야 할 당위는 김 목사에게도 해당된다. 그가 가진 영향력과 기대치가 높기에 더 더욱 그러하다.”(116 쪽) 무슨 말인가? 김동호 목사는 말재주로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런 설교는 길게 가지 못한다고 친절하게 충고했다. 그렇다면 김 목사의 설교는 후학들이 배워야 할 모범과는 거리가 멀다. 정 박사는 필자가 오해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은 완벽한 설교자를 추천한 게 아니라고 말이다. 그런 설교자는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연설적 성격’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추천한 것이라고 말이다.(14 쪽) 연설적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가? 독자들은 설교의 내용과 연설적 성격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한국설교학회 회장이 추천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학적인 내용도 충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미 선정 기준에서 그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적 설교에 주력하는 설교자를 추천하였다.”(14 쪽) 밝혔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뒤로 미루는 설교자를 추천했다. 앞뒤가 다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말(글)로 먹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가 아는 말을 써야 한다. 목사와 학자가 그렇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성서 언어와 신학언어, 영적 언어를 모르고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대중 설교자들에게서 흔히 경험한다. 정 박사의 책에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모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대중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르다. 대중 알아도 뭔가를 말할 수는 있다. 설교자들이 성서와 영성에 대해서 대중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권위에 숨어서 얼마든지 설교하듯이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언영색으로 자기가 대중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는 없다. 그의 글은 자신에게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언어 사용에서나 글의 논리에서 마찬가지이다. 글 읽기에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하다.

예컨대 그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설교의 위기를 조장하는 요인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설교가 설교자를 통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국 그 위기는 설교자에게로 귀결된다.”(8 쪽)라거나, “이처럼 설교가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있으나 설교자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세워야 한다. 그것이 설교를 사건으로 만드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설교자는 그 ‘승부수’에 집중해야 한다.”(11 쪽)는 진술에서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모호하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인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불확실하다. 현대신학에서 언어의 사건적 차원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 학자는 에벨링이다. 에벨링은 언어가 단지 어떤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존재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언어사건(Wortgeschehen)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폭스, 볼트만, 하이덱거 등의 사상이 연루되어 있다. 설교가 사건이라는 정 박사의 표현이 이런 신학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 언어의 해석학적 차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재주에 빠져 있는 대중설교자들을 모범적인 설교자로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신학용어를 어림짐작으로 쓴다는 반증이다. 언어들은 풍월로 쓴다고도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이 그의 사유와 논리와 글쓰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작은 실수도 눈에 뜨인다. 체험적이고 실존적이고 주관적인 성서해석이 강한 학자는 칼 바르트가(53 쪽) 아니라 볼트만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실수야 필자도 종종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 박사의 경우에는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정통 보수신학의 객선희 목사를 자유주의 신학자 볼트만과 연결시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의 번역 투 글쓰기도 글을 따라가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한 자신이나 낙관을 가지기도 힘들다.”(11 쪽) 낙관을 가지기 힘들다는 표현은 우리말이 아니다. 그냥 ‘낙관할 수 없다.’ 정도로 말하면 된다. “가령 그는 예수를 이해함에 있어 전통적인...”(48 쪽) ‘... 함에 있어’도 우리말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느껴지기보다는”(79 쪽)도 어색하다. 그냥 ‘자유’라고 하면 된다. “전문 설교자들에 대한 ‘방출 통보’(?)에 다름 아니다.”(10 쪽) ‘다르지 않다.’라거나 ‘다를 게 없다.’ 하면 될 것을 왜 ‘다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말이 비틀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예는 그의 책에 부지기수다. 단순히 개인의 글쓰기 특징을 제삼자가 알가알부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자의 글이기에 이렇게 시비

결듯이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글들이 단순히 글쓰기 습관이나 특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유와 논리에도 그대로 묻어남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자신이 진술하고 있는 것의 실체를 모른 채 말하다 보니 논리가 뒤섞여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다.

김남준과 전병욱

정 박사가 다루고 있는 16명의 설교자 중에서 두 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한 사람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이다. 필자는 그의 설교를 “청교도 신앙의 영적 결벽증”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감정의 과잉, 성서텍스트의 오해, 죄 콤플렉스, 기독교 패권주의 등등의 개념들이 김 목사의 설교를 해명하는 키워드였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청교도 신앙의 영적 결벽증에 의해 포위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설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청중들의 영혼은 병들기 마련이다. 김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 은혜를 받는다는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은혜는 도처에 널려 있다. 구원과 박옥수 목사나 귀신론의 김기동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넘쳐난다. 문선명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많다. 히틀러의 연설에도 은혜를 받은 독일 사람들이 많았다. 설교에서 청중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핵심은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 복음의 진수가 선포되는가의 여부가 핵심이지 않은가. 필자가 보기에 김 목사의 설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감수성에 호소하고 있었다. 건강하지 못한 설교다.

정 박사는 김남준 목사의 설교를 다루는 쪽지의 제목을 “치열한 신학과 교리로 승부하기: 눈물의 열심에 치열한 교리를 심어라!”로 잡았다. 정 박사에 따르면 김남준 목사는 청교도 설교자다. 정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 수사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설교자다. 그래도 김 목사의 설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깊은 성경강해, 복음에 대한 열정, 소박한 인격 탓이다. 설교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나열한다. 첫째, 내용과 형식이 청교도적이다. 둘째, 강해와 교리라는 두 축으로 전개된다. 셋째,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룬다. 넷째, 회중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의 설교다. 다섯째, 칼뱅주의를 신학적 토대로 한다. 여섯째, 회중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한다. 정 박사의 설명은 틀린 게 없다. 김남준 목사의 설교를 무난하게 분석했다. 무난한 분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신대원 학생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 만한 내용을 무색무취한 글쓰기 방식으로 진술했을 뿐이다. 전문가만이 포착할 수 있는 깊이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런 글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지 못한다. 마치 신학대학교 설교 실연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의 설교를 간단히 코멘트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가 결론적으로 김남준 목사의 설교를 신앙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신기하다.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실제적 진실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 박사의 덕담은 다음과 같다.

김남준 목사는 독특한 설교자이다. 연설로서의 설교적 차원을 철저히 배반하면서도 오직 설교를 통해 회중을 모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독특성을 넘어 김 목사의 설교가 보다 보편적인 대중성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의 강해적 깊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한국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다.(79쪽)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설교를 다룬 줄고 “들리는 설교와 들리지 않는 설교”를 이번에 다시 읽어보았다. 거기서 필자는 그의 설교가 청

중과의 소통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불통에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다룬다. 그에게 성경은 청중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그는 기독교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설교자다. 성경은 단순한 신앙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존재론적으로 견인해가는 언어사건이다. 성경을 정보로만 취하는 전병욱 목사의 설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성경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서 영혼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처세술적인 설교를 치장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필자는 위의 줄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결론은 이렇다. “어쨌든지 분명한 건 그의 ‘들리는 설교’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사실이다.”

정 박사는 전병욱 목사의 설교를 다루는 쪽지의 제목을 “다양한 정보로 승부하라!”라고 달았다. 전 목사의 설교 특징을 정확하게 짚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필자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정 박사는 자신이 한 말의 실체를 잘 모른다. 그 쪽지의 서론에서 성경적 설교의 핵심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전 목사의 설교를 성경적이라고 진단했다. 그것을 강해설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의 설교가 전반적으로 성경적인 색채를 띤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312 쪽)라는 것이다. 정 박사에 따르면 성경적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 철저한 주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전병욱 목사의 설교가 이런 주석 작업을 철저하게 수행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게 미흡하다는 말을 뒤집어서 비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설교학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 그가 규정한 전 목사 설교의 특징인 다양한 정보와

그가 성경적 설교의 특징으로 거론한 주석 작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전병욱 목사는 주석서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 박사는 아시는지. 전 목사는 “주석을 봐야할 정도로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곳은 별로 없기”(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300 쪽) 때문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분이다. 당연하다. 성서가 다른 처세술과 비슷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는 분의 눈에는 성서의 가르침이 뻔할 수밖에 없다. 성서가 노출되면서 동시에 은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전병욱 목사의 독서와 정보라는 것도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 그는 삼일교회를 여성적인 교회가 아니라 남성적인 교회로 키우기 위해서 경제경영 서적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중국병법서를 30,40권이나 수집할 정도이다. 정 박사는 전병욱 목사의 어투에 문제가 있지만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대에 ‘모두가 새겨봄직한 선구적 모범’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처구니없는 평가다.

젊은이들만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들만 잡을 수 있다면 내일의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어디 젊은이뿐이라? 실버 세대나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설교와 목회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필요가 있다. 전병욱 목사만큼만 연구하고 노력하면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314 쪽)

필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설교자로 거론한 김남준과 전병욱 목사를 정 박사는 따라야 할 모범으로 추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정 박사도 김남준과 전병욱 목사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병욱 목사의 설교에 대한 아무개 대학원 학생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말장난 같다. 남대문 시장 상인이 물건을 파는 것 같다. 경박스럽다. 정 박사는 이런 평가를 내린 학생들이 30대 중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서 이런 문제를 단지 세대차이로 치부하고 있었다. 설교행위에 대한 시각이 안이하다.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설교학자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수많은 후학이 설교의 바른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 태도는 매문(賣文) 행위 아닌가.

다시 묻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앞에서 한번 언급한대로 정 박사는 그 대답을 설교학과 조직신학의 차이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설교학은 설교의 내용만 분석하는 조직신학과 달리 설득 기술과 청중의 반응까지를 포함한 설교행위 전반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과연 설교학과 조직신학은 큰 틀에서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교학도 여전히 조직신학과 마찬가지로 신학의 한 분과일 뿐이다. 설교학도 신학이라는 기둥에 붙어 있으며, 조직신학도 그렇다. 똑같이 신학을 기둥으로 한다면 동일한 사태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차이는 전공이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신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 신학대학교의 설교학은 조금 더 신학의 중심으로 가까이 오는 게 좋겠다. 전달기술과 목회의 효율성보다는 하나님(神-Theos)의 말씀(學-Logos)에 무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분과의 명칭을 설교학이 아니라 ‘설교신학’으로 바꾸는 게 어떨는지. 한국설교학회 회장이신 정 박사께 부탁을 드린다. 한국교회 강단을 주제로 설교학자와 조직신학자의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으면 한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도 없을 것이다. 몇 년 전에 한국설교학회에서 <설교비평>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정 박사와 총신대학교 류응렬 박사의 발제가 있었다. 필자는 훗날 <기독교사상>에 실린 발제문을 읽었다. 이런 세미나도 설교학 전공자들만이 아니라 타 분과 전공자들이

**함께 참석했다면, 요즘 학계의 대세인 간학문의 소통에도 상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기독교사상, 2010년 12월호)**

시적 감수성과 설교

-민영진 박사의 “나의 설교를 말한다”를 읽고-

민영진 박사님(이하 민 박사)의 설교를 다룬 줄고 “말씀의 숨과 결”은 <기독교 사상> 2006년 12월호에 게재되었고, 다음 해에 책을 묶은 설교비평집 2권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에 실렸다. 그 글을 쓴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방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어깨를 책장에 기댄 채 민 박사의 설교집 『하느님의 기쁨 사람의 희망』에 있는 몇 편의 설교를 단숨에 읽었다. 그때 심정은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 당시 줄고에서 나는 민 박사의 설교를 ‘말씀의 숨과 결’이 살아 움직이는 설교라고 정의를 내렸다. 말씀의 숨은 성경 이야기가 살아 숨 쉰다는 뜻이다. 그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심취되듯이 성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설교는 쉽지 않다. 대개는 말씀과 설교자가 따로 놀거나 말씀이 설교자의 목회적 욕구에 도구로 활용된다. 말씀의 결은 설교를 견인해나가는 역사적 관점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그의 설교는 역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말이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의 설교자는 역사적 삶의 현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나는 그의 설교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을 옆에서 들을 수 있듯이 생명 살림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정의를 오늘날은 약간 풀어서 설명하겠다.

민 박사의 설교에는 청증을 성서의 고유한 세계와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역동성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그의 설교가 창조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횡행하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진부한지는 여기서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민박사의 설교는 청중이 성서 텍스트의 세계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둘째, 그의 설교는 신학적이다. 민박사가 ‘신학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눈에 분명히 그렇게 보였다. 여기서 신학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신학적인 교언영색으로 신자들을 계몽시킨다거나 머리만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다. 삶이 없는 관념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정보도 아니다. 그것은 합리적 영성이다. 이것 없이 어찌 세계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 거기에 운명을 걸 수 있단말인가. 셋째, 그의 설교는 문학적으로 탁월하다. 이는 곧 인문학적 바탕이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민영진이라는 한 인격체 안에서 융해되어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설교를 가능하게 했다.

오늘 논찬자로 선 나의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허하다. 바둑에서 수가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 고수의 수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격이니 말이다. 입 다물고 한 수 배우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그의 설교를 평한 이유는 그의 설교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강렬하여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증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마음만 앞섰지 민박사의 설교가 담고 있는 풍부한 세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필자는 무언가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그 줄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자의 글쓰기가 서툰 탓인지, 지면은 끝나 가는데 아직도 민목사의 설교

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남아있다. 한편의 문학작품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설교의 품위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설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토대와 인간에 대한 깊은 파토스와 연대감, 어린 시절의 신앙경험과 삶의 내면에 대한 통찰, 신학을 공부한 아내로부터 받는 설교 피드백, 그리고 상당한 경지에 올라선 글쓰기의 테크닉과 한편의 설교가 여러 번에 걸쳐 발전해나가는 과정, 또한 그의 설교관에 대해서도 독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특히 몇몇 설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 싶었다. 예컨대 이사야의 피의 제사(사 34:2-8)와 북한의 문학작품인 <피바다>를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원수 갚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승화시킨 설교 “피바다”(81-94), 그리고 다말과 룯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여성 문제를 신학화한 “다말의 한풀이”(46-51), 그 이외에 성서학자의 전문성이 여지없이 발휘된 여러 편의 설교들이 그런 것들이다.(설교와 선동사이에서, 101 쪽)

말하자면 민 박사의 설교에 대한 필자의 마음은 일종의 그리움에 속한다.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말하고 싶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위에서 밝힌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회가 아닌 것 같다. 그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듣고 평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게 필자에게는 불편하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고 싶은데 그의 사랑 관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야 하는 처지가 말이다. 알맹이는 빼놓고 겉모양만 대해야 할 입장이라니. 그래도 어쩔겠나.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니,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바람직한 설교자 상

민 박사는 자신의 설교가 청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다가 결국 말썽도 있고 청중도 잃었다는 고백으로 설교에 대한 변을 시작했다. 그가 말썽의 중심에 천착하는 대표적인 설교자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논찬자에게는 뜻밖의 말로 들렸다. 이런 뜻밖의 말을 이번 발제에서 여러 번 경험했다. 그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곤란하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른 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그 기준이었다. 청중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탁에 매진한 예언자들과 달리 자신은 청중들의 주문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설교자가 누구겠는가. 예언자들도 당시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자책감이 왜 없었겠는가.

청중들에게 배척을 받은 예언자들처럼 민 박사도 실제로 설교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설교 도입부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복한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민 박사는 이 소동 이후로 청중을 화나게 하는 설교는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바람직한 설교자의 유형을 제시한다. 그게 바로 민 박사가 발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한 중심 메시지일 것이다.

민 박사는 설교자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 예를 구약에서 찾는다. 첫째, 욥의 친구들은 이웃의 고통을 대상화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었다. 둘째, 이사야 53장의 화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내면적으로 연대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민 박사가 제시하는, 그리고 희망하는 설교자다.

고통받는 이를 보고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서 자신의 구원자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더 진한 우정과 해방과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를 설교자의 모범으로

삼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를 그는 찾고 있다. 청중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청중을 계몽하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고통당하는 청중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 전이에 영향을 키친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대교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김춘수 시인의 작품이다.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주로 김춘수의 시와 연관해서 그가 왜 거기서 설교자의 자리를 찾았는지만 짚겠다.

민 박사에게서 김춘수의 시는 성서 텍스트가, 더 정확하게는 거기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본인에게 육화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는 김춘수의 “예수 시 목록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심을 40년 동안의 나의 설교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한탄한다. 주님에 대한 친밀성이 그 시인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는 자책이다. 더 나아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목사요, 신학자요, 설교자요, 성경번역인 너에게서는 내가 일찍이 김춘수 시인에게서 보는 이런 믿음을 못 보았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다. 신학자보다 시인의 믿음이 더 본원적이고, 더 절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 필자는 곤혹스럽다. 김춘수의 믿음보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민 박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적 레토릭인지, 아니면 어떤 근원적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모르겠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을 것이다. 원래 민 박사는, 논찬자가 3년 전 설교를 대할 때도 느낀 바이지만 어떤 사태이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자기 성찰에 대한 감수성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설교 현장에서 겪은 소동 사건도 그렇다. 보통 설교자 같았으면 그 사건

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미를 텐데, 민 박사는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민 박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설교자 상이 거기서도 확인된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불행이든지 그 원인을 따지고 판결하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실존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말이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에게서 우리 설교자들이 배울 수 있는 연민의 파토스가 거기에 담겨 있다.

시인과 설교자

이렇게 자신을 저 밑으로 낮추고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는 태도는 설교자로서 귀한 것이다. 요즘처럼 설교자의 독단과 선동이 판을 치는 시대에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본인이 40년간 행한 설교가 김춘수의 ‘예수 시’보다 못하다는 그의 주장은 겸손의 과유불급이 아닌가 모르겠다. 시인의 감수성과 설교자의 영성은 단순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민 박사의 진술에서 이 문제는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된다. 하나는 ‘다양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에 대한 친밀성’이다. 더 좁히면 다양성과 친밀감이다. 시인이 신앙적인 관심을 시적 언어로 다양하게 형상화할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과 친밀감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민 박사는 김춘수의 시에서 그걸 절감했다. 민 박사 자신이 시인이요, 평론가이기에 김춘수의 시에서 받은 느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신학자와 설교자는 예수 사건에 대해서 시인보다 더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더 친밀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다. 내 생각에 민 박사는 이미 그런 길을 걸어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춘수는 더 시적인 언어와 상상력으로, 민 박사는 신학적인 언어로 그것

을 표현했다는 사실 뿐이다. 나는 20년 전에 출판된 그의 『하느님의 기쁨, 사람의 희망』에서 그걸 확인했는데, 본인이 인제 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하니, 논란자의 입장만 곤란하게 됐다.

김춘수의 시와 에세이를 깊이 있게 모르는 처지에서 민 박사의 이런 고백에 관해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민 박사를 한국교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설교자로 손에 꼽았던 필자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다른 당혹감이기도 하다. 뭐가 문제인가? 필자가 민 박사의 설교를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본래적으로 시인은 신앙과 정신세계에서 설교자를 능가하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민 박사의 설교가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가는 국면(카이로스)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마 가장 가까운 대답은 김춘수의 시 세계에 대해서 논란자가 잘 모른다는 것이리라. 정확한 대답은 나중에 민 박사에게서 직접 듣기로 하고, 논란자의 입장에서 이와 연관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겠다. 김춘수의 시와 관련된 문제가 “나의 설교를 말한다.”라는 발제의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 관념화의 문제

김춘수의 시 두 편을 예로 들면서 민 박사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관념화시켰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관념적이라는 말인지, 민 박사의 설교가 관념적이었는 말인지, “역사적 사실을 신학화시키고 관념화시켜 버리는 것은 마치 마취제를 마시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그런데 너무 옳은 지적이래서 뭔가 불편하다. 대중 설교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모를까 이미 오래전에 “광주에서 나올 진혼의 사제”를 외친 민 박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

온다는 건 예상외다. 필자의 생각에 민 박사는 김춘수의 시를 신학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자와 설교자의 자리를, 아니 자신의 자리를 너무 낮춘 것 같다. 질문은 이것이다. 본인의 설교에서 예수의 역사적 사실이 관념화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 고통의 문제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김춘수의 시에서 실질적으로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런 경험은 내밀하고 주관적이어서 제삼자가 뭐라 말할 여지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질문은 가능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고통이 핵심 주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거기서 말하는 고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무죄한 자의 고난 문제를 다루는 신정론을 가리킨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사실적인 고통, 또는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신앙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는지. 대중 설교자들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강조하여 신자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런 신앙에 익숙해진 한국교회 신자들의 일반적인 신앙 정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는 신자들에게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문제

민 박사가 말하는 설교자의 자리는 “시편의 남은 구절은 너희가 잇고”라는 김춘수의 시구에 놓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이어 나오는 시편 구절을 우리가 이어가라는 말이다. 이것이 발제의 결론인

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편 22편의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말인지, 실제 삶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껴안아야 한다는 말인지를 말이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했으니 김춘수의 시를 이해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통치가 존재론적으로 담지된 성서 텍스트의 놀라운 세계를 청중들에게 풀어내야 할 설교자의 정체성을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 아닐까 모르겠다. 또는 너무 일반론적인 진술이 아닐까 모르겠다. 민 박사의 영성이 안이하다는 말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인의 주관적 언어 경험의 세계를 굳이 신학적으로 변증하려다 보니 벌어지는 사태였다는 말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예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경험을 잇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4. 번역에서 잇기로(?)

민 박사의 “나의 설교를 말한다.”에서 ‘나의 설교’는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결론을 약간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 민 박사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면 ‘번역’에서 ‘잇기’로 나가는 것이다. 번역은 그 자리가 정확한데 반해서 잇기는 바로 위 3번에서 말한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여기서 교회성장론이나 선택이원론, 영육이원론에 사로잡힌 설교자는 접어놓자. 나름으로 기독교 전통에서 바르게 신학공부를 하고 교회 현장을 구도적 자세로 대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이미 민 박사가 결론으로 삼고 있는 ‘잇기’의 차원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민 박사가 새삼스레 김춘수의 시구를 끌어왔다는 것은 논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말이라다. 지금 민 박사가 거기

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라.

트집 잡기식으로 들려도 용서를 바란다. 논찬자의 생각에 설교자의 자리는 민 박사가 부끄럽게 생각한 번역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석과 해석을 통한 선포로 나가면 된다. 그 출발은 번역이다. 번역은 삭막한 언어 조합이나 낭만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다. 언어의 존재론적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번역이, 그리고 해석이 불가능하다. 언어는 이미 ‘사건’이다. 창조와 종말의 사건이다. 그런 언어를 번역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설교의 단초가 아니겠는가. 발제에서 민 박사는 김춘수의 시와 그 세계를 우리에게 해석해주었다. 그 해석이 없었다면 김춘수의 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김춘수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차원이다.

민 박사께서는 위에서 제시한 논찬자의 궁금증을 굳이 일일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다. 그럴 정도로 논찬자의 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다. 더구나 민 박사의 발제는 본격적인 설교학을 피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설교행위에 대한 일종의 소회(所懷)이기에 논찬자가 정색하고 질문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도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논찬자가 미처 깨우치지 못한 대목만 한두 군데 짚어주시면 고맙겠다.

끝으로, 논찬자가 보기에 민 박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교자보다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시는 것 같다. 아니, 시인과 설교자의 두 정체성을 함께 확보했다고 보는 게 옳으리라. 그는 시인-설교자이다. 말씀의 숨과 결을 오롯이 살려내던 그의 설교가 이제는 시적 감수성과의 변증법적 긴장감을 통하여 한층 풍성한 생명-살림의 설교로 지양(Aufhebung, 들어 올림)되리라 믿는다.

목마른 시대를 위한 설교

오래전 사정이 있어서 몇 달 동안 목회를 쉬고 있을 때다.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예배에 참석했다. 설교를 하던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자리로 옮겨간 것이다. 설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허전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도 물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감격스러운 경험도 종종 주어진다. 그러나 예배 분위기에 신경을 쓰고, 설교를 잘 전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집중력이 흔들릴 때가 많다. 심지어는 신자 중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예배에 참석한 신자 중에 표정이 나쁜 것까지도 신경이 쓰일 때도 있다. 그러니 출가분한 마음으로 예배에만 집중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는가.

몇 달 동안의 경험은 실망으로 끝났다. 대다수의 예배가 산만하게 진행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종교적 여흥을 불러일으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예배였다. 어떤 교회는 주일 공동예배를 드리기 전에 열정적으로 준비 찬송을 불렀다.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았다. 헌금자 명단을 호명하는 교회도 있었다. 필자가 가보지 못한 모든 교회의 예배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없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평생 목사로 살아온 사람이 마치 이교도의 종교 집회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설교는 말할 것도 없다. 설교의 상투성이라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하든지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에 최선을 기울이고, 전도 잘해서 축복받자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었다.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 보였다.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의 신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나님, 성령, 구원, 믿음이라는 단어는 남발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설교의 초점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거나, 십일조를 드려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되었다. 이걸 하나님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예화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었다. 말도 되지 않는 예화의 남발이다. 자신의 설교에 자신이 없으니 “믿습니까?”라든지 “축복합니다.”라는 멘트로 설교 분위기를 억지로 만들어간다. 안타깝지만 몇 달 동안의 경험에서 필자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배와 설교에서 아무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예배와 설교에 큰 은혜를 받는 신자들이 신기해 보였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만 본다면 한국교회는 은혜의 도가니이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평생 예배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에 전념한 필자는 아무런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와 설교에서 그들은 어찌 그렇게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그 원인이다. 필자에게 근본적으로 영적 깊이가 전혀 없든지, 아니면 그들이 거짓 영성에 사로잡혀 있든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이다. 영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걸 이해 바란다. 뽕짝 노래에 예술적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클래식에서 받는 사람이 있듯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영성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르겠다. 이는 곧 무엇

이 영적 요구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다. 이 글의 주제인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목마름의 정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오늘은 목마름의 시대인가? 도대체 무엇을 목마름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젊은 시절에 애인이 없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것이 목마름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터가 그것이다. 지병을 안고 사는 사람은 건강이 목마름이다.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를 그 목마름의 근원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혁명가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간다. 이런 목마름에 나름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목마름이 아니다. 필자가 볼 때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위에서 거론한 목마름은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해도 상대적인 것이다. 30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지만 20평에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위에서 거론한 목마름은 이 세상의 질서가 대답하는 것들이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목표는 세상이 제시한다. 의사들은 건강을 약속하고, 변호사들은 온갖 법정 다툼을 해결해준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티브이 채널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셋째, 더 근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목마름의 대상이나 조건들이 성취했다고 해도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설교 조로 말한 것 같고, 또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

이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참된 영성을 추구할 수 없다. 다음의 사실이 핵심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니 보편 인간의 삶에서 근원적인 목마름은 영적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겉으로 말은 하지만 삶이 담기지 않았기에 그것은 죽은 말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삶(생명)에 대한 피상성과 삶의 심층적 차원인 영에 대한 물이해가 결합되어 있다.

삶에 대한 피상성은 소유 지향적인 삶에 기원한다. 사람들은 소유를 오히려 구체적인 것으로 여긴다. 세상에서의 삶은 늘 그런 식이니 접어두고 그것을 초월하는 종교적 삶만 짚어보자. 종교적 삶에서도 소유 지향성은 강하다. 복음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전형적이다. 그들은 율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금식, 십일조, 기도 같은 모든 종교적 업적이 자랑거리였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업적과 거리가 멀었던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뤘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삶에서 피상적이며, 무엇이 구체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피상성 문제는 영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과 직결된다. 영적인 것만이, 즉 영적인 차원만이 생명의 현실성(reality of life)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성서는 바람과 영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루아흐’를(신약에서는 ‘프뉴마’) 생명의 영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명에는 바로 이 영이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영을 제외하고 어찌 생명을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것에 대한 물이해가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영을 종교적 열광주의로, 다른 한편에서는 일종의 냉소주의로 대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열광주의와 냉소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일치한다. 오직 성령이 지배해야 할 예배와 설교 현장을 보라. 사람과 사람의 업적에 대한 호기심이 극에 달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사람들의 가능성,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신비가 선포되는 설교 현장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카봇) 앞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인 ‘누미노제’를 주제로 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많지 않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성령에 대한 물이해와 오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삶의 피상성과 영의 물이해가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킨 탓에 오늘 설교자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며, 그 목마름을 넘어서는 영적인 길을 찾는 데 혼란을 느낀다.

당신의 주장은 단지 신학적인 교언영색이어서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역동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예배의 열기와 설교의 걱정만 본다면 한국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처럼 보인다. 아마 대개의 설교자가 영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일종의 주문처럼 선포되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 필자가 볼 때 그들이 말하는 영, 영성, 영적인 것, 또는 영혼과 구원은 자폐적이고 독단적이다. 이원론적이고 자의적이다. “예수구원, 불신지옥”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단죄한다. 심지어 사후보상론까지 거론한다. 이런 생각은 인간적 욕망의 산물이지 창조와 종말과 부활과 진리의 영인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더는 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낼 생각은 없다. 이건 단순히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답을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 거기서 만나는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듯하다.

성서의 놀라운 세계로!

다행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 또는 영적인 설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성서가 기준이다. 성서 기자들은 모두 영성의 대가들이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모든 성서 기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들은 언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으며, 그것을 다시 언어로 진술했다. 그 진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을 경험하는 가장 바른 길이다. 이것은 거꾸로 영적이지 못한 설교를 구분해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모스의 말을 들어 보시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목마름의 근원이라는 아모스의 진술을 허투루 듣지 마시라. 예배를 자주 열정적으로 드리고, 매일 큐티를 빠뜨리지 말고 성경공부 모임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라는 말로 들으면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난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씀이 죽는다. 무슨 말인가? 성서의 놀라운 세계가 선포되지 않는다. 앞에서 한번 짚은 대로 늘 그렇고 그런 말만 되풀이될 뿐이다. 청중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공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자들이 성서의 그 ‘놀라운 세계’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서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설교자도 흔하지 않다. 그걸 모를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성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한다. 대중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
시라. 처세술과 교양이 주종을 이룬다. 나쁜 경우에는 웃으면서 시간
을 때우는 설교자들도 많다. 아무리 좋게 봐도 신앙적인 잔소리를 넘
어서지 못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겠다.

여기 삭개오 이야기(눅 19:1-10)를 설교 본문으로 삼았다고 하자.
대개의 설교자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듯이 우리를 찾
아온다거나,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변
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서 삭개오는 분명히 소유
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인 경우에는 네
배를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삭개오의 변화는 중심 주
제가 아니다. 그런 변화는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
는 것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굳이 삭개오에게 초점을
두겠다면 개인의 도덕적인 회심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따라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근본적으로 해
체되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수군거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 기득
권에 안주하던 이들이었다. 설교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즉 해체되고 전복된 세상에 대해서 고유한 영적 시각
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
원하려 함”이라는 사실의 영적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필자는 삭개오 이야기에 대한 성서 주석을 본격적으로 시도
하려는 게 아니었다. 성서텍스트에는 고유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을 암시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세계와 만날 때 설교자를 비롯해서 청
중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공명한다. 기존의 선입관이 허물어

지고 고착된 세계관이 붕괴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다. 성서 텍스트의 고유한 지평과 오늘의 고유한 지평이 융해되어 새롭게 창조적인 지평이 열린다는 뜻이다. 이것이 영적 사유의 변증법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런 해체, 융해, 세움의 변증법이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까지 계속 확장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창조적 설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설교자를 만나면 성서 텍스트는 종말론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드러낸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설교 행위는 선포된 말씀, 선포된 계시가 된다.

설교자의 자기 구원

글머리에서 필자는 다른 교회에 순방하면서 설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곧 창조적인 설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창조적인 설교라고 해서 경천동지할 정도로 새로운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설교자 고유의 영성이 작동되면 모든 설교는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설교가 진부하다는 말은, 그래서 영적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설교자에게 성서 텍스트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내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리라. 이는 마치 바둑 8급 수준의 사람이 이창호나 이세돌과 맞상대하겠다고 나선 모습이다.

성서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설교의 상투성에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설교자들이 그 세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는 없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세계를 매 주일 전해야 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청중들의 영혼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도취하게 만든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일종의 이벤트 경연장이 되었고 말았다. 일 년 열두 달 쉬지 않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모든 것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들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이런 방법론들이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을 몰아내고 있다. 필자는 평신도 교육의 현장에서 칼 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나 게르하르트 에벨링의 <신앙의 본질>, 또는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교재로 삼는 교회를 본 일이 없다. 루터와 칼뱅의 글도 읽지 않는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류가 기독교 독서계를 독점한다. 워렌의 책으로 40일 ‘특새’를 인도하는 실정이나 더 말할 게 무엇이랴. 만약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워렌의 그 책이 과연 기독교 영성을 심화하는지, 아니면 신앙을 도구화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시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임박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오늘의 대학(大學, university)이 ‘큰 배움’이나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근본을 마치 늦바람 난 사람처럼 팽개치고 오직 돈 버는 기술 보급에만 목을 매듯이 오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실제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다. 그렇다. 교회는 더는 구원의 담지자도 아니고, 구원 선포자도 아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른다. 그분이 자리를 비웠다. 하나님의 죽음을 외친 니체의 절규를 들어보라.

너희는 저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는 대낮에 등불을 켜 들고 시장으로 달려가서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돌았나, 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애들처럼 길을 잃었나, 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 숨으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무서워하는가? 고향을 등지고 배를 탔었나? 사고무친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각기 소리치고 웃고 떠들었다. 그 미친 사람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을 뚫어지게 보면 소리쳤다.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다. 나와 너희들, 우리가 모두 그를 죽인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도살한 자들이야. <중략> 하나님을 장례 지내는 요란한 소리밖에 아직 들려오는 것이 없지 않은가? 냄새는 하나님의 썩는 냄새밖에 아직 없지 않은가? 신들도 썩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세상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중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세력적인 것을 우리가 칼로 쓰러뜨린 것이다. 누가 이 피를 우리에게서 씻을 것인가? 우리를 깨끗이 씻을 물은 어떤 것인가? <중략> 그 후에 소문이 떠들었다. 그 미친 사람은 같은 날 여러 교회에 들어가서 죽은 하나님을 위해 진혼곡을 불렀다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 말을 시켰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물었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묘지석과 묘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Die fröhliche Wissenschaft, 1882, 125)

“목마른 시대를 위한 설교”라는 글을 쓰면서 필자는 더 목마르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처음에는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인지를(요 4:14, 7:38)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 삼을 생각이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이제 결론은 없다. 아니 결론을 바꿔야겠다. 목마름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 자신에 있다. 설교자

는 청중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일단 자기 구원에 천착하는 설교로 돌아서야 한다. 성서 텍스트의 원천에서 울려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강단에서 눈 뜬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감리교 월간지 <기독교 세계> 2010년 1월호 게재)

탈식민지적 글쓰기와 설교문제

1. 탈식민지적 글쓰기 문제

인문학에서는 이 식민지성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주체적으로 사유하거나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외국, 소위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의 학문적 방법론에 치우침으로써 얇과 삶이, 즉 지식과 실천이 철저하게 이원화 되어 있다는 데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인문학은 학계나 사회에서 거의 무용지물이나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당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대학사회에서 인문학이 처한 위치를 살짝 들여야 보기만 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개의 대학교에서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의는 별 볼 일 없는 반면에 토익이나 컴퓨터 같은 강의는 만원사레다. 지금도 철학개론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 대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엔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현상을 단지 급변하는 이 시대정신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인문학자들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바로 이 <탈식민지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문외한이기도 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가알부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정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그들의 통찰이 정확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문학적 지식인 집단에 속하는 목사의 설교도 역시 이런 정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문제제기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속을 들여야 보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선생들의 학문적 성과를 지식 자랑하듯, 또는 상품 소개하듯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인문학의 역할을 끝냄으로서 한국의 인문학이 공소한 논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는 지적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적실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소위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게 또 하나의 일방성이나 부분성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더구나 이 세계와 인간은 그 인간이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초월적으로) 어떤 힘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작동하는 힘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인간 이해에서 훨씬 실질적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 노력이 그것 자체로만 끝나지 말고 종교적 차원과 접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철(인문)학과 신학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는 오늘 강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우선 탈식민지성을 주체적인 글쓰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전주의 한일장신대학교 철학과 김영민 선생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자.

다시 정리해두자: 이 글의 중심에 자리잡은 개념, ‘인문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는 정신이며, 삶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의 무늬(人文), 그리고 묘(妙)의 지극함을 존중하려는 태도다. ...중략... 아울러 그것은 도구적 합리성과 기술패권주의의 그늘에서 제대로 피지 못했던 정신의 꽃을 다시 가꾸는 정신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이 땅,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의 정신은 삶의 터와 역사에 충실해서 생각의 자생성과 주체성을 기르고 사대(事大)의 눈치와 추수(追隨)의 허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 현실과 우리 언어의 괴리를 메우려는 용기와 지략이며, 삶과

앎 사이의 소통과 공조를 구체화하려는 말하기와 글쓰기인 것이다. (김영민, 진리.일리.무리, 31.)

위의 인용된 글을 따라 읽다보면 언어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인문정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문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간추려진다. 사람의 무늬와 그 신비함. 앎과 삶.의 연속적인 연관. 올바른 합리주의정신. 자생적, 주체적 사유와 글쓰기. 이것을 다시 줄여보면, 인문정신이란 인간 삶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식민지적 글쓰기는 인간의 삶을 소중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나마 약간의 흔적이라는 것도 여전히 비주체적으로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문정신과 동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인문학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혼신을 기울여 공부한 내용들을 그대로, 또는 적당하게 가공해서 서양과는 전혀 다른 삶의 정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았다. 오늘 한국의 지성인들은 헤겔, 니체, 푸코, 데리다, 하버마스 같은 이들의 사유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강요받는 셈이다. 이들 거장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에서 생각한 것을 우리의 자리에서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인문정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악공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우리의 음악대학에서는 서양음악과 국악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데, 두 음악 세계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무언가의 한계나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즉 성악과 교수들이 하는 일이란 단지 서양음악의 대가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했지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이 못되

었다는 말이다.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리를 통해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보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삶의 경험에서 어떤 소리가 그런 미학적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그 대답이 주어진다. 아직 대답이 없다면 그것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남도창과 이탈리아의 아리아를 적절히 혼합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를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앞에서 인용한 김영민 선생이 외에도, 이 문제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한)혜정 선생이고, 동양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학자는 부산 경성대학교 신학과 김승철 선생이다. 이들의 접근 방식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체적 사유와 책읽기, 글쓰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식민지성> 문제는 우리가 일제하에서 한 세대 이상 피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표면상 피식민지 상황이 끝난 이후로도 그런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이들이 이 사회를 건인해 나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비주체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해도 그렇다. 최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치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정부와 일반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이다. 1,2백년이 지난 다음 우리의 후손들은 미군 주둔문제를 부끄럽게 평가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정치, 사회적인 식민지성 문제는 우리의 삶 전

반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사회학적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집단과 기업집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충실해야 할 인문학자들마저 자신도 모른 사이에 이런 식민지성에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화뇌동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식민지성에 근거한 권위주의와 허위의식에 안주하면서 자기의 학문적 재주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아직은 어두운 시절이지만, 그나마 이런 문제의식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주체적) 글쓰기와 말하기의 장을 열어가는 일단의 인문학자들이 있다는 게 다행한 일이다. 이런 정도의 인문학적 상황을 말머리로 삼아 이제 우리의 문제로 넘어가자.

2. 설교(목회)의 식민지성 문제

요즘은 기독교 신문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지난 8, 90년대에는 미국의 유명한 모모 교회를 탐방할 테니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라는 광고가 신문에 자주 실렸다. 한번 다녀오는데 수백만 원이 들고, 나간 참에 관광과 물건구매를 하느라 더 많은 돈이 드는데도 적지 않는 목사들이 앞다투어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참가했다. 이 비용도 자기 돈이 아니라 대개는 교회의 헌금으로 충당했겠지만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신학대학의 분교형식으로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도 거의 유행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다. 대개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여름과 겨울, 몇 주일씩 현지에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 또는 현지 대형교회를 탐방하는 것으로 과정을 끝내고 대충 논문을 쓰면 학위를 받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런 미국 교회 탐방이나 성지순례,

또는 무슨무슨 분교 따위의 학위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권위 있는 학위과정만 절대적이라는 뜻도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전반적인 행태가 거의 우리의 의식, 무의식에 자리 잡은 식민지적 사유에서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외적인 힘을 가진 나라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의 유형을 식민지성이라고 한다면 한국 목회자의 의식은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문제 안으로 들어와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찬송가 문제가 그것이다. 558장에 이르는 우리의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은, 독일 곡도 약간은 있지만, 거의 18, 19세기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20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독교 역사 1백 년이 훨씬 넘었고 남한의 기독교인 수만 1천만 명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삼백 년 전의 영국과 미국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정서적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셈이다. 그나마 예술적인 품격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준비가 없는 탓으로 자책하면서, 또는 예술의 범세계성이라는 허울을 방패막이로 삼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 곡은 기독교 신앙을 일종의 개인적인 감상주의나 탈역사주의라는 한계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신앙의 병적인(식민지적)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직접 설교문제와 연결해서 이 식민지적 현상을 생각해보자. 지난여름에 서울의 중대형 교회에서 시무하는 친구 목사들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을 언급하면서 그중에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도 포함되었다. 직접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일단 그분

의 설교집을 한 편 읽는 게 그래도 한국 강단을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되어서 두란노에서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설교집을 빌려왔다. 그 내용은 접어놓고 우선 그 전개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다. 옥한흠 목사가 인용하는 예화나 인물들이 거의 외국의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었다. 엘에이, 워싱턴에서 벌어졌던 일들, 외국 철학자들의 말들을 너무나 자주 인용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라는 첫 번째 설교에 쇼펜하우어, 스피노자, 마르셀이 등장한다.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없이 단지 그들의 그럴듯한 경구만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 “성도의 제사장”이라는 세 번째 설교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이야기가 무려 세 군데나 인용되었다. 15편의 설교가 모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이렇다. 내가 언젠가 짧은 시간 들여다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도 역시 미국 예화가 즐비했다. 자신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이런 점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웬 영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모른다. 대학 강단에서도 가능한대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설교 중에 영어를 남발한다는 것은 어딘가 고장 나도 한참이나 고장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설교자들의 설교를 공연히 트집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트집잡는 일이 재미가 있긴 하지만). 단지 많은 젊은 후배 목사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에 내면화되어있는 그런 의식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목회와 설교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암호라는 점에서 한번 짚어본 것뿐이다.

지난 9월25일 저녁에 미국 대사관의 홍보 참사관이 대구 지역 목사 몇몇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 참사관이 하는 말이 미국인들은 남한을 자기들의 고귀한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나라로 본다 말한다. 즉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한 나라가 바로 남한이라는 것이다. 그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의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다는 점도 역시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이들의 평가가 얼마나 사실에 접근해 있는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다만 남한은 미국의 가치를 열심히 따라온,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성취한 나라로 여긴다는 대목이 마음에 걸렸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라는 선생이 잘 키운 수제자라는 말이다. 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도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다. 특히 기독교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런 미국 편향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어떤 분은 그 참사관에게 미국 비자 좀 잘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위에서 설교와 묵회에 드러난 식민지성의 몇 가지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작은 현상에 불과하므로 그 내면에 숨어 있는 문제를 짚어보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그 문제의 핵심은 곧 인간 삶을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위 선진국의 문화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가 공소성(空疎性)에 빠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개의 설교가 일종의 종교적인 잔소리나 여담일 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메타노이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 전환)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설교의 공소성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첫째, 우리의 설교는 가현설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 설교의 가현설적 성격에 대한 문제는 이미 헬무트 틸리케가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에서 명쾌하게 해명해 준 바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에서는 훨씬 노골적이다. 헬라의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 가현설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한다. 영과 육, 선과 악, 빛과 어둠 등등. 이 세상에 이런 대립적인 요소들이 없진 않지만 늘 그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성서와 기독교 2천 년 역사는 이런 부분적인 현상에 휩싸이지 않고 그 모든 근원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설교가 세계, 인간, 역사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한 가운데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옥한흠 목사의 설교 “성도의 제사장직”의 결론 부분을 한번 발췌해보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함부로 땅에 굴리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추종하지 마십시오. 대궐같은 집에 초대받아 가 보면 의외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은 말할 수 없이 황폐한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작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재물을 쌓는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의 제사장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겠습니까?(54).

이 설교는 참으로 좋은 말들로 채워졌지만 너무나 추상적이며, 동시에 이원론적 세계 이해에 머물러 있다. 물론 옥 목사는 앞부분에서 제사장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설명조차도 여전히 가현설적이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예컨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당연한 공자 말씀처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가 예를 들 듯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 결국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되었고, 그래도 영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다운 삶일까? 그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을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죄악시하는 청교도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도 더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죄 이해는 아주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공허하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그리고 이 사회 내에 교묘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를 성서와 기독교의 근본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단지 개인적인, 사회적인 부도덕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약간이라도 생각이 있는 회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설교에서 흡사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인 빌리 그레이함의 설교를 다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설교가 지나치게 값싼 실용성에만 머물러 있다. 설교의 가현설적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화 시켜버렸다면 이 실용주의적 성격은 신앙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도구로 삼음으로써 또 다른 공소성에 빠지고 말았다. 일종의 인간중심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화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설교의 특징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괜찮다고 이름난 설교를 약간만 들여다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다. 금년 10월호 <기독교 사상>의 “내가 추천하는 이 한편의 설교”에 실린 이재철(前 주님의 교회)목사의 설교 “하나님께로부터”에 나오는 결론 부분은 이렇다.

한 가정주부가 쓴 아름다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딸꾹질을 멎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트림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토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변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변을 보게 해주십시오.

시오.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만 먹는데 소화까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손톱을 깎아줍니다. 이 작고 어린 손가락, 다치거나 피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주부는 아이의 트림 속에서, 아이의 팔꼭질 속에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을 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뵈고 느끼며 사는 이분의 매일이 새날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107)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도구화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설교를 신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미 이 목사는 이 설교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시간은 인생이고 인생은 곧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의 객체가 되느냐 아니면 주체가 되느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1994년을 정녕 새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변함없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다가오는 새해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 흐름의 주체가 된 1994년은 또다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1994년 속으로 뛰어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흐름의 주체가 된 나는 객체인 시간을 새 시간, 새해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100)

이 얼마나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인 생각인가? 이 목사는 서양 근대주의의 ‘주객도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인 시간마저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만만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고 부추겨주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착각한다. 인간이 시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진작 어떤 의도를 포기하고 ‘솔라 그라티아’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설교자는 우리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소위 ‘아이 켄 두 잇’ 이념을 기독교 신앙으로 변호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의식 속에는 인간중심주의, 업적주의, 자기만족주의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설교는 비록 종교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하지만 인간이 성취해야할 도덕성, 사회봉사,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세속적이다. 신앙마저도 자기 능력으로 여기고 있으니 약간 세련되었다는 교회의 설교도 역시 초등학교 교장의 훈계나 아니면 대학 선생의 주부 교양강좌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근대주의가 이성을 도구적으로 여겼듯이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앙을 통해 이 세상에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서로 대립적인 이 두 요소가, 즉 이원론적인 가현설과 도구적 실용주의가 한국교회의 설교에서는 교묘하게 착종되어 있다. 열광주의적 소종파처럼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어떤 피안적 구원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훨씬 이 세속의 차안적 구원에 매몰되어 있다. 영적인 면에서는 관념적이고 실제 삶에서는 세속적이라는 말이 된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물질이나 사회적 입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사회봉사와 도덕성의 강조라 하더라도 결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요소가 식민지적 사유의 근거에서 배태되었다고 보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강한 세력의 구도에 치우침으로써 이런 가현설적 설교와 실용주의적 설교로 흘러들었다는 데에 있다. 만약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삶, 영생을 거들먹 거리거나 이 세상의 죄와 짝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근히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영합하도록 설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식민지적 설교(신앙)의 역사적 토양

황석영 씨가 작년에 펴낸 장편 소설 『손님』은 6.25 당시 북한 어느(황해도?) 마을의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들처럼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황석영의 눈에는 이 두 집단이 모두 손님이었다. 그는 이들 손님 때문에 주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역사적 비극을 현실과 초현실의 교차방식을 통해서 찬찬히 그려냈다. 황석영이 말하려는 바는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또는 공산주의를 긍정,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양측 모두 우리에게 손님일 뿐인데도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주인이 주체적이어야만 손님들도 손님으로서의 주제 파악이 되고 주인과 손님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대사에서는 이런 자리매김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셈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행태와 설교 안에 이런 비주체적 식민지성이 뿌리박게 된 역사적 실마리를 몇 대목만 간추려보자.

1) 근본주의 선교사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한 선교사들이 대개 미국의 근본주의 노선에 속한 이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태생적 한계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선교사는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문화를 이식하기 때문에 이들 근본주의 경향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문화의 못자리가 되었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당시 선교사들은 열강의 식민지배를 종교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17,18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에서 식민지를 개척해나갈 때 로마 교황의 이름도 한몫 단단히 한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기독교의 선교만 보장된다면 그 피식민지 문화가 파괴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오히려 선교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이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개는 미개한 나라를 미국식으로 계몽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 덕분에 서양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생긴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마저 거의 사대주의적 식민지성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계몽이 다른 한편으로는 미몽의 덫으로 작용한 셈이다.

2) 미국 유학파

그런데 이들 미국 선교의 근본주의적 성격은 그들이 활동하던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우리의 1, 2세대 유학파 신학자와 목사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고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서 공부한 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신학교와 교회에서 부지불식간에 미국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식시켰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미국 유학을 다녀온 몇몇 교수들에게서 신학을 배운 기억이 있다. 정 아무개 교수는 성품이 원만한 분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만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형편없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필기했던 내용을 적당하게 번역해서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받아적게 했다. 우리는 그가 불러주는 조직신학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베껴 쓸 뿐이었다. 또 다른 조 아무개 교수는 박사학위를 획득했기 때문인지 우리에게 받아 적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천편일률이었다. 1970년대에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18,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개인주의적이고 탈역사적인 신학을 아무런 해석학적 작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할 뿐이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세계, 하나님을 폭넓게 배운 게 아니라 형해화한 교리의 체계만, 그것도 매우 개인주의적인 교리만 배우고 말았다.

이미 70년대부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물결을 일으켰던 CCC의 <사영리>나 <순모임>, 그 뒤로도 이런저런 성서연구 단체의 <제자훈련>과 <큐티> 방식들이 오늘도 한국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 교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단순히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성격의 특징이 근본주의의 속성이라 할 성서 문자주의와 탈역사적 경건주의 및 성숙이원론적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거의 십자군의 특성을 드러내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한국이라는 사회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게토화되고 있다.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조직 안에서만 인정

될 뿐이지 교회 밖에서는 그 어떤 구원론적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는 다시 신앙을 주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3) 교회 외적 요소- 7,80년대 군사독재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은 7, 80년대의 군사독재 시대가 한국의 기독교로 하여금 위에서 언급한 식민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 당시 이 사회가 안고 있던 그 숭한 문제들을, 즉 민주화, 경제정의, 생태문제, 남북분단체제, 미군문제를 설교의 중심 주제로 삼게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사찰을 받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교인들의 냉담한 반응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는 당연히 우리 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또는 교회는 세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설교하는 게 편했다. 이렇듯 편한 설교에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던 미국의 사고방식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말이지만 드러내놓고 친일, 부일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곧 식민지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도 소위 박정희 개발독재론이 통하는 걸 보면 식민지성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종종 애굽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 들었듯이 말이다.

4) 신학의 부재

아무리 우리의 뿌리가 미국의 부흥운동이나 복음운동의 근본주의 선교사들에게 있다거나, 7, 80년대라는 독재시대를 거쳐 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학이 바르게 정립되기만 했더라면 그런 속명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국교회에는 신학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도된 흐름을 바로잡지 못했다.

특히 설교(목회)는 기독교의 근본을 해명해주는 신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교회 발전이라는 단 한 가지의 목표로 집중되었다. 회사 기업가가 그 어떤 수단 가리지 않고 기업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것처럼 교회의 설교가 이런 상품논리에 젖어들었다. 이렇게 신학적 반성 없는 설교는 당연히 미국이 표방하는 힘의 논리에 영합할 수밖에 없었다.

4. 탈식민지적 설교

-주체적으로 설교하기-

주체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일체의 서양 사상이나 신학을 배제하고 순전히 우리의 전통에서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아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그런 순수한 것은 없으며, 그런 순수만 참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는 배타적이거나 독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이며 진리론적이며, 보편적인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인 (한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보자는 것도 아니다. 이미 우리 설교자는 남도창이 아니라 리트나 아리아를 배운 성악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사상에 더욱 익숙하며, 그런 방식에

서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체적인 설교는 성서와 기독교 2천 년 역사가 말하는 그 근본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1) 성서의 고유한 세계 바르게 알기

우선 하나의 예를 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여기 이창호와 조훈현이 둔 기보(棋譜)가 있다고 하자. 이 기보에는 가로 세로 19줄이 그려진 바둑판에 1번부터 일련의 번호가 매겨진 흑백의 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바둑을 전혀 돌줄 모르는 사람이 이 기보를 대한다면 아무 내용이 없는 어수선한 그림만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둑의 길이 대충 보이며, 이창호에 버금가는 실력자라면 온갖 묘한 길들이 훤히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보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다. 일종의 기보와 비슷한 성서에서 길(道)인 하나님을 읽으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깊이가 있어야만 한다. 바둑 9급짜리에게 이창호의 바둑이 보이지 않듯이 성서의 세계가 그냥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바둑을 잘 모르거나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이창호의 바둑을 해설하라고 한다면 바둑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스케치하듯 설명하고 말 듯이, 우리 설교자들도 대개는 성서의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못하고 단지 주변적인 문제만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만다. 성서 세계의 정곡을 찌르지 (않) 못하고 변죽만 울린다.

다시 옥한흠 목사의 설교를 예를 들어보자. 그는 그 설교집의 표제로 삼은 설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행26:19-29)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을 가져야 할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되다. 둘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셋

째, 그리스도인은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다가 자신의 경험담이나 예화집에서 베껴 온 내용을 적당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아주 상투적인 설교를 그는 자기 설교집의 표제로 삼고 있는데, 이런 설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서의 고유한 세계(계시)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주변적 상황에 대한 교훈이며 해설일 뿐이다. 이것은 일종의 인간적 처세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아니다. 흡사 바둑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기보를 해설하면서 이창호의 깊은 수읽기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저 “기발한 수군요”, “침착한 수군요”만 목청 높여 외치는 것과 같다. 영생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설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아! 구원 자체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으라고 떠드는 설교가 얼마나 흔한가. 바둑의 정석과 변형과 기사 나름의 독특한 길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해설은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늘어놓아도 바른 해설이 아닌 것처럼 성서의 세계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설교는 아무리 뛰어난 수사학을 발휘한다고 해도 결국 교연영색에 불과할 뿐이다.

성서의 세계가 아무에게나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닌 이유는 기보에 바둑의 길이 숨어있듯이 성서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은폐의 하나님”(Deus absconditus)이라고 한다. 물론 하나님과 그 생명이 늘 은폐되어 있기만 할 뿐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는 동시에 “계시의 하나님”(Deus revelatus)이다. 은폐와 계시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계시가 은폐의 형식이기도 하고, 은폐가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에서 하나님의 은폐를 보고, 그 은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도 한다. 예컨대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은폐의 형식

을 된다. 역사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확연하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은폐의 방식으로 인식된다는 말이다. 만약 확연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그의 메시아성이 은폐의 방식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행이 끝나지 않았으며 평화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예수의 메시아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이들의 문제 제기 앞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대답은 예수의 메시아성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내다버렸다. 그것을 본 미켈란젤로가 “왜 버리시는가?”하고 물었다. 그 주인은 “이건 쓰고 남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눈에는 그 대리석 안에 피에타 상이 보이는군요.” 진리가 우리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이 대리석 이야기가 말하고 있듯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가 숨어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리학적 사실도 약간만 우리에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것은 숨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물리적 현상만 하더라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는 흠

사 인간의 무의식 세계가 의식보다 훨씬 심층적인 것처럼 부분적인 것만 물리적 현상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다르고 새로운 물리이론들이 드러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이창호의 바둑에 숨어 있는 수가 무궁무진하듯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인식론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성서의 세계와 하나님을 결국 완전하게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설교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비록 바르트의 표현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다”는 불가능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부단히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영의 활동에 민감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말할 거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내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주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구도자적 자세를 갖출 때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세계, 인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제야 주체적으로 구원을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시대적 사조에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힘의 논리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그들의 나팔수 노릇만 하게 될 것이다.

2) 인간 바르게 알기

인간 구원을 선포해야 할 우리 설교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성서의

고유한 세계를 인식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인간이해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간은 종(種)으로서의 보편적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역사경험을 통한 민족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인간을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구원을 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 예컨대 19세기 미국 사람들의 부흥운동이나 18세기 유럽의 대각성운동을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한민족에게 우격다짐으로 적용하면 그 적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특하면 탕자의 비유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식을 자극한다. 그것도 청교도적인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강조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런 설교는 인간학적 타당성을 상실한다. 물론 이런 현대인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비록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교해도 좋겠지만 죄의식에 근거를 둔 설교가 18,19세기 유럽과 미국의 감수성에 의존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성서적이거나 기독교 전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한다면 이 세상의 건강한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즉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미숙한 이들만 교회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교육원 3학년 과목인 <조직신학2> 수업시간에 어떤 학생이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이야기했다. 장애인 여자와의 지고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목사사에 대한 한 대목이 나온다. 남자 청년이 장애 여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 남자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구치소에 찾아와서 이렇게 기

도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이 한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범죄하였나이다.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화를 본 신학생은 극장을 나오면서 인간의 심층적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죄를 재단하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세상에 투영된 목사의 모습이 바로 그게 아닐까?

우리가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인문학에 대한 공부에 있다. 인문학의 주류인 문학, 역사, 철학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고고학, 언어학, 더 나아가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이 남긴 흔적들을 추적해봄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약간씩이나마 손에 잡힌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으며, 얼마나 숙명적이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 실질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설교가 극단적인 추상성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의 책임기는 심층적이면서도 광범위해야 한다. 신학책만이 아니라 주변의 인문, 사회, 과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책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 이해가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 최소한 <창작과 비평> 같은 잡지를 꼼꼼히 읽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은 풍부해질 것이다.

앞서 말한 성서의 세계를 바르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인간 공부를 위해서는 철학이 그 역할을 한다. 오늘 설교자들이 조직신학이나 철학은 외면하고 상담학이나 설교학 기술만을 습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설교의 위기이다.

이렇게 성서의 세계와 인간에 관한 공부가 튼실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정서에 편향된 설교를 하지 않게 된다. 즉 우리 한민

족이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체적으로 반성하고 적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탈식민적 설교의 길이다. 여기서 그런 탈식민지적 설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라고 한다면 말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이미 주어진 모범 답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한민족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성서와 기독교 2천 년 전통이 말하는 생명과 구원, 하나님 나라와 그의 계시를 주체적으로 반성할 때만 우리는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5. 마무리

- 성구명상-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8:38)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조상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직접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조상에게서 전해 들었을 뿐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8:28).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풍습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았지만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그가 가르친 것을 말한다. 이 양자의 입장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직접 와서 그 풍경을 보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경우는 같을 수가 없

다. 그들이 서울에 대해서 말할 때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리고 내용도 비슷할 수 있지만 직접 본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들어 있다. (바리새인 처럼) 전해들은 사람은 들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반면에 (예수처럼) 직접 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결국 전자는 돌팔이 약장수처럼 같은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포장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만, 후자는 그런 노력 없이 그저 자신이 본 것을 단순하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전자는 주어진 정보에 매달려서 있기만 할뿐이지만, 후자는 자유롭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0). 하나님을 보고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로워지며, 그때가 되어야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삶의 태도 사이에 놓인 틈은 너무나 심각하므로 일반적으로 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교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는 누구냐?”(요8:25).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전해들은 것 이외의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예수는 아무리 타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모든 시대는 이렇듯 자신들과 다른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예언자들을 보기 싫어했다. 이는 곧 동굴 밖의 세계를 본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동굴 속의 자기 동료들에게 밖의 새로운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같다.

여기서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우선 예수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들은풍월만 읊조리고 만다면 설교자로서의 기본

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재미있는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지 못한 사람의 설교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졌어도 참은 아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권위와 인간적 정직성과 학문성으로 아무리 무장했어도 진리를 말하는 게 못된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유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육화되는 계기를 불교에서는 돈오(頓悟)라고 하며, 창에서는 득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는 것”에 비견된다. 소로우가 『월든』에서 우리 주변에 철학적 정보를 전달해주는 철학 선생은 많은데 철학을 삶으로 실천하는 철학자는 없다고 말했듯이 진리를 전해 듣고 전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세계를 보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성서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종월로 전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세계를 보고 그대로 사는 설교자와 신학자는 별로 없다.

(2002년 10월, 제1회 설교공부 모임, 발제)

듣기 싫은 설교, 듣고 싶은 설교

낯선 느낌

조금은 선정적으로 들리는 “듣기 싫은 설교, 듣고 싶은 설교”라는 제목은 단지 설교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제목은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 또는 “참석하고 싶지 않은 예배”로 바뀌도 괜찮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 나가고 싶지 않는 교회는 무엇일까? 목사요 설교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자학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입장에서라도 필자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하는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찾으려면 일단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3년 초에 6개월 가까이 교회를 맡지 않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나와 아내는 주일 아침에 발길 닿는 대로 여러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 내가 살고 있는 하양은 길이 사통팔달로 뚫려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에 좋았다. 동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영천, 경주, 포항으로 갈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신령, 군위, 안동을, 서쪽으로는 대구를 갈 수 있었다. 남쪽으로는 청도, 밀양이다. 일단 집을 나서서 운전하고 가다가 11시 가까운 시간이 되면 눈에 띄이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근처에서 밥을 먹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돌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보기에 따라서 낭만적이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했던 그 기간에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교회 행태, 예배, 그리고 설교가 내게 매우 낯설게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던 사람이 이제 청중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낯설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처음 보는 얼굴, 약간씩 다른 예배 순서와 분위기가 손님으로 찾아간 나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낯섦, 또는 이질감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영성의 문제였다.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듣는 설교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동질성을 맞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개신교 목사가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미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근본인데, 그걸 느낄 수 없었다는 건 큰 불행이다.

내가 찾아갔던 교회에서 경험한 예배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격양되어 있었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사람들끼리의 관심과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종교적 업적에 대한 호기심에 도취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교회가 꽤 괜찮다는 사실을 자신들끼리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가득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적 욕망과 자기 확신이 압도하는 예배였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흔적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질감은 성질 까다로운 나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닐는지.

특히 설교를 듣고 난 다음의 내 기분은 영성이 고양되는 게 아니

라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았다. 말씀과 삶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감동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설교자의 인격이 담긴 설교를 듣기도 쉽지 않았다. 대개의 설교는 늘 듣던 이야기,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한 소리에 불과했다. 상투성과 진부성에 떨어진 설교를 듣고 내 영성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대단한 설교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성서 말씀을 차분하게 풀어주기만 해도 계시의 존재론적 능력인 말씀이 내 영혼을 공명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서 텍스트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에 도취하고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태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열린예배

내가 찾아간 교회 중에서는 주일공동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제법 많았다. 내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다니던 교회도 예배 시작 전에 30분가량 준비찬송을 불렀다. 공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여러 곡의 찬송을, 그것도 주로 부흥회에 사용되는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른 덕분에 많은 찬송가를 배울 수 있었지만, 조금 지루했다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라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할 말은 없지만 자칫하면 예배가 사람의 심리작용에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 예배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옛날이야 그렇다 치고, 오늘날에도 준비찬송을 부르는 방식으로 예배를, 특히 주일공동예배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다.

어쨌든지 이런 예배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위 “열린예배”가 바로 그것이

다. 그런 예배에서 불리는 찬송은 감수성을 자극하는 복음찬송이 주를 이루며, 율동을 곁들이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워십 댄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로 청중들의 감각을 고조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빠르고 가볍다. 이런 트렌드의 예배를 주도하는 교회는 “경배와 찬양”으로 특화된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교회이다. 필자는 온누리교회의 예배참관기를 몇 년 전 <기독교 사상>에 “열린예배, 닫힌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적이 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다시 정리하겠다.

온누리교회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었다. 최소 20분 이상 감동적이고 뜨거운 찬양으로 채워졌다. 콘서트 장처럼 회중석과 마주하며 서있는 성가대원들의 배치가 특징적이었다. 그 혼한 가운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차려입었다는 것도 파격적이었고, 찬양의 기쁨이 얼굴 표정과 몸의 율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청중들을 기분 좋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 찬양을 끌어가는 목사의 상투적인 멘트만 없었다면 훨씬 은혜롭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다. 찬양 담당 목사는 찬양의 중간에 끼어들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외쳐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옆에서 “맛있죠?”라고 묻는 것처럼 찬양의 맛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거나 무의미한 발언들이었다.

온누리 교회가 자랑하는, 그 이후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한 “경배와 찬양”은 그들만의 특별한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뭐라 할 말은 별로 없다. 거의 찬양과 아멘, 할렐루야 같은 환호성으로 진행되는 흑인들의 열광적인 예배가 그들만의 독특한 기질에서 나왔듯이 온누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나로서는 “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구나!”라고 지나칠 뿐이다. 다만 이런 방식의 예배가 빠지기 쉬운, 어쨌면 이미 빠져버린 함정을 내 나름으로 간단하게 짚어야겠다.

휴사 열린 음악회 같은 세련미와 감동을 확보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 예배의 찬양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그들이 사람의 종교적인 심리를 연출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찬양이 형식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옛날 경험했던 부흥회의 준비찬송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당시의 찬송 시간에는 북도 등장했으며, 인도자가 손바닥으로 강대상을 두드리든지, 또는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청중을 끌어갔다. 일단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대개 최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탓인지 사이비 소종파 집단에서도 그런 방식을 자주 이용한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박태선 전도관 모임이나 몇 년 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영생교 모임에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한 두 시간씩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런 광기에 휩쓸리면 교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먹히게 되어있다.

이런 종교적인 현상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비싼 값으로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들의 행태와 닮아 있다. 그들은 일단 할머니들을 온갖 방법으로 즐겁게 만든다. 함께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는 업어주는 등, 할머니들의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에 약을 판다. 이미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력이 제거된 할머니들은 아무리 비싼 값이라고 하더라도 심중팔구 그 약을 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곧 감성이 이성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감성이 극대화하면 인간의 이성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통 교회의 리터지(예전)도 결국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라는 점에서 인간의 종교적 감정은 어떤 경우에도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리터지와 온누리 교회에서 꾸려 가는 그런 찬양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기독교 예배의 리터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심리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고 훨씬 심층적 영성을 깨우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온누리 교회의 예배는 그것과는 반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원래 정통 기독교 예배의 시작은 준비 찬송이 없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교회의 예배는 바흐 같은 작곡가의 종교 음악을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의 전주로 시작된다. 이는 곧 가능한대로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장 깊은 영성으로 침잠하려는 태도이다. 그런데 온누리 교회의 찬양은 사람들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온갖 모양과 꾸밈이 극대화되어 있었다. 흡사 인기 가수의 흥겨운 노래에 따라서 청중들이 두 손을 흔들며 열광하는 라이브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열린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데 모든 게 집중된 그런 예배는 나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당신은 교회 예배가 엄숙주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열린예배를 통해서 청중들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라도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거 아니냐? 오해는 마시라. 그리스도교 예배가 형식적인 엄숙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극단적인 본질주의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 인간 중심적 예배로 흐를 위험성을 지적한 것뿐이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종교

적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교 예배와는 어긋난다.

사람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비교하면서 설명하겠다. 사람 중심의 예배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작용에 근거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통치 행위를 중심에 놓는다. 전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형식의 차원에서 강화한다면, 후자는 내용의 차원에서 심화한다. 전자의 경우에 예배가 이벤트 중심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리터지 중심이다. 전자의 설교는 규범적이고 적용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해석학적이고 말씀 중심적이다. 그렇다. 사람은 가능한대로 자취를 감추고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그런 신비로 가득 채워진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이 전면으로 배치되는 열린예배는 낯설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르바 던(Marva J. Dawn)의 <고귀한 시간 낭비>(이레서원, 2004)를 참고하기 바란다.

교회행사의 과부하

내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이질감은 교회의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이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행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래전 어떤 선배 목사는 나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정 목사, 목회는 신자들을 뽐뽐이 돌리듯 해야 잘 하는 거요. 신자들이 편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 년 열두 달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야 돼.” 그 선배 목사의

지론이 옳은지 아닌지는 접어두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주일공동예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회가 상당히 많다. 그런 예배와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신자들이 시간적으로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런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회만이 아니라 교회 내외의 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그리고 각종 독립기관들이 행사도 줄을 잇는다. 교회의 모임이 많을수록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신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사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거의 형식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폐쇄적인 집단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도시 중산층교회가 크게 비중을 두는 사업은 해외선교와 복지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의 숫자가 미국 다음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해외 선교의 열정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정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러시아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교회 중에서 미자립교회가 거의 30%에 가까운 마당에 해외선교사의 대량 파송이라니, 이걸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대도시 대형교회들은 앞 다투어 복지관을 세웠으며, 지금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교회의 근거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지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한 성찰을 거친 후에 이런 일에 뛰어든 것일까?

복지문제는 오늘 중대형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참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마디 보충해야겠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품위를 손상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교

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회가 가까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소홀한 채 이런 잠정적인 사업에 모든 힘을 소진한다는 것은 더구나 그것이 교회확장의 수단이나 프로그램으로 수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뒤가 크게 바뀐 형국이다. 아래와 같은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오늘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예언자적 외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회의 특별히 사회적인 활동(복지시설, 보육원, 간호시설, 병원, 학교 등등)은 부차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교회는 정치 공동체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불과하다. 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정치적 기구에 속하는 것이 타당한 이런 책임들을 국가가 인수하도록 준비시키고 또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정치단체를 고무하여 그 책임을 인수하게 하는 데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회적 공헌은 삶의 궁극적인 신비, 즉 영원한 하나님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인간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인간적 삶의 인격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신학과 하나님 나라, 대한기독교서회, 127 쪽)

교회 행사가 본질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떨어져 나왔다는 증거를 나는 요즘 시국에 관한 한국교회의 태도에서 발견한다. 주로 한기총에 속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정치적 성격이 짙은 집회에 신자들을 대거 동원하는 일이 그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특하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했다. 주로 반핵, 반북, 반김정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사학법 재개정 등이 주요 의제였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순교의 자세로 삭발까지 마다하지 않는 실정

이다. 정말 오지랖이 넓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형 집회에 나서서 열변을 토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선동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열정이 어디에 연유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행사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순전히 교회 내의 종교행사로부터 시작해서, 노회와 총회 차원의 행사에 이르기 까지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구호를 몸으로 때워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오늘 행사 과부하에 걸려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과부하는 영적 조급증과 피로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교회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 낯설고, 이질적이다.

짜증나는 설교

위에서 필자는 교회에서 받는 이질감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열린예배의 영적 경박성이며, 다른 하나는 행사 과부하로 인한 영적 피로증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의 원인이 나온다. 그것은 설교 문제이다. 오늘의 목사는 설교 이외의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목사는 교회 행사를 행정 원리에 근거해서 원활하게 꾸릴 수 있는 행정가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신자들의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상담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설교에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목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설교에 마음을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별로 없으며, 마음을 두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에서

도 역시 그렇다. 다른 일에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된 영혼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영적인 촉수(觸鬚)를 예민하게 작동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설교가 어찌 청중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나아가서 시나브로 설교를 듣고 싶지 않게 만들 뿐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걸 용서하시라. 많은 설교들이 시트콤, 신파조 멜로드라마, 또는 피라미드 사업설명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설명회, 조금 더 나아가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주례사, 또는 유학이나 이민, 진학설명회나 신입사원 강연 비슷한 열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오늘의 설교에서 일종의 종교적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그래서 방법론만 개발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실질(reality)은 관심을 끌지 못하며, 그 사건과의 심층적 만남을 통해서 확보되는 영성의 심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매일 오후 6-8시 KBS FM 라디오에서 탤런트 김미숙 씨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프로그램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는가.

오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실질이 담론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임박했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성서 텍스트와 오늘의 세계 현실에 근거해서 설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설교는 설교자의 입담이 좋아서 대중들을 쥐락펴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을 심층적으로 자극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건 선동이지 설교가 아니다. 여기서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은 그만두자. 교회성장지상주의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듯이 은혜만능주의도 역시 그렇다. 청중들의 은혜가 설교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미 오래 전에 독일교회의 강단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종교개혁의 완성인가, 재(再)가톨릭화인가?”라는 글에서 그는 예배의 중심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전락하고 있는 설교의 문제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물러 나와서 의식(儀式)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가 마치 수다처럼 되는 대로 지껄이는 것 같고, 또 틀에 박힌 상투어들이 자동기계장치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위임된 말씀의 선포하는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충성스럽고 경건하게 그것을 견디고 있는 분들, 아무쪼록 나의 폭언을 용서하기 바란다. 설교자들 중에는 “거룩한 남은 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말씀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더 이상 말씀을 대담하게 추구하지 않고 있어서 목적 있는 행위나 성례전 안에서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례전이나 의식적인 형식의 세계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신앙적이고 좋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말씀이 의식 속에 살아있지 않는 한, 그 음색은 단순히 음악에 불과할 뿐이다. 아마도 들리는 소리는 후퇴나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149)

틸리케는 독일교회에서 설교가 수다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상투적인 종교 언어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설교를 마치 일간지의 편집기자마

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멸하여 마땅한 잡문으로 만드는 것이다.”(150) 독일교회의 경우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행사와 성례화이다. 목사들은 말씀소명을 진지하게 짊어지지 않고, 교회행사와 의식으로 도피하고 만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과 일치하고 있다. 틸리케가 말하는 성례화는 일종의 불거리에 치중한 열린예배와 다르지 않다. “경배와 찬양” 유의 예배, 최첨단 시청각 기기를 통한 예배는 설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도피로와 같으며, 교회 행사의 과부하는 두 말할 것도 없다.

목사가 설교의 짐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 중심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틸리케의 충고는 단순히 능력을 개발하라거나 권위를 확보하라는 말이 아니다. 참된 설교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하고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의 진술을 다시 들어보자.

나는 지금 단순히 ‘설교의 용기’를 복돋으려고 애쓰는 그런 평범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부도수표를 강단에서 남발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설교에 대한 그릇된 낙심이 올바르고 적절한 낙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낙심이 인간적인 슬픔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슬픔으로 변혁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슬픔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압도적인 능력을 진정 두려워할 때이다. 그러면서도 그 약속의 강력한 능력 아래에서 우리의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때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또한 전달자로서의 소명 앞에 바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어떻게 우리의 입술

이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156)

나는 톨리케의 진단과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수다, 부도수표 남발, 상투성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강단을 향해서 영혼의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겉으로는 아멘을 연발하며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목사에게 보이려는, 또는 목사를 동정하는 포즈일 뿐이지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다.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인내심이 많거나 체면이나 명예심이 특히 강하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것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아떨어졌는지 모른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목사와 신자들이 없다는 말이나, 왜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는가, 하고 묻지는 마시라. 필자도 물론 “거룩한 남은 자”라는 톨리케의 표현처럼 영성의 깊이에서 설교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목사의 설교가 죽을 썬도 성령은 그의 고유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설교를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설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는 70-80%가 증가한 반면에 개신교는 정체되거나 또는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설교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신학적으로 설교의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일에 구도 정진해야 하는 게 아닐는지.

어려운 설교, 쉬운 설교

당신의 설교는 어떤데 남의 설교를 짜증난다고 혹평하는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사상>에 “설교비평”을 연재하고 있는 필자는 고급스러운 명설교자도 아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낼 줄 아는 대중설교자는 더더욱 아니다. 설교 내용도 내세울만하지 못하고, 말에서는 달변이 아니라 늘변에 속한다. 이견 겸양도 아니고 엄살도 아니며, 실제 상황이다. 지금도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크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식은땀이 날 때가 있을 정도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심지어 그런 일들이 꿈에 나타날 때도 있다. 강단에 올라섰는데 마땅히 내 앞에 있어야 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꿈을 꾀다. 그 꿈의 진행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강단에서 찢찢매다가 꿈을 깨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두려움을 감춘 채 대충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경우이다.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설교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는지.

필자가 보기에 내 설교를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은 것 같다. 그 말이 그 말인지는 모르겠다. 내 설교 시간이 졸립다는 내 딸들의 평가도 역시 이와 비슷한 뜻일 것이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설교, 청중을 졸리게 하는 설교, 어려운 설교, 이런 것이 내 설교의 특징이다. 내심으로는 내 설교가 왜 어렵다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런 평가를 나 몰라라 팽개칠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는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는 설교,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청중들은 왜 반대로 받아들일까? 이게 바로 설교자인 필자가 처한 딜레마이다.

아무래도 내 설교에 한 마디 변명을 하고 지나가야겠다. 나는 성서 텍스트와 청중 사이에 가교를 놓아야 할 설교자의 역할에서 성서 텍스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청중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거나 그들을 종교적으로 계몽하는 것보다는 성서텍스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내 설교에서 청중들은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청중 중심의 설교를 주창하는 오늘의 설교학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청중들이 내 설교를 어렵다고, 정확하게는 따분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청중들은 일반적으로 어렵거나 따분한 설교를 싫어한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포위당하고 있는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의미와 영성의 깊이에 귀를 기울이기는 힘들다. 노동, 자식교육, 아파트, 주식, 병원, 의식주 문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미움과 배신, 분노 등등, 이런 현실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즉각적이며, 매우 치열하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 간밤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자식들이 말썽을 피워 걱정하고, 또는 기업이 부도 직전에 몰렸거나 실연당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들, 또는 그 반대의 남자들, 경쟁 기업체와의 싸움에 지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골치 아픈 일로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와서도 또 심각해져야 한다는 건 청중의 입장에서 고문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쉬운 설교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설교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간단히 잊을 수 있는 “쉬운 설교”를, 또는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설교 말이다.

한국의 대중 설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청중들의 요구에 딱 떨어지는 설교를 할 줄 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전달 방식에서도 역시 그렇다. 삼박자 축복이라거나 청부론 같은 용어로 포장된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잘 팔린다. 이런 설교는 불치병이 기도로 치료될 수 있다거나, 부도 일보 직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기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고지를 선점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민중들의 가장 큰 관심인 재산과 건강 문제에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대담을 제시할 수 있는 설교는 그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믿거나 말거나) 75만 명의 교인수를 헤아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가 외치는 복음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딱 맞는 셈이다.

필자처럼 청중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태도는 바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의 눈높이에만 맞추어 쉬운 설교에 치우치는 것도 늘 옳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청중들의 구체적인 삶을 간과한 채 자신의 영적 경지만을 독백처럼 내세운 설교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청중들의 영적인 성장과 별로 상관없이 당장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전하는 설교를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건 아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교회 성장론에 종속된 쉬운 설교, 들리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에만 치우치는 건 아닐는지. 다음과 같은 리츨의 쓴소리는 우리 마음에 담아둘만 하다.

사람들은 당시에는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법이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우리의 생애를 철저하

게 바꾼 설교는 대개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소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었다. 설교자는 이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도 되며 그가 설교에서 말한 것을 모든 청중이 당장 이해해야 한다는 목표를 신경질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해되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교가 자칫 참된 생명의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생활의 위험한 경향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 설교에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한정된 말로 너무 단순하게, 청중이 옛날부터 들어온 것을 너무 많이 반복하여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설교에 있다. 이해되지 않는 것보다는 오해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디트리히 리츨, 손규태 역, 설교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년, 204, 205. 부분적으로 흐름에 맞도록 고쳐 적었다. 필자주.).

노파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히겠다. 필자는 민중들의 세속적, 또는 이기적인 관심을 무조건 불온시하는 건 아니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현장을 간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세속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는 삶이 바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이 땅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정(에로스)이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늘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경우에 인간과 사회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자는 단순히 대중추수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과 세계를 살리는 설교에 몰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론적 설교>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 자신이 그런 구원론적 지평을 분명하게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청중들로 하여금 구원의 현실에 직면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오늘의 설교자들이 어디에 설교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 그 답은 곧 하나님의 행위, 그의 계시,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이다. 구원론적 설교는 하나님의 사건에 중심을 놓은 설교라 할 수 있다.

구원론적 설교

구원론적인 설교라는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설교가 개인, 사회, 국가, 지구, 우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즉 “건져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 또는 공동체를 폐쇄적인 독단성에 갇히게 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세상을 향한 적개심에 불타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죽이는 설교 아니겠는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필자는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다.

구원은 모든 생명의 완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한 두 마디로 끊어서 규정할 수는 없다. 가장 단순한 정의를 내린다면, 구원론적 설교는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설교라는 뜻이다. 도대체 살린다는 게 무엇인가, 또는 “산다,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 삶, 또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구원론적인 설교와 연관되는 것들인데, 결국 구원론적인 설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직결된다. 그런데 성서와 신학에서 생명은 영의 문제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현상은 영의 활동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점에서 생명 지향적 설교는 곧 영적인 설교이며, 거꾸로 영적인 설교는 곧 생명 지향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우리는 구원, 생명, 영의 관계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는 생명을 지향하는 설교이고, 생명 지향적 설교는 곧 영적인 설교이다. 이것은 다시 거꾸로도 그대로 통하는 논리이다. 따라서 영, 또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설명된다면 당연히 생명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이며, 거기서 다시 구원이 무엇인지 해명될 수 있다. 영, 생명, 구원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하나의 궁극적인 존재, 또는 생기를 가리고 있 기 때문에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든지 결국 서로 소통될 수밖에 없다.

우선 필자는 이렇게 질문해야겠다. 설교자인 우리는 구원론적 설교의 단초라 할 영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열광적인 부흥사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영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신앙적 주제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 종말, 칭의, 성만찬, 하나님 나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매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영이라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첫째는 영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침묵하고 대신 사람들의 업적과 윤리, 실천문제에만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현실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영성에 심취하고 만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이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자의 설교에서 영은 형해화(形骸化)하고, 후자의 설교에서 영은 주술화한다. 전자는 영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후자는 과잉생산한다.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양자는 모두 그리스도교 영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과연 영,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영, 또는 영적인 것은 구약성서의 루아흐나 신약성서의 프뉴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루아흐, 또는 퓨뉴마는 “영”,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은 죽었던 대지를 살리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살았던 대지를 죽인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은 숨을 그친다. 이런 현상 앞에서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바람과 숨이 곧 생명을 살리는 영이며, 영이 곧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즉 성서가 말하는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다. 영적인 것은 곧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 영에 인격적인 성격을 부여하면 그는 곧 성령이다. 특히 삼위일체론적인 차원에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이시다.

생명의 신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과 영을 가리키는 루아흐는 사람이 생산해내거나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봄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겨울에 불어오는 찬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요 3:8) 새로운 생명이 어머니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되는 숨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이 죽을 때 끊어지는 숨이 어디로 가는지 고대인들은 몰랐다. 모르는 것은 비밀이며, 곧 신비이다. 그들에게 바람은 비밀이고 신비였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 그것에 의해서 만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 신비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영(바람)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끝장나는 생명도 역시 비밀이며, 신비이다. 그래서 신구약성서 기자들은 이 세

상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았다. 그들은 세상을 그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해명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이 세상, 그 안의 모든 것, 하늘, 땅, 나무, 동물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창조를 유지하는 분이시며,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다. 이런 점에서 바람, 숨, 영, 창조, 하나님, 생명이라는 성서 언어는 생명의 비밀과 신비를 가리키는 동일한 어군이다.

이 세상과 생명을 신비한 사건으로 보았던 성서기자들을 어리석다고 보면 큰 잘못이다. 오늘 우리가 생명현상에 관해서 고대인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서 생명의 비밀과 그 신비를 그들보다 더 잘 아는 게 결코 아니다. 오늘의 과학자들이 첨단 유전공학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생명의 실체를 벗겨낼 수 없을 것이며,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우리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신학적으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쉽게 생각해보자. 오늘의 과학자들이 무기물만 사용해서 모기 한 마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조금 쉬운 문제를 내보자. 코스모스 씨앗으로 꽃을 피워보시라. 흙과 물과 태양을 사용하지 말고 순전히 실험실의 도구만으로 꽃을 피워보시라. 코스모스 씨앗에 그 어떤 물리적, 화학적 힘을 강제해도 꽃은 발현되지 않는다. 온 우주가 힘을 합해야만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있다. 오늘 개인들이 온 우주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게 곧 생명의 본질이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곧 신비이다.

위의 설명이 조금 안이했는지, 또는 설교조로 흘렀는지도 모르겠

다. 필자가 여기서 전하려고 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이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신비로운 영이시며, 그가 일으키는 생명도 역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사건이다. 그 성령은 우리가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의해서 이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생명의 영인 성령에 의존하는 설교는 청중들을 도구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의 풍요로움과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청중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아무리 쉬운 설교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신비를 담지 못하면 죽은 설교이고, 거꾸로 아무리 어려운 설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명의 신비*를 맞볼 수 있다면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신비라는 용어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은 주술이나 마술이나 인도의 힌두교적 신비주의, 또는 인간 무의식에 자리하는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창조영성*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자기를 계시한다는 사실일 분명하다면 신비는 당연히 본질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에 속한다. 참고적으로, 매튜 폭스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문명은 참된 신비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사이비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열 개의 사이비 신비주의를 지적한다. 국가주의(nationalism), 군사주의(militarism), 파시즘(fascism), 기술(technology), 소비주의(consumerism), 근본주의(fundamentalism), 뉴에이지 사상(New Ageism), 금욕주의(ascetism), 신비숭배(mystique), 심리학 지상주의가 그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안에도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는지.(우주 그리스도의 도래, 분도출판사, 74-79 참조)

성령 의존적 설교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다. 누가 신비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존적인 설교자이며, 무엇이 성령 의존적인 설교일까? 많은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영인 성령에 의존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구나 매우 수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매우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떤 설교자는 “성령을 받아라.”하고 외치기도 한다. 성령은 카리스마가 강한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자유의 영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움직이시는 길을 따라갈 뿐이지 우리의 뜻대로 그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성령이 아무리 자유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옳다.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을 인간의 심리작용과 비슷한 어떤 것으로,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심리작용 쪽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졌다거나 십일조 헌금을 아까워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게 된 것을 성령의 활동과 일치시킨다. 어떤 설교자들은 기도하는 중에서 교회당을 건축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것을 계시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경험은 생명의 영인 성령을 개인의 주관적인 깨달음과 일치시키는 억측에 가깝다.

다시 묻는다. 과연 성령에 의존하는 설교는 무엇인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까지, 더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과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통전적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설교야말로 성령에 의존하는 영적인 설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청중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아니라 해방시키는 설교, 남북분단의 분노와 대립이 아니라 남북평화와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설교, 사회적 마이너리티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설교,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생태를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살림으로 나가는 설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극단적인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정의에 근거한 정의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설교 말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숙고하기 원하는 분들은 몰트만의 <생명의 영>, 엘리스터 맥그레스의 <기독교 영성 베이직> 같은 저서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판넨베르크는 죄와 회심을 강조하는 영성과 복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다. 한국교회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심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인이 자유로워진다는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은 참회적 신앙심을 벗어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오직 이런 경우에만 믿는 자는 종교 개혁적 교리강습이라는 전제가 소멸됨으로써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독교인다운 인격적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공격의 경험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소외되었던 생활방식이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해방하는 영에 대한 새로운 표명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면, 니체는 자기가 만났던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조롱한 바 있는데, 전통적 참회 신앙심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듯 기독교적 신앙심과 생활태도에 대한 새로운 형식을 찾아보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W. Pannenberg, christliche Spiritualität).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이런 주제가 곧 생명을 살리는 설교의 모든 것이라거나 그것 자체라는 말은 아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일로 그의 활동을 대체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위에서 개인과 사회와 생태계 전체에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을 예로 든 것뿐이다.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설교는 생명(삶)의 신비와 연관되는 것이지 삶의 요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구원론적 설교에 대한 필자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당신이 말하는 생명의 신비는 지나치게 자연신학적이며, 신비주의적이고, 그래서 모호하다. 둘째, 당신의 주장에는 전통적 신학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적 구원론이 약하다. 물론 이 반론은 옳다. 생명의 신비는 단지 자연적 생명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선취(先取)된 생명의 신비를 가리킨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역사 안으로 선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영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토대이다. 이 예수의 부활을 일으킨 그 영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신비한 생명의 리얼리티와 접목되는지 신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론에서 신학으로!

위에서 필자는 영적인 설교는 생명(삶)의 신비와 연관되는 것이지 삶의 요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기서 생명의 신비는 신학에 속하는 존재론이며, 삶의 요령은 인간론에 속하는 방법론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교회 강단은 거의 인간론에 치우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직 사람에게에만 관심을 둔다. 묵회와 설교가 일종의 이벤트와 퍼포먼스와 프로그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의 반증이다. 이런 설교는 구원론적이지 않으며, 생명 지향적이지 않으며, 성령 의존적이지 않다. 필자의 주장은 이것이다. “인간론에서 신론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현재 유지하시고, 결국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다. 내재적(immanent) 삼위일체일 뿐만 아니라 경륜적(ökumenisch)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 땅과 역사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통치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또한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연관된 분이라는 말이다.

우리 중에는 위의 진술을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몇몇 신학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모두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계시하시는 분(Deus revelatus)인데, 동시에 은폐하시는 하나님(Deus absconditus)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동시에 모른다. 이런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건 필자의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서와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가 지켜온 하나님 존재의 신비이다. 영과 생명이 신비이듯이 하나님도 역시 신비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통치하신 말이다. 따라서 그는 세계의 비밀이며, 신비이다. 오늘 우리는 심층의 생명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되며, 거꾸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의 비밀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 필자는 바로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내는 설교, 그 신비 앞에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 말이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브레넌 매닝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예수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고후 3:18)에 관한 강론이나 설교를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현대 설교자들이 이 주제의 설교에 인색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카봇과 한 번도 스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개념을 설

명할 엄두가 안날 수도 있다. 그것을 언급하면 우리 자신과 회중들을 절대적 신비 속으로 몰아넣는 기분이 든다. 신비는 현대인들의 지성을 당혹케 한다. 모든 난해하고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결국 우리의 지식적 연구에 붙여지고 그리하여 결론적 분류작업으로 끝난다. 아무튼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신비를 피하는 것은 곧 경배와 영광을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을 구도자들과 신자들 양쪽 모두의 갈등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 우리의 잡담거리나 되는 점잖고 사무적인 로터리클럽 풍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경외와 말없는 공경과 전폭적 헌신과 전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브레년 매닝, 윤종석 역, 신뢰, 복있는 사람, 83 쪽)

매닝의 설명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봇(Kabod)은 구약성서에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 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야훼 하나님은 “내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출 33:18-23)*

*김이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

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이비 종교는 무의미하다. 즉 비종교적이고 탈종교적이며 탈제의적이어야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암 5:4,5)이다. 둘째, 구약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표현들은 대체로 경험적 사건에 관한 신화시적(神話詩的, mythopoeic) 표현들로 구성된 것이지 객관적 보도가 아니다. 즉 각고의 해석학적 탐구를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설교자들은 몇몇 종교경험을 바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험인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김이곤, 정년 기념강연 “신의 얼굴과 신의 등 은유에 관한 신학적 명상”, 기독교사상 2006년 6월, 참조)

아무도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듯이 아무도 하나님을 직면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루돌프 오토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누미노제” 경험을 한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범주화하거나 도구화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 누미노제는 곧 모든 성서기자들의 경험이기도 했다. 그 하나님은 홍수를 내는 분이며,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는 분이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며, 토기장이이자, 악어를 장난감처럼 다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필자는 단순한 윤리, 도덕규범, 인생철학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지 않고, 대신 나의 전체 존재를 화염으로 불사를,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과 설계도를 뛰어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언어까지 뛰

어넘는 하나님의 카뎀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런 설교 앞에서 내 영혼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더 나아가 예배와 설교는 근본적으로 “송영”(doxology)이다.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성서본문에서 그런 주제를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난감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도 하고, 필자에게 어떤 묘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행위인 생명의 신비가 오늘의 구체적인 노동현장과 가정생활, 그리고 정치 경제의 현실 및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청중들이 살아가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훨씬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성서의 놀라운 세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인 신학을 공부해야 하며, 오늘의 삶을 해석하는 인문학공부에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은밀한 중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기도는 이 모든 행위의 토대이다.

산상수훈의 ‘의’에 관한 해석학적 문제

처세술과 설교

필자는 일전에 한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비평할 일이 있었다. 그가 시무하는 교회는 서울의 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교단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이다. 그는 “여유 있어 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는 제목의 설교에서 산상수훈을 거론하면서 세 가지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했다. 첫째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마음의 여유를 뜻하며, 둘째로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겹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여유를 의미하고, 셋째로 오리를 함께 가자하는 이에게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은 시간의 여유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 가지 여유를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으로서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서울의 중산층이라 할 그 교회 신자들에게 세련된 설교를 전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설교는 성서 텍스트의 깊이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국 성서 텍스트의 실체를 은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따라가자.

일단 그리스도교 신앙이 여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그 발상에서 우리는 성서적이고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선 예수님이 여유 있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대답이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머리 돌 곳조차 없다고 한탄하실 정도로 외로운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 처형 앞에서 피가 땀처럼 보일 정도로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셨다. 만약 그리스

도교 신앙이 여유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형편없이 사셨다는 말이 된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도 역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속 질서 사이의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았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단적으로 순교의 역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순교의 정신을 따르고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한다.

물론 본문을 멀리 후회하면 여유로운 삶 운운도 역시 가능한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교 신앙의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변죽을 울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요령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로 이용된다는 의미이다. 사실 처세술로서의 설교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설교도 역시 기본적으로 처세술이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윤리적 처세술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담과 지도력 개발도 역시 처세술의 일종이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근거해서 부부 클리닉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리석다 못해 비극적인 현상이다. 만약 마음의 여유로만 말한다면 불교의 돈오(頓悟)가, 소크라테스의 자기 인식이, 노장의 무위자연이, 요즘 확산되고 있는 단과 기수련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처럼 일종의 종교적 처세술로 다루어지는 신학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관해서만 본다면, 산상수훈이 일종의 윤리적 강령, 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신앙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산상수훈이 진술하고 있는 의에 관한 규정들이 일종의 규범으로 인식된다는 말이다. 일단 의가 규범으로 설정되면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마련이고, 결국 그것이 처세술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른뺨과 왼뺨에 관한 텍스트를 규범으로 선포하는 설교자들도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니면 최소한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원수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도 역시 옳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이게 바로 설교자의 딜레마이다. 전통적인 설교자들은 불가능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규범으로서의 의를 거의 무조건적인 율법의 차원에서 강요했지만, 그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그 텍스트를 대하는 청중들의 실존적인 삶에 설교의 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딜레마를 피한다. 즉 위에서 예로 든 설교자에게 볼 수 있듯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여유라고 해석함으로써 청중들이 크게 갈등을 겪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견인해낼 수 있다면 그런 설교는 당연히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성서 해석은 결국 성서 텍스트의 도구화와 다를 게 없다. 성서 텍스트의 도구화는 성서 텍스트의 존재론적 능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구화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성서 텍스트가 놓인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역사적 무게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며 필수적이다. 이제 산상수훈이 제시하고 있는 ‘의’에 관한 역사적 무게를 확보하기 위

해서 마태 공동체가 처한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마태복음 공동체는 기원후 80년대 초라는 시대에 자리하고 있다. 그 시대는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된 이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결속과 부흥이 크게 강조되던 때였다. 그런 상황은 마태공동체에게 일종의 위기였다. 유대교로부터의 압박이 강화함으로써 마태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축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로 깃발을 내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의 갈등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나사렛파로 행세할 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드나들고 있었다는 걸 보더라도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와의 적대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등장으로 조금씩 유대교와 구별되는 요소들이, 즉 탈(脫)율법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곧 유대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던 팔레스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거리를 두려던 디아스포라(헬라파)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사도행전에 서술되어 있는 소위 일곱 집사 사건은 단순히 사도들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조치였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과 디아스포라(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분열이라는 게 초기 그리

스도교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팔레스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서 밀려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방인 선교를 전개했으며, 급기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의 등장으로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역에 그들의 고유한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들 헬라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대표 격인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과 계속해서 어정쩡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로마서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훨씬 단호하게 배격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갈 1:9)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기까지 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복음 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율법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유대교의 정치적 압력 앞에서 마태공동체는 그들의 입장을 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고 말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

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17-20)

우리는 바울의 입장과 마태복음의 입장이 서로 대립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대립도 상당히 극단적이다. 한쪽은 복음과 율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하였으며, 다른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투철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실제로 바울과 마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일까?

그들의 신앙이 이질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가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새로운 무대인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으며, 마태는 야고보 및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적 배경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율법에 관한 입장표명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결국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헬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주류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공동체가 몸부림쳤던 율법적인 '의'의 문제가 과소평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텍스트가 안고 있는 역사적 무게를 얼마나 진지하게 꿰고 들어가서, 오늘날의 삶에 재해석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율법과 복음의 지평융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로 그 흔적만 남아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그들 공동체에서 발생한 값싼 은혜를 극복하자는 편집의도에서 기록된 매우 독특한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이다. 더구나 마태공동체는 이제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교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으려고 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인 의로움의 정당성을 누누이 밝히고 있으며, 더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강력한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읽었다면 그리스도교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렸을 가능성은 높다. 물론 마 5:21-48절에서 율법과의 대구형식으로 제시된 내용이 율법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전반으로 볼 때 산상수훈은 율법이 말하는 의를 지켜야 한다고,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엄격한 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읽기를 이런 정도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이 표면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새로운 의의 차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윤리적 삶의 지평을 희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도의 '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상수훈에 제시된 윤리적 기준은 흠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예찬이 우리가 무조건 실천해야 할 규범이라기보다는 기독교론적인 진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론적인 진술인지 모르겠다. 예수에게서만 가능한 의로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로움에 대한 진술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태를 해석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율법과 복

음이 마태공동체 안에서 지평융해를 일으킴으로써 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평을 놓치게 되면 의에 관한 산상수훈의 진술과 그리스도교 일반의 신앙이 모순을 일으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며, 성전청결 사건에서는 나뭇으로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마시기 즐겨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비판했다는 일련의 사실은 표면적인 산상수훈의 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는 적지 않았다. 즉 이 세상에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폭력을 부정한 그리스도교적 비폭력주의는 실제로 이 세상의 폭력을 완화시키지도 못했고, 평화의 질서를 제고시키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이상주의적 순진성은 악한 폭력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산상수훈의 비폭력을 율법과 복음의 기독교적인 지평이 아니라 절대적 규범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의 설교자는 그리스도교적 이상주의자들을 그대로 흉내낼 것이 아니라 마태공동체가 처했던 역사적 무게를 읽어내면서 율법과 복음의 변증법적 관계를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의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지평융해를 통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의'에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따라야 할 규범이거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석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짧은 글에서 그런 해석학적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다음과 같이 방향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

우리의 텍스트 해석 행위는 기본적으로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산상수훈의 의 문제는 단지 산상수훈 안에서가 아니라 성서 전체가 말하는 의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는 의 개념과의 연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제시된 법적인 의미의 칭의론 개념을 알고 있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산상수훈의 의를 무조건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또한 바르트가 말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빛에서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적인 힘들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속 사회에서 함께 투쟁하며 살아가야 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문제를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적 사유에서 접근하고, 그런 문제를 오늘 의 인문학적 토대에서 풀어낼 수 있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청중들에게 산상수훈의 비폭력을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의 글이 산상수훈의 의를 주제로 설교할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다. 필자의 생각이 미숙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성서 텍스트가 단순히 암기하기만 하면 극복되는 자동차 매뉴얼이 아니라 해석됨으로써만 탈(脫)은폐가 가능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라는 근본적인 사태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산상수훈의 의는 오늘 우리에게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적이고 진리론적인 해석학적 능력이 주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월간지 Preaching 7월호)

설교와 생명의 신비

어려운 설교, 쉬운 설교

현재 남의 설교를 비평하는 글을 <기독교사상>에 연재하고 있는 필자는 고급스러운 명설교자도 아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낼 줄 아는 대중설교자는 더더욱 아니다. 설교 내용도 내세울만하지 못하고, 말에 서는 달변이 아니라 늘변에 속한다. 이견 겸양도 아니고 엄살도 아니며, 실제 상황이다. 지금도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크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식은땀이 날 때가 있을 정도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심지어 그런 일들이 꿈에 나타날 때도 있다. 강단에 올라섰는데 마땅히 내 앞에 있어야 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꿈을 꾸다. 그 꿈의 진행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강단에서 찢쩍대다가 꿈을 깨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두려움을 감춘 채 대충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경우이다.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설교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는지.

어쨌든지 필자가 보기에 내 설교를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은 것 같다. 그 말이 그 말인지는 모르겠다. 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졸립다는 내 딸들의 평가도 역시 내 설교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설교, 청중을 졸리게 하는 설교, 어려운 설교, 이런 것이 내 설교의 특징이다. 내심으로는 내 설교가 왜 어렵다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런 평가를 나 몰라라 팽개칠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는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는 설교,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청중들은 왜 반대로 받아들일까?

이게 바로 설교자인 필자가 처한 딜레마이다.

아무래도 내 설교에 한 마디 변명을 하고 지나가야겠다. 나는 성서 텍스트와 청중 사이에 가교를 놓아야 할 설교자의 역할에서 성서 텍스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청중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거나 그들을 종교적으로 계몽하는 것보다는 성서텍스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내 설교에서 청중들을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청중 중심의 설교를 주창하는 오늘의 설교학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청중들이 내 설교를 어렵다고, 정확하게는 따분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청중들은 일반적으로 어렵거나 따분한 설교를 싫어한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포위당하고 있는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의미와 영성의 깊이에 귀를 기울이기는 힘들다. 노동, 자식교육, 아파트, 주식, 병원, 의식주 문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미움과 배신, 분노 등등, 이런 현실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즉각적이며, 매우 치열하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 간밤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자식들이 말썽을 피워 걱정하고, 또는 기업이 부도 직전에 몰렸거나 실연당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들, 또는 그 반대의 남자들, 경쟁 기업체와의 싸움에 지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골치 아픈 일로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와서도 또 심각해져야 한다는 건 청중의 입장에서 고문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쉬운 설교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설교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간단히 잊을 수 있는 “쉬운 설교”를, 또는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설교 말이다.

한국의 대중 설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청중들의 요구에 딱 떨어지는 설교를 할 줄 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전달 방식에서도 역시 그렇다. 삼박자 축복이라거나 청부론 같은 용어로 포장된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잘 팔린다. 이런 설교는 불치병이 기도로 치료될 수 있다가, 부도 일보 직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기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고지를 선점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민중들의 가장 큰 관심인 재산과 건강 문제에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설교는 그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믿거나 말거나) 75만 명의 교인수를 헤아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가 외치는 복음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딱 맞는 셈이다.

필자처럼 청중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태도는 바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의 눈높이에만 맞추어 쉬운 설교에 치우치는 것도 늘 옳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청중들의 구체적인 삶을 간과한 채 자신의 영적 경지만을 독백처럼 내세운 설교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청중들의 영적인 성장과 별로 상관없이 당장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전하는 설교를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건 아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교회 성장론에 종속된 쉬운 설교, 들리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에만 치우치는 건 아닐는지.

노파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히겠다. 필자는 민중들의 세속적, 또는 이기적인 관심을 무조건 불온시하는 건 아니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현장을 간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세속적 메

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는 삶이 바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이 땅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정(에로스)이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늘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경우에 인간과 사회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자는 단순히 대중추수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과 세계를 살리는 설교에 몰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론적 설교>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 자신이 그런 구원론적 지평을 분명하게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청중들로 하여금 구원의 현실에 직면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오늘의 설교자들이 어디에 설교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 그 답은 곧 하나님의 행위, 그의 계시,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이다. 구원론적 설교는 하나님의 사건에 중심을 놓은 설교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영

구원론적인 설교라는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개인, 사회, 국가, 지구, 우주를 구원한다고, 즉 “건져내고, 살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한 사람, 또는 공동체를 폐쇄적인 독단성에 갇히게 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세상을 향한 적개심에 불타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죽이는 설교 아니겠는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필자는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다. 구원론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두 마디로 끊어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설교는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도대체 살린다는 게 무엇인가, 또는 “산다,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 삶, 또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구원론적인 설교라는 말과 연관되는 것들인데, 결국 구원론적인 설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직결된다. 그런데 성서와 신학에서 생명은 영의 문제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현상은 영의 활동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점에서 생명 지향적 설교는 곧 영적인 설교이며, 거꾸로 영적인 설교는 곧 생명 지향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우리는 구원, 생명, 영의 관계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는 생명을 지향하는 설교이고, 생명 지향적 설교는 곧 영적인 설교이다. 이것은 다시 거꾸로도 그대로 통하는 논리이다. 따라서 영, 또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설명된다면 당연히 생명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이며, 거기서 다시 구원이 무엇인지 해명될 수 있다. 영, 생명, 구원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하나의 궁극적인 존재, 또는 생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든지 결국 서로 소통될 수밖에 없다. 천천히 영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필자는 이렇게 질문해야겠다. 설교자인 우리는 영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영광적인 부흥사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영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신앙적 주제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 종말, 칭의, 성만찬, 하나님 나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매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인지 모른다. 영이라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극

단적인 태도를 취한다. 첫째는 영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침묵하고 대신 사람들의 업적과 윤리, 실천문제에만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현실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영성에 심취하고 만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이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자의 설교에서 영은 형해화하고, 후자의 설교에서 영은 주술화한다. 전자는 영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후자는 과잉생산한다.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양자는 모두 그리스도교 영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과연 영,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영, 또는 영적인 것은 구약성서의 루아흐나 신약성서의 프뉴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루아흐, 또는 프뉴마는 “영”,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은 죽었던 대지를 살리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살았던 대지를 죽인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은 숨을 그친다. 이런 현상 앞에서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바람과 숨이 곧 생명을 살리는 영이며, 영이 곧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즉 성서가 말하는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다. 영적인 것은 곧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 영에 인격적인 성격을 부여하면 그는 곧 성령이다. 특히 삼위일체론적인 차원에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이시다.

생명의 신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과 영을 가리키는 루아흐는 사람이 생산해내거나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봄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겨울에 불어오는 찬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

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요 3:8) 새로운 생명이 어머니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되는 숨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이 죽을 때 끊어지는 숨이 어디로 가는지 고대인들은 몰랐다. 모르는 것은 비밀이며, 곧 신비이다. 그들에게 바람은 비밀이고 신비였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신비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영(바람)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끝장나는 생명도 역시 비밀이며, 신비이다. 그래서 친구약성서 기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았다. 그들이 세상을 그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해명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이 세상, 그 안의 모든 것, 하늘, 땅, 나무, 동물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창조를 유지하는 분이시며,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다. 이런 점에서 바람, 숨, 영, 창조, 하나님, 생명이라는 성서 언어는 생명의 비밀과 신비를 가리키는 동일한 어군이다.

이 세상과 생명을 신비한 사건으로 보았던 성서기자들을 어리석다고 보면 큰 잘못이다. 오늘 우리가 생명현상에 관해서 고대인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서 생명의 비밀과 그 신비를 그들보다 더 잘 아는 게 결코 아니다. 오늘의 과학자들이 첨단 유전공학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생명의 실체를 벗겨낼 수 없을 것이며,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우리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신학적으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자이다.”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쉽게 생각해보자. 오늘의 과학자들이 무기물만 사용해서 모

기 한 마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조금 쉬운 문제를 내보자. 코스모스 씨앗으로 꽃을 피워보시라. 흙과 물과 태양을 사용하지 말고 순전히 실험실의 도구만으로 꽃을 피워보시라. 코스모스 씨앗에 그 어떤 물리적, 화학적 힘을 강제해도 꽃은 발현되지 않는다. 온우주가 힘을 합해야만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있다. 오늘 개인들이 온우주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게 곧 생명의 본질이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곧 신비이다.

위의 설명이 조금 안이했는지, 또는 설교조로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여기서 전하려고 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이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신비로운 영이시며, 그가 일으키는 생명도 역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사건이다. 그 성령은 우리가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의해서 이용되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생명의 영인 성령에 의존하는 설교는 청중들을 도구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의 풍요로움과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청중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아무리 쉬운 설교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신비를 담지 못하면 죽은 설교이고, 거꾸로 아무리 어려운 설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명의 신비를 맞볼 수 있다면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신비라는 용어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은 주술이나 마술이나 인도의 힌두교적 신비주의, 또는 인간 무의식에 자리하는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창조 영성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신비는 매우 분명하고 본질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에 속한다. 참고적으로 매튜 폭스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문명은 참된 신비

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사이비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열 개의 사이비 신비주의를 지적한다. 국가주의(nationalism), 군사주의(militarism), 파시즘(fascism), 기술(technology), 소비주의(consumerism), 근본주의(fundamentalism), 뉴에이지 사상(New Ageism), 금욕주의(ascetism), 신비숭배(mystique), 심리학 지상주의가 그것이다.(우주 그리스도의 도래, 분도출판사, 74-79 참조) 필자가 보기에 이런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안에도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는지.

생명 지향적 설교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영인 성령에 의존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구나 매우 수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매우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떤 설교자는 “성령을 받아라.”하고 외치기도 한다. 성령은 카리스마가 강한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자유의 영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움직이시는 길을 따라갈 뿐이지 우리의 뜻대로 그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성령이 아무리 자유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옳다.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을 인간의 심리작용 쪽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심리작용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졌다거나

십일조 헌금을 아까워하다고 기쁨으로 드리게 된 것을 성령의 활동과 일치시킨다. 어떤 설교자들은 기도하는 중에서 교회당을 건축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경험은 생명의 영인 성령을 개인의 주관적인 깨달음과 일치시키는 억측에 가깝다.

과연 성령에 의존하는 설교는 무엇인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까지, 더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과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통전적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설교야말로 성령에 의존하는 영적인 설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청중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아니라 해방시키는 설교,* 남북분단의 분노와 대립이 아니라 남북평화와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설교, 사회적 마이너리티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설교,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생태를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살림으로 나가는 설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극단적인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정의에 근거한 정의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설교 말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숙고하기 원하는 분들은 몰트만의 <생명의 영>, 엘리스터 맥스레스의 <기독교 영성 베이직> 같은 저서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적으로, 판넨베르크는 죄와 회심을 강조하는 영성과 복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다. 한국교회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심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게 아닐

까 생각한다.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인이 자유로워진다는 종교 개혁의 중심 사상은 참회적 신앙심을 벗어나므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오직 이럴 경우에만 믿는 자는 종교 개혁적 교리강습이라는 전제가 소멸됨으로써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독교인다운 인격적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공격의 경험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소외되었던 생활방식이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해방하는 영의 새로운 표명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면, 니체는 자기가 만났던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조롱한 바 있는데, 전통적 참회 신앙심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듯 기독교적 신앙심과 생활태도에 대한 새로운 형식을 찾아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 (W. Pannenberg, christliche Spiritualität).

물론 이런 주제가 곧 생명을 살리는 설교의 모든 것이라거나 그것 자체라는 말은 아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일로 그의 활동을 대체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위에서 개인과 사회와 생태계 전체에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을 예로 든 것뿐이다.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설교는 생명(삶)의 신비와 연관되는 것이지 삶의 요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자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당신이 말하는 생명의 신비는 지나치게 자연신학적이며, 신비주의적이고, 그래서 모호하다. 둘째, 당신의 주장에는 전통적 신학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적 구원론이 약하다. 물론 이 반론은 옳다. 생명의 신비는 단지 자연적 생명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에서 선취(先取)된 생명의 신비를 가리킨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역사 안으로 선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영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영성과 참된 생명의 토대이다. 이 예수의 부활을 일으킨 그 영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오늘의 설교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신비한 생명의 리얼리티와 접목되는지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생명의 신비가 곧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설명해야겠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현재 유지하시고, 결국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다. 내재적(immanent) 삼위일체일 뿐만 아니라 경륜적(ökumenisch)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 땅과 역사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통치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또한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연관된 분이라는 말이다.

우리 중에는 위의 진술을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몇몇 신학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모두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계시하시는 분(Deus revelatus)인데, 동시에 은폐하시는 하나님(Deus absconditus)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동시에 모른다. 이런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건 필자의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서와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가 지켜온 하나님 존재의 신비이다. 영과 생명이 신비이듯이 하나님도 역시 신비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통치하신 말이다. 따라서 그는 세계의 비밀이며, 신비이다. 오늘 우리는 심층의 생명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되며, 거꾸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의 비밀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 필자는 바로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내는 설교, 그 신비 앞에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 말이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브레넌 매닝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예수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고후 3:18)에 관한 강론이나 설교를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현대 설교자들이 이 주제의 설교에 인색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카뮈트와 한 번도 스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개념을 설명할 엄두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언급하면 우리 자신과 회중들을 절대적 신비 속으로 몰아넣는 기분이 든다. 신비는 현대인들의 지성을 당혹케 한다. 모든 난해하고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결국 우리의 지식적 연구에 붙여지고 그리하여 결론적 분류작업으로 끝난다. 아무튼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신비를 피하는 것은

곧 경배와 영광을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을 구도자들과 신자들 양쪽 모두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 우리의 잡담거리나 되는 점잖고 사무적인 로터리클럽 풍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경외와 말없는 공경과 전폭적 헌신과 전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브레년 매닝, 윤종석 역, 신뢰, 복있는 사람, 83 쪽)

매닝의 설명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봇(Kabod)은 구약성서에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 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야훼 하나님은 “내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출 33:18-23)*

*김이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이비 종교는 무의미하다. 즉 비종교적이고 탈종교적이며 탈제의적이어야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암 5:4,5)이다. 둘째, 구약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표현들은 대체로 경험적 사건에 관한 신화시적(神話詩的, mythopoeic) 표현들로 구성된 것이지

객관적 보도가 아니다. 즉 각고의 해석학적 탐구를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설교자들은 몇몇 종교경험을 바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험인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김이곤, 정년 기념강연 “신의 얼굴과 신의 등 은유에 관한 신학적 명상”, 기독교사상 2006년 6월, 참조)

아무도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듯이 아무도 하나님을 직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직접 쳐다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루돌프 오토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누미노제” 경험을 한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범주화하거나 도구화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 누미노제는 곧 모든 성서기자들의 경험이기도 했다. 그 하나님은 홍수를 내는 분이며,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는 분이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며, 토기장이이자, 악어를 장난감처럼 다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의 신비 이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매닝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자.

칼 라너(Karl Rahner)는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신비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하고 역설했다. 기독교가 단순히 윤리, 도덕규범, 인생철학이라면 고난의 습격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카뎀에 대한 영광스런 체험은 소수의 엘리

트 집단을 위해 구별된 비전(秘傳)이 아니다. 이 선물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는 물음에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은 이렇게 대답했다. “답은 뻔하다. 모든 사람이다.”(같은 책, 90)

그렇다. 필자는 단순한 윤리, 도덕규범, 인생철학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지 않고, 대신 나의 전체 존재를 화염으로 불사를,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과 설계도를 뛰어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언어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의 카봇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런 설교 앞에서 내 영혼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더 나아가 예배와 설교는 근본적으로 “송영”(doxology)이다.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성서본문에서 그런 주제를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난감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도 하고, 필자에게 어떤 묘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행위인 생명의 신비가 오늘의 구체적인 노동현장과 가정생활, 그리고 정치 경제의 현실 및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청중들이 살아가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훨씬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성서의 놀라운 세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인 신학을 공부해야 하며, 오늘의 삶을 해석하는 인문학공부에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은밀한 중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기도도 이 모든 행위의 토대이다. (통합측 총남노회 목회자회 특강, 2006년 12월12일)

설교 쉽게 하기의 한계와 설교 지평 넓히기

대구성서 아카데미 제3회 설교공부 강의안/ 2003.2.17(월), 오후2시

지난 2월7일 <대구성서 아카데미>를 취재하러온 기독교 사상 편집팀과의 모임을 마친 후, 저와 현풍제일교회 이신건 목사, 편집부장 한종호 목사, 이렇게 셋이서 따로 찬 한잔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주로 설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이신건 목사님이 전한 한 토막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뭐니 해도 설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개 목사,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줄 잘 몰랐어. 설교하고 나서 돌아서면 곧 설교할 때가 오고, 그 설교를 마치면 또 다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설교는 일주일에 두 번만 하기로 했어." 목회자라면 누구나 갖는 문제이겠지요. 그러자 이미 20년 이상 목회를 한 상대편 목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목사, 조금만 있어봐.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는 날이 올거야."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바로 한국 강단의 현주소입니다. 한쪽에서는 설교행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설령설령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정직한 걸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지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행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이런 설교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 설교 쉽게하기의 한계

쉬운 설교라는 말은 설교 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설교 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별 수고를 많이 들이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듣는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준비를 많이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 없이 머리를 별로 쓰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입장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별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중들이 잘 알아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온갖 수고를 다 기울이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설교 준비와 청중의 반응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준비한 설교가 청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를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태의 전면목을 정직하게 들여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설교자들이 겉으로는 설교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너무나 쉽게 설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교준비를 쉽게 하는 설교자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한쪽에는 거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흥사들이나 소위 입담 좋은 유명 설교자들이 이런 형태에 속합니다. 이

미 각본에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그 각본대로 설교를 하면 되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종의 설교 노하우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음의 준비야, 또는 기도의 준비야 나름대로 하겠지만 실제로 설교 자체에 대한 준비는 별로 힘들여 하지 않습니다. 이는 흡사 동네에서 감기 환자나 보는 내과 전문의가 이런 환자를 위해서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초일류 설교자들의 머리 속에는 문제은행처럼 많은 설교의 재료들이 들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상황에 맞도록 편집만 잘 하면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개의 설교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설교 전후에 무언가 미흡하다는 마음으로 늘 쫓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남의 설교 집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고 계속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노력도 포기하고 그냥 쉽게, 준비없이 설교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반복됩니다. 본인 스스로 설교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신자들의 반응도 무덤덤하고, 교회 부흥도 시원치 않으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기 저기 기웃 거리거나 아니면 설교보다는 다른 교회 프로그램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연륜만 쌓이는 겁니다.

위에서 거론된 두 가지 형태가 외면적으로는 상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스스로 설교를 잘하고 있으며 신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스스로 설교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신자들의 반응도 시원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양쪽이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한쪽은 자기 설교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자신감이 없어서 설교를 대충합니다. 양측 모두 설교를 모르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앞의 설교자는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며, 뒤의 설교자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수 없이 지껄이는 설교가 훨씬 문제가 많겠지요.

저는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그런 현상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서와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그것에 진지하지도 못한채 아주 작은 자신의 말 기술에 의지해서 청중들을 억지로 설득시키려는 설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종의 대중선동입니다. 대중들은 대개가 논리적이기보다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기만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박태선 집단도 그렇고, 문선명 집단도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외국의 경우에도 종종 있습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대중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현상만 보면 이런 사이비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설교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이 그저 아멘과 믿습시다라는 구호로, 흡사 개그 콘서트에 모인 오빠 부대들처럼 기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듯 대중을 조작해나가는 설교는 그것이 아무리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비기독교적이며 비신학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설교자들은 약간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게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한다기 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다. 이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설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중을 선동하는 설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덜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위에서 설교 쉽게하기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만, 그런 외면적 현상 안에 숨겨진 보다 실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설교학 교수들이나 뛰어난 설교 실천가들이 늘 충고하는 대로 "설교는 쉽게 하는 거야"라는 주장의 밑바탕에는 두 가지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케리그마로서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콩이나 팔아야 파질 것 없이 단순하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설교자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콩나물 항아리에 물주기 식이라고 말씀들 하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중의 지적 수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준이 낮은 청중에게 굳이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마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는 TV에서 방영하는 삼류 연속극이나 단지 말초적인 웃음이나 파는 시트콤, 또는 기껏해야 교양강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목회를 "핑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목사는 이런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많이 팔리기만 한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클래식 가수가 뽕짝 노래만 불러도 될까요?

저는 <그말씀> 1996년6월호에서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쉬운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막강한 주장이 한국교회 강단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설교는 모르는 사이에 최소한 네 가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 위기는 한편으로 한국교회 강단의 역동성으로 포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음모를 분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위기가 정확한 진단인지 아닌지는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것을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설교가 천편일률입니다. 왜 그렇게 설교가 한결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집이나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설교가 판에 박은 듯 똑같습니다. 예컨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무슨 설교가 나올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사적인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 충성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충성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틀에다가 결론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약간의 적당한 예화나 설교 구조를 밑받침 할만한 성구를 모아놓으면 설교가 됩니다. 설교를 쉽게 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또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이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걸 설교의 위기입니다.

둘째, 설교 내용이 빈곤합니다. 이 부분은 첫째 요인과 연관되지만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이 주로 설교의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것은 주로 내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성서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출현한 게 아니라 역사적 과정 안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성서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역사 현실성을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피상적으로 드러난 사건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 설교의 깊이

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형식에만 치우쳐 있지 그 내용에 천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본문으로 택했을 경우에, 진리론과 자유론에 대한 공부가 밑바탕에 있어야 이 설교의 내용을 풍부하게 엮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가 충분치 못하면 진리가 곧 예수와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잘 믿으면 자유로워진다고 설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방식과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약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설교가 감상적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의 설교가 TV의 드라마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드라마의 속성은 감상주의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어느 다리 위에서 만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더욱 감정이 살아납니다. 이런 드라마는 이런 장면에서 시간을 질질 끄니다. 감상적인 배경 음악을 깔아야 되겠지요. 설교가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설교에 감동스러운 예화가 많이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일조 헌금을 한푼도 떼어 먹지 않고 드렸더니 결국 사업이 성공하더라는 식의 예화들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한국의 통속 드라마와 설교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설교를 쉽게 해야한다는 유혹과 한계에 의한 설교의 위기입니다.

넷째, 설교자의 카리스마가 상실되었습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주어진 고유한 카리스마(은사)인데, 오늘 교회 회중들은 이런 목사의 카리

스마를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내로는 거의 무시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신자들도, 특히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성서의 세계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목사와 평신도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라고 해도 최소한 인문학적 소양이 있기에 하다면 목사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성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설교자들이 성서를 너무나 안이하게 접근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설교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 몇분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급의 선생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목사의 설교에서 생명의 충만감, 존재의 신비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역시 그 타령이구나,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약장수같은 쉬운 설교로 인해서 오늘 목사 스스로 설교의 카리스마를 잃어버렸습니다.

2. 쉬운 설교의 전형

이제 저는 이러한 쉬운 설교의 전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배우면 설교가 너무나 쉽습니다. 굳이 설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에서 무진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쉬운 설교의 요령만 배우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장본인은 서울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입니다. 지난 번 두 번의 특강에서 옥한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김삼환 목사의 설교집을 보고 그래도 옥 목사의 설교가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

택한 설교집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1993년에 출판한 『네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우선 이 설교집을 읽고 난 느낌은 “참 쉽게 설교 하는구나”였습니다. 지식인들로부터 학문적이지 못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더군요. 설교가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단순한 설교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쉽게하기 원하면 이 분의 설교집을 읽어보십시오. 순식간에 설교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성령이 이끄는대로,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고 대중 구수하면서도 약간 지적인 냄새가 풍기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설교의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특수한 현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김삼환 목사의 설교집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번 영주 집회 때 그것에 호우주의보가 내렸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만 시작하면 비가 멈추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서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다. 2시간 이상 설교 중에 비가 멈추었다가 설교가 끝나는 순간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나 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태풍과 비를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고도 주시고 하늘 문도 열어 주시고 닫아주십니다.”(235f.). 이런 우연한 사건들을 모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만, 이상하게 일반 대중에게는 잘 먹힙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일부러 이런 이야기

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별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내 삶의 주변에도 이런 간증거리는 허다합니다.

2)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형태에 대해서 자주 거론합니다. 김삼환 목사의 설교에는 의사,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 성령 전도>라는 제목의 설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과 병원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금년에 첫날 번 수입을 몽땅 선교비로 드립니다' 하고 갖고 왔습니다. 백 몇 십만원을 그대로, 하루의 수입 모두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선교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는 못 될지라도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루 수입만 가지고도 선교사가 한달 쓸 수 있는 비용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21쪽). 김 목사는 곧 이어서 선교사로 나서려고 애를 쓴다는 내과 원장 이야기를 또 다시 합니다. 이런 예는 이 설교집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서도 매우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쉽게 하려면 이런 예화들을 잔뜩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에 모범적인 사람들을 본문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장군이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자원할 정도이니까 어떤 설교에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3)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시편 95:1-11>이라는 설교에서 그는 TV 다큐멘터리에 나온 백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백로 어미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가

하는 과정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높은 곳에 등지를 틀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백로는 등지 위에 어미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미와 같이 있으면서 어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성장한 백로들이 모여 하늘을 덮고 날아가는 모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33). 매우 재치 있는 설교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자들은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쇠똥굴이의 습성을 통해서도 설교할 수 있죠. 누가 보든 앓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수행한다든지, 더러운 똥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능력이라든지, 하여튼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레고리 방식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설교자의 주관성에 치우칠 염려가 많습니다.

4) 한 본문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 본문을 적용시킵니다. 설교가 흡사 성서 본문의 짜집기 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리키라, 수8:18:19>라는 설교는 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 성을 가리키니 그 순간에 복병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본문입니다. 고대인들의 전쟁을 설교의 본문을 삼을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설교는 가장 전형적인 승리주의에 사로잡힌 형식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 성을 가리켰고, 그것으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아이 성을 가리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신문에 나온 부도덕한 일들을 열거

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아이 성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중간 부분에서 모르드개와 에스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오늘의 하만 장군을 창대에 매달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참으로 편리하고 쉬운 설교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면 별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한 두 시간 기억나는대로 성구를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사상 편집부장 한종호 목사의 <전병욱 비판적 읽기>는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아마 한국 최초로 설교에 대한 실명비판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전병욱 목사의 설교와 김삼환 목사의 설교가 상당히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설교의 대가들과 목회에 성공한 분들에게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설교의 내용은 차치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요령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그 요령이 각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별 내용이 아닌 것을, 또는 왜곡된 내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설득력은 아마 뗃시지가 쉽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를 쉽게 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설교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서주석입니다. 칼 바르트 본 대학교에서 고백교회 운동을 하다가 조국으로 추방당하면서 신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엑세계제, 엑세계제, 엑세계제!" 김삼환 목사와 전병욱 목사의 설교에는 이런 성서주석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쉬운 설교를 하려다가 보니까 신자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해야하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서본문 주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

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서신학이나 조직신학이 아니라 앞다투어 상담학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의 패턴은 왜곡된 인간론과 오늘의 천박한 시대정신에 호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곡된 인간론은 죄의식에 기초한 신앙심이며, 천박한 시대정신은 성공신화입니다.

죄의식에 기초한 신앙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학생회에 있을 무렵에는 이런 현상이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열었다 하면 "회개하라"고 옥박지릅니다. 청중들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형태입니다. 요즘도 그런답니다. 윤석전 목사라는 양반은 청소년 집회에서 그렇게 쌍소리를 많이 한다면서요? 이런 집회에 가서 실컷 욕을 얻어먹고, 실컷 울고 불고, 그런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변호되고 있습니다. 대중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언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의 노골적으로 죄의식을 자극하는 설교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유형의 설교는 빌리 그레함의 영향이 큼니다. 물론 한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런 근본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도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매우 중요한 케리그마의 구성요소로 강조한 탓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소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된 7,80년대에 빌리 그레함이 소위 "탕자의 비유" 류의 설교를 한국에 이식시킴으로써 그것이 거의 복음의 본질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서 훨씬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은 한국 기독교를 매우 무력하고 편집증적인 종교로 만들

었습니다. 이 세계를 성속이원론의 관점으로 봅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 참으로 쉽습니다. 인간과 문화의 실존이 어떤 깊이가 있는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죄나 아니냐 하는 이분법으로 재단해버립니다. 예컨대 공산주의는 악이다, 타종교는 마귀다 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나 목회는 7,80년대, 또는 무식한 부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반 신자들의 정서가 어떤 상태인지 말입니다. 늘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신자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범생을 목표로 한 목회와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모범생이 되지 못한 신자들은 늘 불안해 합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불안증을 프로이트는 "집단적 노이로제"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앞서 니체는 훨씬 치밀하게 이런 도덕주의적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인간론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인간 이해가 매우 단조로우니까요. 그냥 이런 구도에다 짜맞추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설교와 목회의 성공신화 부추기기는 거의 한도를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소위 잘나가는 설교자들의 설교 특징은 바로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죄의식과 청교도적 도덕주의가 빌리 그레함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성공신화는 로버트 솔러 목사의 영향입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로버트 솔러 목사의 "불가능은 없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류의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들은 왜 이런 책을 추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더불어서 로버트 솔러 목사는 7,80년대 한국 교회의 목회와 설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않는 게 없다는 식의 목회와 설교였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이라는 한국의 상황이 이런 목회와 설교를 토착화시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김영민은 우리의 7,80년대를 가리켜 <돌진근대주의>라고 부르더군요. 그 단어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딱!"입니다. 이런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설교가 7,80년대에 조용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86 세대의 목사로서 가장 잘 나가는 삼일교회의 전병욱 목사가 세련된 모습으로 이런 길을 가고 있으며, 이것이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로 구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설교는 아주 쉬워지고,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청중들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멋있게 포장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가지 요소가 모두 비기독교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죄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구나 청교도적인 죄의식은 절대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파렴치한 행위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자기집착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만(휘브리스)이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사랑(아모르 수이)입니다. 인간은 늘 이렇게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사실 교회활동도 많은 부분에서 자기 욕망이고 자기 집착입니다. 따라서 죄문제는 청교도

적인 도덕성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심원한 차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공주의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비기독교적입니다. 최근에는 청부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가능할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청부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깨끗한 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공주의는 예수의 십자가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팔복의 말씀과도 완전히 대립합니다. 그런대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신화를 신자들에게 바겐세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3. 설교의 지평 넓히기

저는 <그말씀>에 게재한 글에서 설교를 쉽게 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렵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달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라서 요령껏 해야겠지만 그 내용만큼은 어렵게 해야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설교는 시인이 시작(詩作)이나 작가의 소설쓰기처럼, 그리고 화가의 그리기처럼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설교되어야 할 복음을 이미 완료된 상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재주껏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복음은 완료된 상품이 아니라 여전히 진리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생기(生起, Ereignis)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연히 압니까? 부활을 압니까? 종말을 압니까? 구원을 압니까? 생

명을 아나요? 존재를 아나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부활과 구원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 그릇은 성서입니다. 이것은 곧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가 담겨 있는 성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설교자들의 운명은 참으로 고된 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설교자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한다는 당위와 전할 수 없다는 불가능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하는데,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해야한다는 모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계선에 선 설교자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대도 설교를 쉽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돌팔이 약장사이거나 보험외판원이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약장사가 판을 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어렵게 하자고 주장한 것은 청중들의 요구와 무조건 동떨어진 고도의 신학이론을 설파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청중들의 삶과 분리된 이론과 사상은 아무리 고상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리얼리티를 확보한 설교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설교의 지평을 개그맨들 수준이나 뽕짝 노래나 공연한 감상주의에 젖어버리는 연속 드라마에 머물지 말고 좀더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서 해석학의 작업입니다. 대개의 설교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 매몰되어 있거나, 비교적 성실한 설교는 성서를 주석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이런 주석이 설교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석에만 머무르지 말고 해석에 까지 나아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서주석과 성서해석이 어떻게 다

른 것인지 잠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과 삶>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의 후반 부분을 여기에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설교가 정작 성서와 기독교 전통이 말하는 근본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의 원자료라할 성서를 주석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자신이 선택한 본문을 충분히 읽고 주석집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설교를 작성한다. 이들은 대개가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흡사 수능시험을 앞에 둔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듯이 성서를 공부한다. 머리가 좋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듯이 설교 능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기울인 설교자는 그만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나름의 수사학을 이용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달리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이야기를 찾아나간다. 원래 해석학(헤르메노이틱)이라는 원어가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에서 유래했는데,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이다. 신의 뜻은 숨겨져 있다. 헤르메스는 인간이 모르는 신의 이야기를 인간이 알아들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설교가 해석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사건을 선취적으로 해명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예언이며, 그것이 곧 진리의 능력이다.

사실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다. 과학 선생은 이미 나와있는 과학이론을 가르칠 뿐이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아직 모르는 과학의 세계를 연구한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구에게 배우거나 누구를 가르치지 않고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 세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지 않고 연주자가 들어간 것만큼만 열기 때문에, 그 음악의 세계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음악교육은 늘 이런 기술에만 머물러 있다. 사실 설교도 이런 수준에서 한걸음도 앞서지 못했다.

한국 교회의 설교는 아예 주석도 없이 자기의 종교경험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정보차원의 성서주석에 치우쳐 있다. 전자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사이버성이 강하며, 후자는 진지하기는 하지만 진부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설교의 지평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착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때까지 잠정적이며 유한한 역사 내의 모든 것들은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듯 설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해석학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이런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훈련은 별난 게 결코 아닙니다. 삶의 기초에 대한 공부가 그것입니다. 이 삶의 기초에 대한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이 인문학을 대표합니다만 반드시 이런 종류의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삶의 문제와 연관된 제반 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의 생명(삶)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학도 인문학이고 법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 그 삶에

대한 공부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만 설교자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문학적 공부의 기초는 최소한 신학교 다닐 때 탄탄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거의 전무합니다. 단지 교회 운영을 잘하는 기술자를 양산해내는 직업학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을 보면 다양하기는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같은 고전어로부터 시작해서, 성서원전 강독, 교리사와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 그 이외에서 기독교 교육이나 실천 과목을 배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에서는 고도의 학문성과 깊은 영성을 소유한 학생들을 배출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학문성과 영성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아니올시다"입니다. 저의 신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이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신학다운 신학을 공부하지도 못하고 참된 영성도 갖추지 못한채 단순히 목회기술의 초보자로서 졸업하고 맙니다. 이런 상태로 졸업한 다음에, 아주 살벌하고 비인간적인 목회 현장에 투입되니까 이것으로 신학과 영성은 끝입니다. 실제로 현장 목회자에게 신학과 영성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철저히 시장원리에 지배받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종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켜야만 목회와 설교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데, 현실은 사실상 막막합니다. 이런 마당에 인문학적 공부는 씨도 먹히지 않겠지요.

우리에게 전문적인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생물학자나 철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문학에서 정리되어야 할 모든 공부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생명, 죽음, 존재, 시간, 고통, 소외, 자유, 해방, 진리 등등. 이런 개념들에 대한 공부와 인식이 깊어질수록 설교의 깊이는 정비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학문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존재와 시간이 무엇인지는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여건상 그런 깊이에게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면, 시간이 없거나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런 깊이가 있다는 사실만 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뚱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자는 성서라는 악보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의 능력에 따라서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 성서라는 악보에 있는대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부른 노래를 대단한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묵회와 설교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일어납니다.

맺는 말

예수의 설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료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지성과 종교적 경험으로도 파악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쳐두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마 16:11).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9, 7:14, 눅 14:35).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막 4:13).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눅 18:34). 구약에서도 역시 진실한 예언자의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지 못했습니다만, 거꾸로 대중들의 귀에 솔깃한 예언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중이 모이는가 하는 것을 잣대로 설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의 핵심은 설교자들이 대중추수주의에 근거해서 늘 쉬운 설교를 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결국 설교의 지평이 나무나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드러나야 할 계시의 말씀을 찾아서 전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설교의 지평은 확대됩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와 그 설교 행위자의 길은 자동차 세일즈맨의 상술이 아니라 도(道可道 非常道)에 이르려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대중추수주의를 넘어서!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요령있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전형을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교회 강단에 내면화 되어 있는 복음의 대중추수주의(追隨主義)적 실용화와 그 가벼움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해보려고 한다. 각종 목회자 세미나에 설교학 강사로 나설 정도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몇몇 설교자들의 설교집과 설교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보겠다. 옥 아무개 목사의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1998, 이하 "우"로 약함), 김 아무개 목사의 <네 마음을 지키라>(1993, 이하 "네"로 약함), 이 아무개 목사의 "하나님께로부터"(기상 2002년 10월 호, 이하 "하"로 약함). 우선 한 두 마디 사전 양해를 구해야만 할 것 같다. 오늘의 이 문제 제기는 그분들의 모든 설교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로 출판되기 이전에 교회의 생생한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집만으로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어설픈 부분이 보이더라도 해량(海量)을 바란다.

우선 이 분들의 설교집을 읽고 난 느낌은 "참 쉽게 설교 하는구나"였다. 지식인들로부터 학문적이지 못한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이 전개되었다. 설교가 어쩔 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이런 단순 명료한 설교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매우 요령있는 설교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이런 설교 패턴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다.

첫째, 특수한 현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왜곡시키는 문제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이번 영주 집회 때 그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렸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만 시작하면 비가 멈추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서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이상 설교 중에 비가 멈추었다가 설교가 끝나는 순간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태풍과 비를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고도 주시고 하늘 문도 열어 주시고 닫아주십니다."(네, 235쪽). 이런 우연한 사건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비록 일반 청중들이 솔깃해 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전인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성서의 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행위를 사람들에게 알리신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우주의 별들이 운행을 멈추었다는 보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성서의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식론적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우주론적 능력으로 경험했다는 신앙고백이지 기도와 믿기만 하면 모든 초자연적이고 특이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성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인식해 나갔는지에 대한 보다 심원한 세계를 읽는 것이지,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신앙형태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아전인수적인 설교는 성서에 대한 알레고리칼한 해석과 깊

은 연관성이 있다. 김 아무개 목사의 <아이를 가리키라, 수 8:18:19>라는 설교는 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고대인들의 전쟁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을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설교는 가장 전형적인 알레고리칼한 성서 이해를 보여준다.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 성을 가리켰고, 그것으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아이 성을 가리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신문에 나온 부도덕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아이 성이라는 것이다. 이 설교 중간 부분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오늘의 하만 장군을 창대에 매달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참으로 편리하고 쉬운 설교 패턴이다(네, 37-47쪽).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면 별로 준비할 것도 없이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한 두 시간 기억나는대로 적당한 성구를 골라낸 다음, 그것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풀어내기만 된다.

둘째, 복음의 지나친 실용주의적 적용

복음의 실용화는 아마 미국의 가벼운 실용주의적 가치관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인 것 같다. 아래는 이 아무개 목사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다.

한 가정 주부가 쓴 아름다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딸꾹질을 몇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트림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토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변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만 먹는데 소화까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손톱을 깎아줍니다. 이 작고 여린 손가락, 다치거나 피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주부는 아이의 트림 속에서, 아이의 딸꾹질 속에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을 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뵈고 느끼며 사는 이분의 매일이 새날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하, 107쪽).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도구화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설교를 신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장군, 의사 등,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자주 거론하는 김 아무개 목사의 아래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치과 병원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금년에 첫날 번 수입을 몽땅 선교비로 드립니다' 하고 갖고 왔습니다. 백 몇 십 만원을 그대로, 하루의 수입 모두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선교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는 못 될지라도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루 수입만 가지고도 선교사가 한달 쓸 수 있는 비용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네, 21쪽).

김 목사는 곧 이어서 선교사로 나서려고 애를 쓴다는 내과 원장 이야기를 또 다시 한다. 6.3빌딩과 햇불회관에 얹힌 최 아무개 장로와

어릴 때부터 헌금을 열심히 드려서 자신과 후손이 축복을 받았다는 록펠러 이야기가 있으며(네, 246쪽), 성경요절을 1,700개나 외운다는 군의관 이야기도 나온다(네, 256쪽). 반면에 가난하게 사는 것을 신앙이 없는 결과로 간주한다. "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렸습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문맹률은 80%가 넘습니다."(네, 80쪽).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종교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믿음이 좋으면 잘 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되는데, 이런 해석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독교 정신에 적합하지도 않다. 참고적으로, 요즘 기독교계에 '청부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논의도 역시 복음을 지나치게 실용적인 도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편향된 인간론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이 인간을 죄라는 구조 속에서만 바라보고 건강부회식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독교의 인간론과 구원론에서 죄론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설교와 목회 현장에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죄 문제가 상위 개념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청중들을 죄의식에 몰아넣는 형국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신자들의 신앙의식을 깊이 들여야 보면 이런 현상은 아주 손쉽게 드러난다. 새벽기도회에 빠졌다는 죄책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 성수주일에 못했다는 불안감이 신자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설교는 신자들의 이런 약점을 직간접으로 자극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 이렇듯 교회 안에 있는 심리적 불안을 프

로이트는 "집단적 노이로제"라고 비판했으며, 그에 앞서 니체는 훨씬 치밀하게 이런 도덕주의적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왜곡된 인간론에 근거한 설교로 인해서 결국 복음의 실질적 능력이 손상받고 있다.

이런 유형의 설교는 빌리 그레함의 영향이 크다. 물론 한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런 근본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도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매우 중요한 케리그마의 구성요소로 강조한 탓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소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된 7,80년대에 빌리 그레함이 소위 "탕자의 비유" 류의 설교를 한국에 이식시킴으로써 그것이 거의 복음의 본질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에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의 설교나 묵회는 7,80년대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러한 죄의식의 강조가 그 역반응으로서 설교 안에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이 지나치게 역설된다는 점이다. 약간 지성적인 교회에서,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세련된 윤리적 설교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옥 아무개 목사의 설교집 제목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는 주장은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며 자기 성취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힘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

고 실제로도 우리에게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허위의식이 빠지게 된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철저부심해서 그런 위장된 본을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인이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 자체만 보면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면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고 인간적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독교인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밑바탕에 죄의식이 깔려 있고, 그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모범을 보이며, 그런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만족에 빠져버린다.

넷째, 천박한 시대정신과의 결합

오늘 설교와 목회의 성공신화 부추기기는 거의 한도를 넘어버린 상태이다. 소위 뜨고있는 설교자들의 설교 특징이라 할 이 성공신화는 로버트 솔러 목사의 영향이 크다. 내가 신학생일 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로버트 솔러 목사의 "불가능은 없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종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천신학 교수들은 왜 이런 책을 추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흡사 공격적 마케팅을 주장하는 기업들의 상업주의와 똑같이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못할 게 없다는 식의 목회와 설교였다. 어떤 면에서 군사독재 시절이라는 한국의 상황이 이런 목회와 설교를 토착화시킨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일장신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김영민은 우리의 7,80년대를 가리켜 <돌진근대주의>라고 정의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설교가 대표적으로 7,80년대 여의도의 조 아무개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세

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재미있긴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세속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여기에는 약간 다른 각도이지만 바로 앞에서 언급된 상당히 세련된 윤리적 설교도 포함된다.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설교는 일견 매우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행위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대정신과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 아무개 목사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시간은 인생이고 인생은 곧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의 객체가 되느냐 아니면 주체가 되느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1994년을 정녕 새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변함없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다가오는 새해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 흐름의 주체가 된 1994년은 또다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1994년 속으로 뛰어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흐름의 주체가 된 나는 객체인 시간을 새 시간, 새해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하, 100).

이 얼마나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인 생각인가? 이 목사는 서양근대주의의 <주객도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인 시간마저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만만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고 부추겨주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착각한다. 인간이 시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진작에 어떤 의도를 포기하고 <솔라 그라티아>에 의존해서 살

아가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은 우리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소위 <아이 캔 두 잇> 이념을 기독교 신앙으로 변호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의식 속에는 인간중심주의, 업적주의, 자기만족주의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설교는 비록 종교적인 단어를 나열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성취해야할 도덕성, 사회봉사,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세속적이다.

여섯째, 성서주석이 결여된 설교

많은 설교에서 설교하는 그 사람의 말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은 없다. 물론 설교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설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성구를 줄줄이 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일 뿐이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거리만 찾아 헤맨다는 말이다. 내가 앞에서 이분들의 설교를 읽으면서 "쉽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가혹하게 말해서 그분들의 설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뜻이다. 입담 좋은 어느 유명 강사의 교양강좌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옥 아무개 목사의 <정직한 의인, 잠 11:10-11>이라는 설교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신문에 나올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 때 있었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내사해보니까 부정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그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중간쯤에 본문을 한번 읽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삶을 통해서도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정상이라고 강조한다(우, 38쪽).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다시 대

통령(김영삼?)의 개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몇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들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중고등학교 교장의 훈화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설교자들이 말씀의 깊이(주석)에 천착하지 않고 이렇듯 듣기 쉬운 교양강좌 수준에 맞추고 있는 이유는 세계, 인간,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추수주의가 설교행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교의 지평 넓히기

설교가 대중추수주의에 빠져든 이 운명은 설교에 대한 착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데에 있다. 설교는 시인의 시작(詩作)이나 작가의 소설쓰기처럼, 그리고 화가의 그리기처럼 창조적인 작업, 즉 여전히 진리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생기(生起, Ereignis)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파는 세일즈 기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확연히 아는가? 부활과 종말을 알고 있나? 구원과 생명을 아나? 더욱이 우리는 존재를 실증적으로 인식하고 있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부활과 구원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인 성서를 갖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가 담겨 있는 성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설교자들의 운명은 이런 점에서 참으로 고된 길에 놓여있다.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하는데,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말이다. 이 경계선에서 설교자는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구도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설교학이 어떻게 청중들이 알아듣기 좋게 전달해야만 하는가라는 방법

론에만 빠져버렸다는 이 현실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방법론이 아니라 설교의 지평을 심화시켜나가자고 말이다.

성서주석에서 해석으로

설교의 지평을 넓히자는 말은 청중들의 요구와 무조건 동떨어진 고도의 신학이론을 설파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청중들의 삶과 분리된 체계와 사상은 아무리 고상해도 별 의미가 없다. 삶의 리얼리티를 확보한 설교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설교의 지평을 티브이에서 늘 대하는 개그나 뽕짝 노래나 통속 드라마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더 깊이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그 작업이 바로 성서 해석학이다. 대개의 설교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 매몰되어 있거나, 비교적 성실한 설교는 성서를 주석한다. 앞서 말한대로 이런 주석이 설교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제로 삼아야 할 설교는 주석에서 끝나지 않고 해석에까지 나가야 한다. 나는 이 문제를 <말씀과 삶> 2월호에서 언급했는데, 그 내용의 후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이야기를 찾아나간다. 원래 해석학(헤르메노이틱)이라는 원어가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에서 유래했는데, 헤르메스는 숨겨져 있는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이다. 이 헤르메스는 인간이 모르는 신의 이야기를 인간이 알아들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설교가 해석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사건을 선취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예언이며, 그것이 곧 진리의 능력이다.

<중략>

한국 교회의 설교는 아예 주석도 없이 자기의 종교경험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정보차원의 성서주석에 치우쳐 있다. 전자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사이버성이 강하며, 후자는 진지하기는 하지만 진부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설교의 지평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착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때까지 잠정적이며 유한한 역사 내의 모든 것들은 해석되어야 한다.

인문학 공부

이렇듯 설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해석학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설교자가 실제로 이런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은 별난 게 결코 아니다. 삶의 기초에 대한 공부가 그것이다. 이 삶의 기초에 대한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을 대표적인 인문학 분과로 간주하지만, 반드시 이런 종류의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삶의 문제와 연관된 제반 공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의 생명(삶)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학이나 법학도 역시 인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 그 삶에 대한 공부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만 설교자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철학자나 역사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문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부의 근

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생명, 죽음, 존재, 시간, 고통, 소외, 자유, 해방, 진리 등등. 이런 개념들에 대한 공부와 인식이 깊어질수록 설교의 깊이는 정비례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수행으로서의 설교행위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의 핵심은 설교자들이 대중추수주의에 근거해서 늘 인기를 끌어야겠다는, 그래서 결국 설교를 쉽게 해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짐으로써 설교의 지평이 지나치게 가벼워졌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었다. 설교방식은 쉬워야 되지만 그 내용은 어려워(깊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엄연한 사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바리새인은 제쳐두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눅 18:34). 구약에서도 역시 진실한 예언자의 설교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거꾸로 대중들의 귀에 솔깃한 예언은 인기를 많이 끌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그럴듯하게 포장만 할게 아니라 아직은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드러나야 할 계시의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설교의 바른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설교의 깊이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설교자의 이런 길은 자동차 세일즈맨의 상술이 아니라 도(道可道 非常道)에 이르려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강단과 남북통일문제

남북통일 문제는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오래 전부터 매우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크게 볼 때 통일신학의 이론 수립과 통일 실천운동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이는 박순경 교수이며, 후자는 대표하는 이는 고 문익환 목사이다. 어디 이 두 분뿐이겠는가.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꾸준히 통일문제에 천착해왔다. <기독교사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면 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군사독재 시절부터 조그련(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측과의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남북 기독교의 관계를 신장시켰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상당히 상충되는 대북관을 가진 한기총마저 조그련과 관계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이니, 오늘 한국교회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1990년대에 일어난 현실사회주의 붕괴로 인해서 남한 기독교인들의 레드 콤플렉스가 일정 부분 희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소련의 연방 해체에 따른 북한의 고립과 경제적 몰락,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한 북한주민의 극심한 고통은 남한 교회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다. 자세한 통계를 조사하지 못했지만 지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북한주민을 경제적으로 돕는 손길 중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회의 손길이 가장 컸을 것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꾸준히 북한 주민을 도운 교회의 힘들이 남북교회의 관계 개선을 가져올 정도로 축적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간접

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남한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남북한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여한 북한 응원단들의 인기가 그 당시 속된 말로 짱(?)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남북통일문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총체적인 동력을 얻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핵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의 일부는 특하면 반(反)핵, 반(反)김정일, 반북을 이슈로 서울 시청 앞에서 정치 색깔이 짙은 대중 집회를 때로는 기독교 단독으로, 때로는 극우보수 단체와 어울려서 개최했다.

이런 대중 집회는 한국사회가 기독교의 실체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했다. 기독교는 반통일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목회자 세습, 교회 분열,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들을 위한 법개정 반대, 사학법 재개정 등, 욕먹을 일이 많은데 남북통일 문제에서도 우리는 욕먹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지난날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벌여놓은 원금을 모조리 까먹고 있는 중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도나간다면 한민족이 기독교를 외면할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외면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고 달게 받아야겠지만, 일종의 반역사적인 고집을 부리다가 외면받는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요즘 한국교회가 통일문제 앞에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강하게 액션을 취하는 반면에 통일지향적인 분들은 목소리를 낮춘다는 데에 놓여 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뚜렷한 관점이 없는 층도 두텁다. 어떤 집단이나 매파들의 목소

리가 큰 법이다. 필자의 생각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의 기독교 인들은 전반적으로 반통일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어쨌든지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한국교회는 극단의 냉전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어두운 터널을 거의 빠져나오는 길목에 도달한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어보이듯이 문제는 극단주의자들의 과격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뿐이다. 특히 강단의 횡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교자들의 무분별한 설교로 인해서 한국사회에서 한국기독교가 자칫 반통일집단으로 양파 당할까 염려스럽다. 그런 설교가 우리 주변에 전방위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몇 대목만 살펴보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나라의 형편이 월남이 망할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도 틀림없이 적화통일 되고 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거나 보트피플이 되고 말 것입니다.”(2006년 10월22일) 이런 진술에서 우리는 북한을 향한 김 목사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은 남한 정권을 향해서도 똑같은 크기로 작동된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요직에 북한의 간첩과 친북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빨갱이들이 차고앉아서”(2006년 10월15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총신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대구동신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며, 평소에 기독교 영성에 깊이 천착하는 설교자로 이름이 난 권성수 목사도 북한 문제에서만은 설교자가 지녀야 할 평상심을 쉽게 잃는다. 그는 작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행한 설교에서 북한 정권을 강패, 강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일과의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자신은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금강산 여행을

안 간다면, 남한 주민의 안보불감증을 도덕적 해이와 연결시키고 있었다.(2006년 10월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의 한 곳인 새문안교회 담임으로 활동하는 이수영 목사의 설교에서도 반통일적 발언들이 양산된다. 이 목사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현저한 하나님의 반대자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이론 바탕 자체가 무신론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켰습니다.”(2004년 3월21일) 북한을 향한 그의 적개심은 김홍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을 향해서 그대로 발산된다.

수백만 명의 동족을 희생시켰으면서도 쉬지 않고 대남투쟁을 선동해온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며 6.25북침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아무리 나돌아도 태연하게 내버려두는 정권입니다. 김정일과 그 도당들만 좋아하며 웃고 있을 일들을 골라서 해온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김정일의 뜻대로 통일되는 길을 착실히 닦아온 최근 두 정권이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이미 친 김정일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떠돌고 있고 현 정권은 모른 척 묵인하고 있는 구호인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을 대통령으로 하는 평화통일”안을 국민 앞에 내미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2004년 9월12일).

필자는 교회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험악한 사태가 야기되는 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전쟁을 비롯한 해방 이후의 한반도 역사에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상극으로 대립

했다는 사실이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던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서 기독교가 초토화되었으며, 소위 인민재판의 방식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북한을 향한 적대감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중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극단 대립으로 인해서 벌어진 살육사건을 <손님>이라는 작품에 담아낸 황석영은 ‘작가의 말’에서 “기독교와 맑스주의는 식민지와 분단을 거쳐 오는 동안에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지니게 된 모더니티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독교나 맑스주의 모두 한민족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의 북한 체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국제역학적인 문제들과 반복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북한 정권의 비효율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은 여전하며,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고분고분한 적이 별로 없다. 국제사회도 분명히 북한 체제를 고운 눈길로 보지 않는다.

필자는 북한을 향해 공격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들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민족적(주체적)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백기 들고 나서라고 으박지른다거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념을 뛰어넘어 케리 그마에 토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할 주일공동예배 강단에서 현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정치 공학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와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적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가장 진본적인 교회로 알려진 향린교회의 조현정 목사는 한민족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평화통일이 되지 못하는 이

유가 미국이라고, 더 정확하게는 주한미군이라고 여긴다. 졸고 “값싼 은혜, 무거운 은혜”에 대한 반론에서 조 목사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필자는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24년의 미국에서의 소수자의 경험을 통해 민족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이 역사인식에서 오늘 한국 민족의 최대 과제는 평화통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단사고의 극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 극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미군주둔이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 (기독교사상 2007년 6월호)

평화통일이 한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은 필자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라는 주장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국제정치에서 아마추어인 목사가 따라잡기에는 훨씬 복잡한 사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의 논리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 목사 역시 북한과 공산주의를 무조건 악으로 봄으로써 평화통일의 물길을 더디게 만드는 보수 우익의 설교자들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하듯이 말이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구별되는 분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에게서도 북한 문제는 경솔하게 다루어지는 일이 흔하다. 예컨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친미 사대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의 설교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이들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경향성에서는 오십보백보다. 그는 설교시간에 이렇게 북한을 조롱한다.

그러나 이상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꼭 저 복한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비비 꼬아가지고 도움을 얻어내려고 한 단 말이지요. 이 잘못된 공산주의 철학이 사람들의 윤리와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결론이에요. <중략> 첫째는 뭐냐 하면 I'm sorry가 없다는 것,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I'm sorry, 또 하나는 들어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없다는 것, 그러나 미국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자주 이 소리를 합니까? I'm sorry, I'm sorry. 자기가 발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밟히고 나서도 밟히는 사람이 I'm sorry 그 래요. 한국 사람들은 밟아놓고도 I'm sorry를 안 해요. 그러니까 I'm sorry, 그리고 Thank you, 기독교 문화가 준 그 영향입니다.(마리아 찬가 1, 2000. 12.17일자 설교).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입장도 역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1994년 7월4일부터 8일까지 삼일교회에서 제주 선교를 떠났다. 마지막 날 저녁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한라산 기도원 정산에서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위한 철야 산기도가 있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김일성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서라도 민족의 장벽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랐다. 그 철야기도가 있는 날 김일성이 죽은 것이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자신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것을 확신하다.(낙타무릎, 182 쪽. 2006년 7월2일 설교)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은 분명히 불량국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60년 가까이 분단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통

일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통일문제와 연관해서 세 종류의 설교자들을 제시했다. 첫째는 북한을 향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통일을 가로 막는 설교자들, 둘째는 평화통일의 장애 원인을 주한미군에 돌림으로써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설교자들, 셋째는 통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통일적인 발언을 행하는 설교자들이 그들이다. 남북문제와 연관된 설교를 모두 이 세 유형으로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윤곽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이들에게서 기독교적 통일신학, 더 정확하게는 통일 영성은 가능하지 않다. 첫째 부류는 근본적으로 반통일적인 신념으로 묶여 있으며, 둘째 부류는 가장 통일 지향적이기는 하나 비현실적이며, 셋째 부류는 성서의 평화신학에 관한 뚜렷한 시각 없이 단지 신자유주의적 시류에 영합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적으로 네 번째 부류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은 통일 지향성이 분명하며,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하고, 시류를 넘어서는 복음적 역동성을 확보한 이들이어야 할 것이다. <성서한국>이 바로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을는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서한국>이 분단된 한민족의 이 답답한 현대역사를 복음의 역사 변혁적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겨레 21>에 게재했던 줄고 “설교인가, 선동인가?”의 마지막 대목을 이 글의 결론으로 삼겠다.

북한정권에 대한 기독교의 체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하더라도 이제 전쟁이 끝난 지도 50 여년이(희년) 지났고, 공산주의 이념도 퇴색해버린 이 마당에 여전히 1960~70년대의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우

리 설교자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외면하고, 지나간 험악한 시절에 받은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임상 치료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교회에 절망하지 않는다. 적개심과 분노에 가득한 설교보다는, 드러나지 않지만 한민족의 평화와 상생을 지향하는 설교가 훨씬 많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목소리가 밤꾀꼬리 노래처럼 여리다하더라도 언젠가 천둥처럼 큰 함성으로 울려나지 않겠는가!

부록- 설교 비평 (아래의 설교 비평 원고는 2000년 중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관지인 <활천> 지의 원고 청탁을 받아 기고한 글이다. 모두 성결교회 목사들이다. 해당 목사들이 지금 2022년에도 그곳 교회에서 설교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모성적 영성의 원초적 힘

-장충단교회 박순영 목사-

모성적 에너지

며칠 전 필자는 장충단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순영 목사님(이하 ‘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옆에서 기웃거리던 아내가 대뜸 이렇게 말한다. “당신 설교와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대학생인 큰 딸도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필자가 이번에 박 목사의 설교를 대하면서 마음이 편안했다는 걸 봐도 그네들의 느낌이 옳은 것 같다. 마음 편히 귀를 기울이고 싶은 설교자를 만난다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 박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을 끌어당긴 이유는 무엇일까?

박 목사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영적인 고향의 향수에 젖게 한다. 아련하고 포근하게 회상되는 어린 시절의 그런 향수를 그의 설교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설교 내용도 그렇고, 전달 방식도 역시 그렇다. 이런 설교는 신자의 영혼을 깊숙한 곳에서 부드럽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마련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설교는 당연히 청중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라고 말이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청중들을 공격하는 설교도 있고, 선동하는 설교도 적지 않다. 박 목사는 공격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먼 설교자이다. 아마 그의 영혼이 부드러운 까닭이리라. 부드러운 영혼에서 울려나는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 작은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박 목사만의 이런 힘을 필자는 ‘모성적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싶다. 무절제한 사랑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 절제된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이 박 목사의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만든 것 같다. 실제로 어머니에 관한 추억이 박 목사의 설교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박 목사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혼날 짓을 저지른 그가 아침에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고 쫓겨난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혼자 돌아다니다가 몰래 집에 들어와 헛간에 숨어서 잠이 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박 목사를 찾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헛간에 잠들어 있는 박 목사를 찾아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박 목사를 그 당시 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다른 말씀 일절 하지 않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었다고 한다. 박 목사는 7월31일 설교 “늦은 비와 같이”(호 6:1-3)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반찬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먹고 났으니 때리겠지? 그런데 매를 맞는지 야단을 맞는지 그건 고사하고 졸음이 몰려오는데 밥숟가락 놓자마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하룻밤을 정신없이 폭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그 이튿날도 “어디 갔다 왔니? 왜

집을 나갔니? 왜 밤중까지 있었니?”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뒤로 한 번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다.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기억이 박 목사의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의 기를 꺾는 말을 하지 않는다.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이지 의도적으로 그를 허물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박 목사는 어머니에게서 유산으로 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인되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박 목사가 두루뭉술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며, 역사의식도 투철하고, 인문학적 사유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의 설교를 미루어 보건데 책임기의 폭과 깊이가 상당하다. 그의 글쓰기는 이미 전문가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목사의 설교에서 뿜어 나오는 부드러움은 유약함이나 미숙함과 전혀 다른 차원, 즉 모성적 영성의 원초적 힘이다.

설교의 세 가지 원칙

가부장적 목사 상에 익숙한 신자들은 박 목사가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박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적확(的確)한 표현,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진 말이나 거친 음성을 선택하지 않을 뿐, 바르게 하고 고치려는 책망과 권고가 많이 담겨있습니다.(장충단교회 홈페이지, 담임목사와의 질의응답 꼭지에서).

위에서 박 목사가 제시한 설교의 세 가지 원칙은 모성적 영성에 기초한 설교의 진수이다. 첫째는 ‘적확한 표현’이다. 설교의 정확한 표현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전달방식을 말한다. 박 목사의 설교는 신학적(교리적)으로 결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를 거치는 개신교 신학의 전통이 그의 설교에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전달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설교에는 온화한 표정, 부드러운 음성, 정확한 구음이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는 아름다운 언어이다. 수필가요, 시인인 박 목사의 글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좀 진부한 것 같고, 따뜻하다고 말해야겠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박 목사가 저녁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변산반도 근처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이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다. 한번 놀러오라고 초청을 받긴 했지만 못간 게 두고두고 아쉽다. 그때 박 목사로부터 수필집을 한권 선물로 받았다. 새파랗게 젊은 시절이었지만 이미 인생의 연륜이 층층이 쌓인 사람처럼 담담하게 목회, 아내와 아이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그 수필집을 받아들이고, 필자는 한동안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변산반도가 딱 좋은 곳인데, 아쉽게도 박 목사는 지금 남산을 올려다보는 서울의 중심에 터를

잡으셨다.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이야 어디 가겠는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명제가 옳다면 지금도 박 목사는 여전히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신앙을 형상화하는 일에 천착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 흔적들이 박 목사의 설교와 칼럼에 그대로 배어 있다.

셋째는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사랑의 마음은 인간의 주관에서 발현하는 낭만이나 감상도 아니며, 자기도취나 도덕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의 마음은 곧 박 목사가 신자들을 목회의 수단으로 도구화하지 않겠다는 신앙고백이다. 신자들은 목회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할 목적이다. 그래서 그는 청중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잘못된 아들에게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준 어머니처럼 그는 오래 참고, 감싸는 설교를 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한다는 건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신자들을 대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주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의 중심을 헤아리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말이다.

설교행위와 설교자의 실존

필자가 보기에 박 목사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 아들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모성적 영성에 근거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살필 줄 안다. 이견 상처난 영혼을 치유해야 할 목사, 또는 설교자로서 아주 값진 은사다. 박 목사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부터 소외된 분들의 중심을 헤아리는 목회를 했다. 일가친척 하나 없는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거나,

성락원 방문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9월18일, 향기로운 사람). 지금 필자는 박 목사의 목회 전반을 검토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접어두겠다. 설교자로서 박 목사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우리 논의의 중심이다. 박 목사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과시나 자기 권위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설명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박 목사의 진솔한 자기고백을 들어보자.

저는 이번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펜을 옮기면서, 앉으나 일어서나 몇 번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찾아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수년 동안 계속되니까, 혹시 아는 선교사가 전화하면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십시오.” 그러면 귀찮아 졌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았습시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혹시 만나자고 하면 가능한 핑계를 대고 안 만났으면 했습니다. 많이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도 지금 미자립 개척 교회를 돕는 일도 힘에 겨운데 더 이상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선교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인색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가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8월7일, 복음이 이르매).

그는 도움을 청하러 온 개척교회 교역자와 오지의 선교사들을 만

나는 게 좀 귀찮았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털어놓는다. 무작정 도울 수 없다는 현실론에 안주하던 자기를 책망하면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경험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내면에서 솟아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설교행위가 거의 기술공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설교 현장에서 박 목사처럼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로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설교 행위와 설교자의 실존이 일치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될까?

다시 강조하거니와 박 목사는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슬픈 감정 자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며, 개혁적인 사람이며, 역사를 보는 눈은 냉정한 사람이다. 예컨대 ‘할렐루야!’라는 인사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공동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뜻으로 할렐루야를 함께 외치는 건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한다. 그것보다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우리의 인사법이 오히려 신앙적이라는 것이다. 성서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샬롬’이라는 적합한 용어를 제시했다(10월23일,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 필자도 동의한다. 요즘 초대형교회들이 앞다퉈 세우고 있는 지성전 문제도 정확하게 짚었다(10월30일, 계속되는 개혁). 박 목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뚫고 나갈 줄 아는 개혁적인 설교자이다.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의 이름인데, 488년 전에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488년 동안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진정한 개신교회입니다.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끝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이라야 진정한 개혁입니다(계속되는 개혁).

이번에 평자는 박 목사의 설교를 읽으면서 번득이는 신학적 경구를 여럿 발견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위의 인용구이다. “488년 전에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488년 동안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진정한 개신 교회입니다.” 신학적 기초와 목회자의 열정과 시인의 영감이 동시에 작용함으로 이런 참신한 경구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성결 교회의 개혁을 위한 박 목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박순영이라는 한 인격체 안에 부드러움과 강함이, 싸멤과 뜯어냄이, 전통과 개혁이,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서로 상이한 속성이 일치하고 있다는 건 인격이나 지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성의 문제이다. 즉 이것은 인간이 연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험싸임을 당해야만 가능한 도(道)의 차원이다. 신앙의 심층에 놓여 있는 신비로운 길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발언해야 할 때를, 물러나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안다. 그런 판단이 선 사람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설교의 길을 간다. 박 목사는 그렇게 자기 설교를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설교자 중의 한 사람이다.

나열식 설교의 문제

이번에 박 목사의 설교를 대하면서 직접 설교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직접 듣는 건 큰 기쁨이지 않은가? 다른 한편으로 그의 설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건 근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옥에 티’이며, 또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와 나의 시각 차이일

지 모른다. 이런 궁금증은 물어두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선 그의 설교 구성이 거의 천편일률로 '나열식'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필자는 활천사로부터 박 목사가 금년에 설교한 16편의 설교를 건네받았는데, 대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몇 편만 예로 들자. “공동체 교회”(행 2:42-47, 4월3일)라는 설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2) 함께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3) 매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죄”(약 4:13-17, 6월19일)는 다음과 같다. 1)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죄입니다. 2) 허탄한 자랑은 죄입니다. 3) 알면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즐겁게 삽시다.”(전 9:7-10, 7월17일)는 전도서 기자가 가르치는 행복한 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1)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3) 힘써 일하십시오. 한 편만 더 확인해보자. “은혜와 감사”(눅 17:11-19, 11월6일)는 다음과 같다. 1)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2) 돌아온 한 사람 3) 감사하는 사람.

나머지 설교들도 거의 이런 구조였다. 청중들이 설교의 요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소주제의 나열일 것이다. 설교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이런 나열식 설교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성서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열식으로 설교를 구성해야 할 때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의 설교가 고착화하면 설교자 자신도 그렇지만 청중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나열식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자리에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는 없다.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짚자. 나열식 방식은 설교의 유기적 통전성을 놓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에서 예로 든 “공동체 교회”라는 설교를 보자. 박 목사는 우

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행 2:42-47)을 중심으로 세 가지 소주제를 나열했으며, 각각의 소주제를 매우 섬세한 시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설교로는 그 세 소주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 없다. 배움, 함께 함, 매력(칭송)이라는 각각의 소주제가 “공동체 교회”라는 한편의 설교에서 유기적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따로 논다는 말이다. 그런 현상을 굳이 좋게 말한다면, 그날 청중들은 세편의 설교를 들은 셈이다. 만약 설교자가 성서 텍스트의 깊이를 뚫고 들어갈 힘을 갖추고 있다면 첫 소주제로 제시된 ‘배우는 공동체’만으로도 완전한 한편의 설교를 꾸릴 수 있다.

이런 나열식 설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훈화방식과 닮은꼴이다. 그분들은 훈화시간에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소주제를 나열한다. 1) 부모님 말씀 잘 듣자. 2) 거짓말 하지 말자. 3) 친구와 싸우지 말자. 설교자는 하루빨리 이런 상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화문제

나열식 설교는 결국 창조적 설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곧 설교가 일종의 신앙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개연성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에 설교는 정보전달이 아니다.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힘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신자들을 모범생으로 키우는 데 설교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 자신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활동 앞으로 청중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열식 설교는 대개 신앙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물고 만다. 정보만으로는 창조적인 설교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화에 치중하게

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박 목사가 예화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설교자라고 생각한다.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박 목사의 예화는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 같은 감동을 준다. 그의 설교에 등장하는 예화가 다른 설교자들의 그것과 어떻게 변별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아마 또 하나의 새로운 글쓰기가 필요할 것 같다. 한 마디만 하자.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은 극단적인 예화를 침소봉대의 방식으로 전달한다. 한국교회 강단에 횡행하고 있는 예화의 선정성을 알만한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박 목사의 예화는 일상의 순수성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는 우리의 일상에 알알이 박혀 있는 보석들을 캐낼 줄 아는 영적 광부이며, 연금술사이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박 목사의 설교에도 역시 예화의 남용은 숨길 수 없다. “의미와 무의미”(부활주일)라는 설교에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 월드컵 축구 이야기가 중요한 예화로 등장한다. 성서 텍스트에 대한 깊은 해명보다는 이 세 가지 예화가 그 설교의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이외의 설교에도 전반적으로 예화의 빈도가 높고, 그 예화의 길이도 지나치게 길다. 오랫동안 설교 경험을 통해서 신자들이 성서 텍스트보다는 예화를 쉽게 알아듣는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예화의 과잉은 성서 텍스트의 위기이다. 일상에서 신앙의 깊이를 읽을 줄 아는 박 목사의 능력이 여기서는 오히려 텍스트의 은폐라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웨스트민스터 체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거의 예화 없이 설교한 목사였는데, 필자는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에 동의한다.

젊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가능한 예화 없이 설교하도록 하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마시라. 그걸 모른다면 그는

성서도 모르며, 기독교 신앙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득이 예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대로 간단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자들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예화집>에서 읽을 수 있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성서 텍스트의 지평으로!

위에서 언급한 나열식 설교와 예화의 과잉은 성서 텍스트의 지평이 심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현상이다. 깊이가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예화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박 목사가 설설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지금 박 목사의 설교에 깊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 일반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성서 해석학을 충분히 다룰 수는 없다. 대신 설교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성서 텍스트의 ‘지평’에 대해서 방향만 짚도록 하자.

독자들께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어렸을 때 읽은 것과 어른이 된 다음에 읽은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왜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어른이 된 다음에는 보이는 걸까? 텍스트 안에 지평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 소외, 두려움, 절망, 자유, 해방, 에로스, 파토스 등등, 이러한 삶의 현실들이 중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도 역시 텍스트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성서 텍스트는 훨씬 근원적이다. 인간의 실존적 경험 안에 내재적으로, 또는 그것 너머에 초월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에 대한 증언인 성서 텍스트는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를 그 지평으로 한다. 지나간 과거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 미래까지 포함하는 전체 시간의 지평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설교자는 성서에 대한 논리적 해명인 신학의 깊이를 총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것의 영적인 현실(spiritual reality)을 직관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비주의자이다. 신학과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청중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는 포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서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늘 변죽을 울리는데 머물고 말 것이다.

평자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다. 박 목사는 왜 하나님과 그의 구원 통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신자들의 신앙에 치중하는 설교를 할까?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설교는 곧 신자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성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의 신앙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앞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귀결(consequence)일 뿐이다. 따라서 설교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놓여야 한다.

그런데 박 목사의 설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오병이어’ 사건을 본문으로 한 박 목사의 설교를 보자. 박 목사는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아마 이 대목이 설교의 중심축일 것이다.

어린아이는 다 드렸습니다. 배고픔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도, 더 이상 나올 데도 없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것을 내놓

왔습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5월1일, 여기 한 아이가, 요 6:5-13)

오병이어 기적이 모든 것을 다 드린 어린아이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비약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목사는 성서 본문에 없는 이야기까지 끌어들인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접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접고 주님이 나눠 주라고 할 때, 그냥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나눠주라”는 말쑤는 박 목사가 선택한 요한복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등장한다. 더구나 공관복음에 보도되어 있는 이 말쑤도 박 목사의 해석과는 약간 다른 맥락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헌신이나 제자들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행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박 목사에게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서 텍스트의 지평으로 들어가려는 치열성이 부족하고, 대신 신자들의 신앙에 집중했다는 데에 있다.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을 설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전자는 설교의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이고 후자는 거기에 종속되는 변수일 뿐이다. 성서의 놀라운 세계를 선포하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가능한 신자들의 신앙적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통치에 집중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언급할만한 여유가 지금 우리에게 없다. 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다. 설교자는 재미로 바둑을 두는 아마추어 바둑 동호인이 아니라 끝없이 깊고

다양한 바둑의 길을 구도자처럼 찾아가는 프로 기사이다.

평자가 잘못 본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바란다. 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앞서의 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박 목사가 우리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도 훌륭한 설교자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 사적인 인사 한 마디 드리자.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 전, 제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갔다가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만사 제치고 나와서 밥을 사주셨지요? 혹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사겠습니다.” (활천, 2006년 2월호)

행복을 파는 행복한 설교자

-서초교회 김석년 목사-

설교의 여운

설교는 역시 글보다는 설교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그 맛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이번에 서초교회 김석년 목사님(이하 ‘김 목사’)의 설교를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의 손에 들어온 설교집 <하늘 꿈을 이루려는 사람아, 마태복음 강해 1, 2002년, 이하 ‘하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아, 마태복음 강해 2, 2002년, 이하 ‘세상’), <절망, 그러나 희망, 로마서 강해, 2004년, 이하 ‘희망’)과 이메일로 받은 설교 원고 14편을 읽었을 때의 느낌과 서초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 목사의 동영상 설교를 직접 접했을 때의 감동이 달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문자로는 불가능한 설교 현장의 역동성이 동영상에서는 여실히 전달되고 있었다. 김 목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필자가 보기에 글보다는 말에서, 컴퓨터 앞보다는 설교단에서, 서재보다는 예배당에서 김 목사의 진가가 돋보이는 것 같았다.

김 목사의 설교행위에서 글보다 말이 낫다고 해서 그의 설교문이 조잡하다거나, 거꾸로 그의 말이 현란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김 목사는 말을 씩 잘하는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의 설교가 전반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설교의 맥이 약간씩 끊기기도 했으며, 어떤 한 구석에 촛티(?)가 난다는 느낌도 지을 수 없었다. 한 마디로 김 목사는 한국의 설교 명망가들에

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세련미가 완벽하게 확보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런 설교 명망가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설교의 여운을 김 목사에게서 발견했다. 교연영색으로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며, 목사의 권위로 신자들을 주눅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별난 세상을 살고 있듯이 청중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도 아닌, 때로는 서툴게도 보이는 김 목사의 설교에서 풍기는 이 여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어느 시인의 노래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김 목사의 설교에서 김석년이라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게 대답이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표현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평범하게 김 목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는 진실, 성실, 지혜, 겸손 같은 의미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설교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더 나아가서 김 목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하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이다. 지금 필자는 어떤 한 사람의 인물평을 덕담 차원에서 늘어놓는 게 아니며, 더구나 김 목사의 인격과 신앙과 내면세계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김 목사의 설교행위에서 그 대목이 유난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 대목은 논리라기보다는 필자의 직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바꿔야겠다. 설교자로서 김 목사가 필자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비친 이유는 그가 청중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걸 그의 설교에서 발견했다는 데에 있다. 김 목사의 설교는 신자들이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서초교회의

여섯 비전 중에서 첫 번째가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세상 9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설교 전반은 바로 신자들의 행복에 토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행복의 문제가 그의 설교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한군데만 인용하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복의 길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하늘 240; 269, 395, 세상 27 참조).

설교자 치고 신자들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김 목사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 중심으로부터 그걸 바라는 설교자는 흔하지 않다. 서초교회 신자도 아닌 필자가 그의 설교를 읽고 들으면서, 속된 표현으로 기분 ‘짱’이었다고 한다면 더 긴말 필요 없는 게 아닐까. 이건 행복감을 느꼈다는 의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데, 김 목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라고 자처하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신앙’을 일구는 행복 프로듀서가 되려고 한다.(‘희망’ 앞표지 날개). 그래서 그런지 설교하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설교자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설교를 듣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1994년 6월5일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12명의 신자로 시작한 서초교회가 이제 천여 명의 교세로 비약

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게 우연만은 아니다.

실존적 삶의 깊이

설교자가 아무리 청중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깊이에서 체화되지 않으면 청중들의 영혼을 울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곧 설교의 진정성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 김 목사는 자기가 모르는, 혹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에서 충분히 소화된 것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그가 실존적인 차원에서 신자들과 영적인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낼 줄 안다는 의미이다. 이런 김 목사의 태도는 굳이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김 목사가 40대 중반의 택시 기사와 나누었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목사: 휴일에는 무얼 하고 지내세요?

기사: 산에도 가고, 낚시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목사: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사: 마다하지 않죠. 춤 방이나 노래방도 가고 기분 좋게 마시며 삽니다.

목사: 간혹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기사: 사실은 나도 나를 몰라 이러고 사는 것이죠.(하늘 401).

짧은 대화지만 이런 데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실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김 목사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목사는 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다. 마땅히 신앙적인 깊이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터놓고 물어보자. 교회 당회원들이 당회를 끝내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에 죽음과 하나님 나라와 계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셨는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공부는 정성껏 준비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창조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이 있을까? 목사들의 모임에서도 대개는 교회를 성장시킨 무용담이나 임지를 찾는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지 종말, 성령,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풍토는 아니다. 목사와 장로 가정에서는 이런 신앙적 주제들이 분명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지 일상에서 그런 주제들이 실종된 이유는 믿음의 내용들이 삶에서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이런 점에서 순진할 정도로 정직하게 일상과 신앙, 그리고 설교를 하나로 묶어내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필자가 보기에 김 목사의 이런 실존적인 깊이는 그가 실제로 겪었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게 아닐까 한다. 그의 지난 삶을 필자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설교 중에 얼핏 비친 내용만으로도 어려운 사연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감이 든다. 그는 16살 때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척추카리에스라는 병인데, “허리가 꼬추처럼 구부러지고 아파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모든 게 허사였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열여섯 살 나이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살려 주시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하늘 327). 다행히 수

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오늘까지 그런대로 건강하게 살았지만, 지금도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아프다고 한다.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김 목사는 몸으로 깨닫고 있으리라.

김 목사는 인생의 푸른 시절인 30대를 회색빛의 나라인 독일에서 보냈다. 모르긴 해도 그 당시에도 어려운 경험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신학공부, 아르바이트, 성경공부 지도나 목회, 집안 살림 도우미 등등, 마음고생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 고생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원래 성격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몸도 부실한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견뎌낸다는 건 보통 인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아니라 배타적인 게르만 단일 민족 국가인 독일에서 극동의 작은 나라 출신으로 생활한다는 건 그야말로 살벌한 생존투쟁과 다를 게 없다. 그의 설교에서 독일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자주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어쨌든지 김 목사는 젊었을 때의 고난을 통해서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삶의 깊이를 발견했으며, 그런 깊이에서 설교를 끌어가고 있다. 여기서 실존적 경험이 단지 철학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삶 자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고난과 고통을 뚫고 건져 올린 실존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존적 깊이는 삶을 들여다보는 방식이고, 겸손은 그런 삶의 표현방식이다. 이는 곧 김 목사가 실존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줄 알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겸손하게 끌어간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의 설교에는 이 겸손이 내재화하고 있다. 자신감 있게 외치는 중에서도,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중에서도 그 밑바탕에는 겸손이 깔려 있다. 김 목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파는 행복한 설교자라고 필자가 느끼게 된 건 바로 이것에 연유한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가 단순히 설교 잘하는 사람

을 흉내 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삶을 겸손한 자리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의 설교는 신자들의 영혼에 바이올린 현의 떨림 같은 공명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신앙의 파토스

실존적인 통찰과 겸손한 인격이 김 목사의 설교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라고 한다면 시골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알맞은 생김새와 달리 열정적으로 솟아나는 그의 신앙적 파토스는 든든한 기둥이다.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이 들어 있는 듯하다.

아! 저도 예수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불꽃으로 타오르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나의 테마는 사람이요, 나의 프로젝트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 자신을 불태우고자 합니다.(세상 68).

필자가 보기에 김 목사는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그의 파토스는 이 감수성에 연원하고 있다. 섬세한 감수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설교에는 시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윤동주, 도종환을 비롯해서 무명의 시인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예 그의 설교제목이 시처럼 나올 때도 많다. 2005년 1월16일의 설교는 “새소리를 들으며 작은 씨앗을 심어라.”였다. 필자가 선부른 예측 하나 하자. 김 목사는 은퇴하기 전에 시집을 한 권 낼 것이다. 삶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겸손한 인격으로 승화시킨 사람, 예수의 삶에 전율을 느끼는 사람이 시를 쓰

지 않는다면 누가 쓰겠는가.

이제 삶과 신앙과 설교, 그리고 목회의 연륜이 깊어진 탓인지 요즘 김 목사는 설교할 때 자주 눈물을 흘린다. 아마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겠지만 내면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마음대로 주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2005년 11월21일 “기도한대로 되어 질 것이오.”라는 설교 앞부분에서 여지없이 눈물을 보였다. 교회 건축이 힘들기 때문이거나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김 목사의 눈물에 담긴 진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의 전체 인격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감격이 현재적으로 가슴 벅찬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 진정성은 그가 다음과 같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 길이 고생이요, 사람이 보기엔 보잘 것 없을지라도 예수를 주로 믿고, 받은바 사명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완수하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묘비는 이렇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 누워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노라.’(하늘 379).

물론 웬만한 목사들도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김 목사는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시늉을 내는 게 아니다. 그의 가슴은 실제로 이런 정열로 불타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증명해보라고 필자에게 강요하지는 마시라. 이건 증명이 아니라 신뢰의 차원에 속한 문제이다.

그의 설교를 꼼꼼히 읽고 들은 사람으로서 그의 말에 사심이 없다는 그 신뢰가 바로 그의 이런 진술을 받아들이게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필자는 김 목사의 설교에 대한 논평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자가 실존적 깊이에서 겸손한 태도로 신앙적 파토스를 갖고 설교한다는 사실 이외에 우리가 한 설교자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무엇인가? 그러나 필자는 행복 지향적인 김 목사의 설교가 빛을 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을 짚지 않을 수 없다. 김 목사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청중과의 호흡을 매우 정교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언어구사의 순발력

김 목사의 신앙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결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보수적인 색깔을 보인다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 형식은 진보를 추구한다.(하늘 321). 진보라기보다는 현대적, 또는 과학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는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진보성, 현대성, 과학적 태도를 유지한다. 김 목사의 설교행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언어구사의 순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선 그는 종교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용어를 음미해보시라. 전술 바로 배우기(하늘 410), 예수 농도 100%(세상 62), 미성숙의 참화(희망 67), 제로 포인트(희망 97).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언어유희이다. ‘미인대칭’은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이라고 한다.(“상처, 별이 되라”). 영어를 통한 언어유희도 흔하게 등장한다.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something-nothing, nothing-everything”이라는 대구방식

의 영어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젊은 신자들의 생각 안으로 파고들 줄 안다. 대강절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래서 대강절은 이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불 꺼진 창문에 불을 밝히면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5W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With Jesus, With Holiness, With Family, With Neighbor, With Mission. (“사랑 때문에”)

필자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논술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글쓰는 요령을 가르치는 ‘족집게 과외선생’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성서의 메시지를 수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도록 정형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요점정리식 발언이 자주 나온다. “예배성공이 신앙성공이고, 신앙성공이 인생성공이다.”(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 2005년 7월3일 설교). “신앙생활의 행복은 세 가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평안을 누려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려라! 고난 중에 영광을 누려라!”(희망 119). 물론 이런 방식의 설교가 빠져들 함정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늘 사지선다 형의 객관식 문제에 길들어지듯이 신자들이 스스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목사로부터 대답을 바라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요점정리식의 신앙훈련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른 방향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중심이 잡혀 있고, 나름으로 개혁적이며, 역사의식이 살아있는 김 목사에게 이 방법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메시지 전달 방법에서 김 목사에게 두드러진 또 하나의 다른 부분은 예화 적용이다. 아시시의 프란시스(희망 83), 토마스 아 캠퍼스(희

망 85), 에크하르트(하늘 415) 같은 영성의 대가들로부터 시작해서 간디, 링컨, 록펠러, 톨스토이, 베르디, 칼빈, 바르트, 본헤퍼, 부버, 하 이텍거, 심지어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까지(“인생의 연금술을 배워라”) 등장한다. 단지 예화집 참고나 인터넷 서핑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의 예화 사용과 그 적재 적소성은 바로 그의 책읽기와 설교 준비의 성실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화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가 청중과 같은 템포로 호흡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김 목사의 메시지에 순발력이 작동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회과학 답론 줄이기

이 글쓰기를 끝내기 전에 만약 필자가 서초교회 신자라고 한다면 김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하는 점을 생각해보았다. 어쩌다가 자기가 듣고 싶을 때 한번 듣는 게 아니라 매주일 최소한 한번, 또는 서너 번씩 그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그걸 한번 짚어야겠다.

필자가 보기에 김 목사는 사회과학적 답론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의 설교에는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분석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단적으로 그의 설교가 그런 것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다. 로마서 강해인 <절망, 그러나 희망>의 첫 설교 “오늘 이 시대가 찾는 사람”(롬 1:1-7)에서 김 목사는 사회 교육가이자 변호사인 켄트 키스 박사의 <역설적인 지도자의 십계명>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화상”(롬 2:17-29)에서는 네온 사울이라는 심리학자의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

에 나온 성숙한 인간의 생활양식 8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확실한 성공 비결”(롬 4:18-25)에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골만의 감성지수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일종의 사회과학적 담론이라 할 이런 이야깃거리들이 그의 설교에 전천후로 제시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예화들도 사실은 이런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과학적 담론이 김 목사의 설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곧 김 목사의 설교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사실의 한 증빙일 뿐만 아니라 성서 텍스트를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풀어내려는 김 목사의 기본 발상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설교는 인간학이 아니라 신학에 토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과도한 채용은 없느니만 못할 경우가 많다. 그의 설교에서 사회과학은 다른 설교자들이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선진적인데 반해서 신학적 착상의 심화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설교는 분명히 사회과학의 과부하(過負荷)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김 목사가 이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까지 든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설교자에게는 사회과학적 정보보다는 신학적 착상이 훨씬 중요하다.

여기서 신학적 착상이라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설교자가 현대신학의 사조에 민감해야 한다거나 설교가 현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비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굳어진 체계(도그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까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구도정진의 태도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곧 신학적 착상의 심화과정이다.

설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청중들이 사회심리학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성의 심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는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김 목사가 제공하는 그런 사회과학적 정보는 약간의 책임기가 준비된 평신도들이라고 한다면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다. 설령 평신도들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런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교는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을 제시하는 작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성서 텍스트 자체와의 씨름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 목사가 사회과학적 담론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그가 설교 테크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런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는 설교 중에 청중들에게 ‘따라 하기’를 자주 요구한다. 이런 설교 행태는 다른 대중적인 설교자들에게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설교의 요점을 청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는 설교의 긴장감이 떨어질 때 ‘따라 하기’를 통해서 다시 집중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테크닉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 목사에게는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런 테크닉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설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글 읽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자유롭게 청중 개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소통의 오솔길을 열어주는 행위이다. 예컨대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는 명제가 설교의 주제로 등장했다고 하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명제를 반복해서 따라 외치게 하겠지만, 설교자는 기도와 전도의 영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명하는데 승부를 건다.

둘째, 설교 전달의 효과라는 차원에서도 역시 이런 따라 하기는 별로 추천할 만하지 않다.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사과가 맛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과의 맛을 마음속으로 즐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과를 설명한 그 사람이 느닷없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과는 맛있다!’”라고 한다면 그 맛에 취해있던 사람들의 흥은 그 즉시 깨지고 말 것이다.

아마 김 목사는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이 은혜 받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했는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경공부 시간이 아니라 주일공동예배의 설교 시간이라고 한다면 설교자는 이런 요령을 일체 접어두고 오직 성서 텍스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론적 설교이다. 필자가 보기에 ‘따라 하기’와 같은 테크닉을 과감하게 줄인다면 앞에서 언급한 김 목사의 장점이 훨씬 빛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이 김 목사의 설교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기껏 몇 권의 설교집과 인터넷을 통한 설교 열편 정도로 한 설교자의 진면목을 어떻게 뭉땅 포착해낼 수 있단 말인가? 다만 필자는 김 목사의 설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능한대로 편견 없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따름이다. 예민한 감수성과 겸손한 인격과 뜨거운 파토스라는 삼위일체의 구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목사가 서초교회 신자들만이 아니라 성결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행복을 파는 행복한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윤리신학자의 눈높이 설교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

눈높이 설교

필자는 이야기 식 강해설교의 묘미를 이번에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이하 ‘한 목사’)의 설교에서 만끽할 수 있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기독교의 도그마를 독백처럼 되뇌거나 믿음을 권위적인 태도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방식의 설교는 청중의 입장에서든 전통적인 설교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간다. 전통적인 의미의 설교에서는 청중들이 “이제부터 설교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긴장하기 마련인데, 한 목사의 설교에서는 청중들이 그런 의식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안으로 끌려들어간다. 필자도 그의 설교를 접하면서 이런 느낌이 자주 들었다. 이게 곧 이야기 식 강해설교의 힘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 식 강해설교를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 필자의 실존적인 관심사다. 왜냐하면 필자의 두 딸이 필자의 설교를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마음을 먹는다 고 해서 한 목사처럼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 식 강해설교를 시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남에게 배워서 약간 흥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식 강해설교는 그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천부적 성품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중에게 완전히 열린 태도를, 청중과 전인격적으로 일치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은 억지로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는 로이드 존스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한 목사의 설교 행위에서는 이런 요소가 스테인 글라스를 통과한 햇살처럼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었다.

한 목사 스스로는 자신의 설교를 이야기 식 강해설교가 아니라 ‘귀납법적 강해설교’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예수가 선택한 열두 제자 이야기, 7쪽. 이하 ‘예수’). 이 두 개념은 다른 게 아니다. 이야기 식 강해설교는 기본적으로 청중의 입장에서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편(전체)에서 구체(부분)로 나가는 연역적 방식보다는 구체에서 보편으로 나가는 귀납적 방식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한 목사의 설교는 청중과의 소통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설교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한 목사가 동의할는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런 특징을 살려서 그의 설교를 ‘눈높이 설교’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런 눈높이 설교가 한 목사의 설교 행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특징을 일단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 하겠다.

시청각 설교

첫째, 그의 설교 형식은 철저하게 시청각적이다. 필자가 중앙교회로부터 건네받은 동영상을 포함한 10편의 설교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특징은 매우 분명하다. 대형 프로젝터를 통해서 성서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일은 흔하며(“시날 평지에서”, “아들람 굴에서”), 2005년 12월11일에 행한 설교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헨델이 전한 복음”에서는 결론 부분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한

곡을 자막과 함께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 이런 시청각적인 설교는 이미 오랜 전부터 한 목사의 독특한 설교방식이었던 것 같다. 그의 설교집 <예수가 선택한 열 두 제자 이야기>에서도 그런 설교가 종종 눈에 뜨인다. “반석이 된 돌 베드로”라는 설교의 한 대목을 보자.

여기 제가 울퉁불퉁한 바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잘 보십시오(이 설교는 실물 설교로 준비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연장들, 그러니까 망치와 톱, 끌과 자와 정을 미리 강대상에 준비해서 보자기로 덮어놓았다가 설교할 때 보조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반석으로 쓰기엔 너무 위로 튀어나와 다른 돌들과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또 너무 굴곡이 심해서 어디에다 중심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망치로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수 192).

한 목사는 이 설교에서 새로운 단락에 들어갈 때마다 망치로 바위를 쿵쿵 찍었다. 그런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설교의 배경이 되는 성서 이야기가 그들에게 실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다.

시청각 설교의 압권은 2005년 5월1일 출 13:17-22(참조 시 30:11,12)절을 본문으로 행한 설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Dancing with God in the Wilderness)이었다. 한 목사는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00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신인여우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를 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 뇌성마비 여자인 공주와 사회 부적응자인 남자 종두가 함께 춤을 추다가 키스하는 것으로 끝나는 1분45초 분량의 장면이 예배당 안에서 상

영되었다. 그 뒤로도 한 목사는 이 영화에 대해서 3분 정도 보충해서 설명했다. 그가 설명한 영화의 메시지는 청중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필자는 한 목사가 설교 전달 방식을 거의 혁명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서 지도와 성화, 종교음악과 영화, 그리고 실물에 이르기 까지 한 목사는 설교에서 시청각적인 요소를 입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누가 감히 주일공동예배에서 이런 정도로 파격적인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겠나?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신자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그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런 시도가 결국 청중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려는 한 목사의 설교신학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그의 도발적인 시도가 복음전달의 역동화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복음의 연성화(軟性化)

둘째, 한 목사의 설교 내용은 복음의 원초성보다는 복음의 문화적 적용에 쏠려 있는 편이다. 이는 곧 그가 구원론과 기독교론, 청의론과 성화론, 또는 창조론과 종말론이라는 복음의 원초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풀어내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복음의 연성화이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의 설교가 기본적으로 복음적이지 않다거나 그의 모든 설교가 문화적인 속성에만 무게를 둔다는 말도 아니다.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한 목사에게 이런 성향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그가 시청각 재료를 눈부시게 활용한다는 사실도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설교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복음의 연성화도 역시 청중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겠다는 설교신학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 목사는 2005년 6월5일 “여유 있어 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본문은 이삭이 불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했다는 보도(창 26:12-22)와 오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마 5:38-48)이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좀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외쳤다. 한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매 학기마다 빛을 진 상황이었지만 조금도 궁색한 티를 내지 않고 살았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이 설교는 기독교 신앙이 신자들의 삶과 태도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7월17일 주일에 행한 “내 안의 또 다른 나인 그림자와 친밀해지자”는 제목의 설교는 다윗의 너그러움에 감복해서 회개하는 사울 왕에 대한 보도(삼상 24:16-22)와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아가 괴롭히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롬 7:15-25)을 본문으로 한다. 한 목사는 이 설교에서 칼 융의 정신분석을 끌어들이면서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부끄러운 부분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그림자와 다각도로 대화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를 더욱 신뢰하므로 그림자를 자신의 인격에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한 목사는 이 설교에서 인간의 인격적인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까지 차근차근 제시했다. 그는 정신분석과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간 자아의 이중성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했으며, 또한 통합적인 인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역설했다. 문화가 복음의 옷이라는 폴 틸리히의 말을 빌린다면 한 목사의 설교는 복음에 옷을 입히는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설교현상들이 바로 필자가 한 목사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연성화다.

한 편의 설교만 더 보자. 12월11일에 행한 설교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헨델이 전한 복음”은 헨델의 <메시아> 2곡의 텍스트인 이사야 40:4절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를 본문으로 한다. 한 목사는 이 설교에서 음악 전공자 못지않은 발군의 실력으로 헨델의 이 노래에 얹힌 사연과 의미를 해명했다. 이 곡에는 바로크적인 ‘가사 그리기’(word painting)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가사와 음악이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 목사에 따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골짜기처럼 패이거나 높은 산과 언덕처럼 높아진 것을 편편하게 다듬어 주시는 분이다. 설교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부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심과 의기소침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돌우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괴로움의 산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깎아 내려 낮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뚤어진 생각들과 거친 감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평탄케 만들어야 합니다. 죄의 돌, 불순종의 바위, 우상숭배의 산, 불신앙의 골짜기들이 다 정지되어 예수님께 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비뚤어진 생각과 거친 감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한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데서도 우리는 복음이 상당히 부드럽게 해석되고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필자가 인용한 한 목사의 설교 세편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월5일의 설교는 기독교인의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7월17일의 설교는 기독교인의 내면에 숨어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통합된 인격으로 승화되는 길을, 그리고 12월11일의 설교도 역시 훼손된 인격의 도야를 강조하고 있었다. 다른 설교도 역시 큰 틀에서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곧 한 목사가 신자들의 영적인 상처를 심리학적으로 싸매며, 신자들의 인격을 문화적으로 승화하는 것을 설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나치게 복음의 원초적 내용에 치우침으로써 신앙의 열정은 강화할 수 있었지만 성숙한 인격은 견인해내지 못했던 과거의 전통적 설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목사는 문화적인 방식으로 복음의 연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0년 성결교회의 역사에서 제4 세대(?)에 속하는 한 목사가 이제 감성과 문화가 화두로 대두되는 21세기를 향해해야 할 설교자로서 복음의 연성화를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이런 시도가 혹시나 기독교 복음의 근본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이다. 그렇지만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에 충실한 한 목사

의 설교에 대해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건 순전히 필자의 노파심에 불과할 것이다.

설교와 윤리학

이런 염려는 붙들어 매놓고, 대신 필자는 한 목사가 한국의 기독교 윤리학계를 대표하는 소장파 신학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의 설교에 윤리학적인 특징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지를 잠시 살펴볼 생각이다. 물론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설교단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리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의 설교에서 풍성한 윤리학적 영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설교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게 한 목사의 지론이니까(예수 101) 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려고 한다. 한 목사의 설교에 윤리학은 살아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에는 복음의 연성화에 대한 필자의 노파심이 조금 담겨 있다.

한 목사는 “여유 있어 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는 설교에서 예수님을 “참 여유로운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위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여유 운운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건 매우 한가한 발상이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보도하고 있는 성서 텍스트가 그의 설교에서 단지 여유로운 삶의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 대목은 그의 설교에서 크게 다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가 윤리와 신앙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매우 진지하게 해석되어야 할 산상수훈을 여유로운 삶의 태도로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풀어냈다는 건 의외였다. 한 목사는 그 설교에서 세 가지의 여유를 역설했다.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마음의 여유를 뜻하며,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여유를 의미하고, 오리를 함께 가자는 이에게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은 시간의 여유를 가리킨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설명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여유를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나. 그러나 필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늘 이런 일반론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지을 길이 없다. 신앙이 아무리 돈독하더라도, 한 목사의 주장처럼 아무리 마음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줄 수는 없다. 이런 일은 필자도 못하고, 한 목사도 못하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못한다. 그러나 왼뺨을 대라는, 그래서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아포리즘은 진리이다. 윤리학자는 바로 이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윤리학자 이전에 설교자는 늘 이런 서로 다른 현실, 즉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사이에서, 또한 텍스트의 현실과 콘텍스트의 현실 사이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중층적이어서 현묘(玄妙)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신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쏟아내는 설교는 일종의 ‘공자왈’로 떨어지고 만다. 좀 심하게 말해서 한 목사의 설교에서는 윤리학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두루뭉술한 당위성만 ‘나이프’하게 외쳐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필자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그래도 그런 설교가 청중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목사의 윤리적 시각이 나이브하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의 따뜻한 성품과 맞물려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생

각이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윤리의 일반론으로, 혹은 규범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 목사는 자신이 기독교 윤리학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설교하는 사람이다. 목사들을 대상으로 윤리학을 강의하는 본인이 실제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의식한다는 말이다. 그는 윤리의식과 자기성찰이 결벽증처럼 강한 사람이다. 배우는 학생으로 있던 25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제자 118)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그는 ‘어떻게’ 사는가를 설교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제자 62).

이렇게 섬김의 윤리를 강조하는 한 목사는 끊임없이 기질을 바꾸거나(제자 107), 인격을 도야하거나 성품을 가꾸어나가는 것(“바나바의 사역”, 2004년 5월7일)을 신앙생활의 요체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한 목사의 이런 섬김의 윤리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론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과연 설교로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솔라 피데’(sola Fide)라는 종교개혁자의 신학적 착상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행위에 중심을 둔 율법이 아니라 존재에 중심을 둔 복음에 신앙의 토대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윤리 문제도

역시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바울도 역시 율법적인 성취와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곧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생각했다. 설교자들은 여기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해야 한다. 다른 설교는 몰라도 주일공동예배의 설교만은 기독교적인 설교, 즉 케리그마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수양과 성품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설교와 성서해석학

이 글쓰기가 본격적인 학문적 담론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일부의 설교만으로 한 목사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 정도로 접겠다. 다만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문제들이 바로 한 목사의 성서 해석학과 연결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한번 짚어야겠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한 목사는 성서 텍스트를 실제로 해석(hermeneutics)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일까? 이견 비단 한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흡사 압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를 하다 탈골상을 입은 야곱처럼 성서 텍스트와 대결해야 할 숙명을 짚어준 우리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한다.

한 목사는 “시날 평지에서: 바벨과 오순절 사이”라는 설교에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창 11:1-9)을 본문으로 선택했다. 그날 한 목사는 알베르트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설교의 문을 연 다음, 바벨탑 사건의 원인과 비극적인 결말을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해명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아보자는 인간적 욕망이 결국 언어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한 목사에게 의하면

이런 언어 혼란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보도되어 있는 성령강림 사건이 후에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인간의 교만과 자기 집착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함으로써 참된 삶의 길을 가야 한다고 외쳤다.

한 목사에 의하면 바벨탑은 “인간의 죄와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수단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올라가는 반역의 탑”이다. 오늘의 바벨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전공학-게놈프로젝트, 인간복제, 정보통신-인터넷, 우주공항” 등이다. 바벨탑 본문을 이런 정도로 풀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성서와 세계를 보는 한 목사의 통찰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 목사가 사회 윤리학을 전공한 학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 사건을 전승하고 있는 최초의 사람들의 눈에 이 바벨탑은 무엇으로 보였을까? 물론 한 목사의 설명처럼 인간의 죄, 탐욕, 교만의 상징물로 비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대답에 머물지 말고 성서 텍스트가 놓인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좀 더 세밀하게, 열린 눈으로 살펴보자. 바벨탑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벌어진 토목공사였다. 성서 기자들이 바벨탑을 거론한 이유는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보았다는 데에 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농락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는 이미 구약성서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약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기둥인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귀환에서 볼 때도 역시 바벨탑 전승은 인간 일반의 죄성보다는 구체적인 제국의 악한 질서와 연결된다. 따라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해석해야 할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모든 진리의 준거로 강제하는 제국주의적인 힘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윤리학자들에게는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영성)이 훨씬 날카로워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지금 오늘의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공학적 문제, 또는 이념논쟁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성서 해석학이 설교자의 영적 시야에서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성서 텍스트가 일방적으로 관념화하거나 개인의 종교적 실존에 포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설교자와 시인

성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선포되는 설교 행위에서 확보되어야 할 해석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마디만 하겠다. 성서 텍스트는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열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고유하고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는 과거 역사에서 발생했던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아직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사건에서 선취(先取)된 종말론적 생명을 담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즉 성서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창조와 종말이 신비의 방식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청중들에게 전달될 때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지금 필자가 너무 현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부연해야 할 것 같다. 언어사건에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말한다.”는 하이데거의 진술을 따른다면,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청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서를 주관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

라 성서 언어가 청중들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다. 자신의 설교에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설교행위가 이미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들이 성서 텍스트의 지평을 뚫고 들어가려는 노력과 그런 경험과 능력이 없는데도, 그래서 결국 설교 언어 세계가 그렇게 진부한데도 불구하고 성서가 해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설교가 성서해석의 세계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자신의 설교가 시인들의 시작(詩作)처럼 늘 세상과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설교자는 상품 판매에 모든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주어진 매뉴얼만 신바람 나게 외쳐대는 외판원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언어의 세계에 완전히 던지는 시인과 비슷하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는 걸 용서하시라. ‘뽕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교하든지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의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설교자들은 아주 쉽게 성서의 도구주의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이런 성서 도구주의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설교자는 교회 성장과는 별개로 성서 텍스트의 고유한 영적인 길을 열어가는 한 가지 사실에 자신의 온 영혼을 집중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목사를 설교자로 지탱시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이며, 배타적인 영성이리라.

이제 오늘의 글쓰기를 마쳐야겠다. 한 목사가 중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설교하기 시작한 게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의 설교를 총체적으로 평가할만한 단계는 아니었다. 그리고 필자가 정확하게 보았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혹시 잘못 본 부분이 있다면 삼가 해량(海量)을 바란다. 성결교회 100주년이 바로 중앙교회 100

주년이라는 명예가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긍정적 설교의 빛과 그림자

-동대전교회 허상봉 목사-

설교의 세련미

동대전교회 허상봉 목사님(이하 ‘허 목사’)의 설교하는 모습에서 필자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우선 동영상에 잡힌 그의 외모가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서글서글한 그의 얼굴이 청중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기에 ‘딱’이었다. 생면부지인 필자에게도 그는 왠지 좋고 옳은 말만 할 것 같았으며, 따라서 그의 설교에는 무언가 진정성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아무 것도 거칠 게 없다는 듯이 청중들을 복음의 세계로 끌어가는 그의 설교에는 흡사 밀림 속을 헤쳐 나가는 노련한 탐험가의 힘이 엿보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칫 상대방의 기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지만, 허 목사에게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내면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묘한 ‘겸손한 자신감’이 그의 설교 행위에서 솟아난다는 게 신기했다. 그를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가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의 시련을 통해서 얻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복음전도의 열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겸손한 인격이 서로 맞물려 이런 허 목사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

호감이 가는 인상과 겸손한 자신감이 한데 어우러진 허 목사의 설교는 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곧 설교에서 세련미를 맛보았다는 뜻인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각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청각적인 부분이다.

우선 시각적인 부분에서 볼 때, 그의 설교하는 태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간다. 그는 시선을 한 군데에 고정시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중이 불안하게 할 정도로 자주 바꾸지도 않는다. 설교자의 시선이 안정적이라는 건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그의 얼굴표정도 역시 안정적이다. 어색하지도 않고, 해픈 웃음으로 흠어지지도 않고, 변화가 심하지도 않으며, 전체적으로 단호하면서도 부드럽다. 시선과 표정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설교자의 태도에서 훨씬 중요한 전체적인 몸가짐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과정에서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쓸데없이 손을 흔들어대는데, 허 목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장의 주례자처럼 그냥 점잖게만 서있는 게 아니라 필요적절하게 움직일 줄도 안다. 이런 건 억지로 배우거나 남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다. 속되게 말하면 ‘끼’를 타고나야 하며, 신앙적인 용어로 ‘영’에 온전히 감동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청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 목사의 스피치는 놀라울 정도로 호소력이 있었다. 필자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멋있게, 맛있게 잘하는 설교자가 또 있을까 하고 놀랐다. 이건 단지 그의 입담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다. 대중적인 설교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입담이 아니라 훨씬 고급의 스피치 능력이 그의 설교에서 발견되었다. 우선 발음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다. 좋은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건 그렇다 하고, 한 문장을 발음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도 쓸데없는 소리가 나지 않다는 건 아나운서나 연극배우처럼 고도의 스피치 훈련이 없

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필자의 설교에는 잡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예컨대 ‘음 -’, ‘에 -’ 하거나 ‘그러니까’를 반복하고, 또는 약간 더듬거릴 때도 있다. 그런데 허 목사의 설교는 라디오 뉴스나 성악가의 가곡처럼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스피치는 단순히 깨끗한 발음에만 그 특징이 있는 건 아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여러 색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그의 스피치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섰다는 증거이다. 스피치의 강과 약, 빠름과 느림, 높음과 낮음, 밍과 당김, 조임과 풀, 강요와 설득, 호소와 속삭임이 그의 설교에서 흡사 무림고수의 칼솜씨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스피치 능력을 갖춘 설교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설교 전달에 관심이 있는 신학생과 젊은 목사들은 허 목사에게 배울 게 적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그런 요소만이 아니라 허 목사의 언어구사력도 아주 뛰어났다. 허 목사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특출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언어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전달 효과의 강도가 달라지듯이 허 목사는 말을 맛있게 만들어 전달할 줄 아는 설교자이다. 그의 설교가 전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앞으로 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언어구사력에 있다. 2006년 3월26일 설교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겠다.

배움은 축복을 받는 시발점입니다. 동터오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축복의 향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새벽이슬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날을 열어보십시오.

한 설교자가 한 가지의 능력을 보이기도 쉽지 않는데, 허 목사는

설교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거의 모든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감칠맛 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한 수 배우라고 추천할 만큼 탁월한 스피치 능력을 갖춘 허 목사의 설교에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겠다.

긍정적인 설교

필자가 허 목사로부터 건네받은 설교 15편의 제목과 본문은 다음과 같다. 주로 2005년과 2006년의 주일에 행한 설교인데, 순서 없이 소개하겠다. 1) 네가 낮고자 하느냐?(요 5:2-9). 2) 최선의 삶을 위한 믿음(민 13:30-14:10). 3)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창 21:1-7). 4)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라!(신 25:17-19). 5)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막 16:17-20). 6) 믿음의 후손이 받을 축복(신 1:5-11). 7) 우리의 생활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신 8:6-10). 8) 건전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시 73:23-28). 9) 어머니의 기도(삼상 1:20-28). 10)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고전 1:4-9). 11) 영혼의 도성을 지키라!(잠 4:20-27). 12) 훌륭한 인생을 가늠하는 척도(잠 22:6). 13) 상급 받는 인생(고후 5:8-10). 14)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레 1:1,2, 요 4:23,24). 15) 기적을 경험하는 영성(시 143:7,8, 46:1-7).

위에 제시된 15편의 설교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듯이 그의 설교는 주로 신자들의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허 목사는 2005년 5월15일 설교 “네가 낮고자 하느냐?”에서 설교 후 기도를 한 문장으로 끝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련된 기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허 목사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온 영혼을 기울여 설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대전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로는 금년 1월1일부터 5월14일 주일까지 허 목사가 선택한 설교 본문 스무 곳 중에서 열두 편이 구약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구약의 축복을 설교의 중심 주제로 삼는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필자는 여기서 그가 이 축복 문제를 설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는 길게 끌지 않겠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영혼과 실제 삶을 귀하게 생각하는 설교자치고 축복을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가 없으며, 특히 오늘날은 이런 주제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허 목사의 축복 설교가 다른 설교들과 구별될만한 요소가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허 목사의 축복지향 설교가 다른 이들의 이런 설교와 구분되는 요소는 축복을 무조건 기복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신자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위에서 필자가 허 목사의 설교를 자신감과 연결시켰는데, 그 자신감이 바로 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도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허 목사는 청중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신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2005년 7월17일 설교 “최선의 삶을 위한 믿음”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후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던 후배에게 조언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는 후배에게 기도할 것과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준비를 제안했는데, 그 뒤로 그 후배는 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허 목사는 그 대목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희망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용기와 슬기로우므로 세상을 도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지금보다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허 목사의 설교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진술이다. 그가 어떤 성서 텍스트로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삶을 긍정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 중심축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설교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긍정의 힘’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삶을 긍정할 수 있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허 목사는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들과 아내에게 ‘하지마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하라’는 말만 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안한 삶의 실존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자신의 삶을 크게 긍정해야 한다는 허 목사의 주장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의 설교가 저변에 깔고 있듯이 성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마 동대전교회 신자들은 이런 설교에서 실제적으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이 곧 긍정적 설교의 ‘빛’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

그런데 그의 설교에 심취해서 설교 텍스트를 읽고,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배웠지만, 과연 그것이 설교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필자는 축복 일원론적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치우치기보다는 불행한 삶과 소극적인 사고방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낼 수 있는 변증법적 삶의 태도가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가깝다고 보기에 하는 말이다. 일례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체의 좋은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빌 3:8) 하지 않았는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설교가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가, 하고 걱정하실 분이 있을 것이다. 오해는 마시라. 필자는 그리스도인이 열등감, 자책, 자학에 빠지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며, 더구나 도사 연하면서 ‘가난의 미학’을 읊조리는 것도 아니다. 자발적 가난을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그런 삶의 실천을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자의 관심은 소위 청부론이나 청빈론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설교자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허 목사도 여기에 연관된 사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2006년 4월2일 설교 “우리의 생활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번영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정열적으로 선포했다. 베니 힌 목사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복 받는 길을 따라가십시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설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단서를 붙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믿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핍절함이 없는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지 못한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허목사는 분명히 “물질적인 부요함이 믿음의 핵심은 아니지만”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원하셨다는 데에 놓여 있다. 그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훨씬 진지한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 성서 기자들이 비록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지만, 그런 진술의 핵심은 외면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였다.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통치에 대한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홍해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전쟁 승리가 보도되었다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구약성서가 물질적인 축복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목사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본질은 아니다.

필자의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이다. 성서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원래 그것을 가르

친다. 예컨대 구약의 예언자들이 풍년과 흉년변식을 약속한 가나안의 바알 신앙을 우상숭배로 규정한 이유는 바알 신앙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데에 놓여 있다. 예언자들은 인간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적인 토대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신앙을 가르쳤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거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완성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설교가 늘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만 묶어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목사들도 기도와 말씀묵상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가족도 돌보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듯이 설교도 역시 물질적인 축복을 주제로 삼을 수는 있다. 또한 목회가 구체적인 인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목회 현장에서 요청되는 물질 축복과 건강, 사업 확장 같은 요소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요소들이 설교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케리그마에 중심을 두어야 할 주일공동예배에서는 더욱 그렇다. 스스로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한 그것을 설교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곧 허 목사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 설교의 ‘그림자’이다.

“영성은 뭐꼬?”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출세와 풍요야말로(2005년 6월25일) 설교의 중심 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딛고 부자가 된 그

리스도인들, 불치의 병을 신유의 은총으로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름은 접어두고라도, 패러다임 쉬프트는 혁명적인 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간접적인 논의로 이 글쓰기의 방향을 트는 게 좋겠다. 어떤 입장에 섰든지 설교와 신앙에서 공통의 토대가 “영성은 뭐꼬?”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그리스도교의 화두라 할 ‘영성’(spirituality)은 바람, 또는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프뉴마’와 관계가 있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앨리스터 맥그레쓰는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다.”(Alister E. McGrath, 기독교 영성 베이직, 대한기독교서회, 15쪽) 이런 논의는 자칫 현학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핵심적으로만 말하자. 루아흐와 프뉴마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이다. 따라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배타적 행위인 생명의 현실과 그것의 신비에 눈을 뜬 사람들이며, 그것을 일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내 영혼의 심층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생명의 신비로 이끌어주는 설교에 목이 마르다. 이런 은혜가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번영에 쏠려 있는 설교로는 불가능한 게 아닐는지. 물론 쪽방에서 살던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도 이런 생명의 깊이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이런 삶의 조건을 바뀌나가는 것들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오늘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제공해 주었거나, 아니면 약속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삶의 조건을 바뀌나가는 것으로 인간의 삶이 영적으로 심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서의 가르침 이전에, 이미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선포해야 할 설교자들이 이런 경제적 이념의 전도자로 머물러 있다는 건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그리스도교 본질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 의한 귀결이다.

안타깝지만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며 토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는 설교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세계 ‘교회성장’ 운동의 지도자인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들어보자.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왜 그렇게 듣지 못했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을 읽으면 그에 대한 말씀이 분명 많이 나온다. ... 그러나 이제껏 내가 거쳤던 목사들 가운데 실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한 사람은 솔직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설교 노트를 들춰보니 나 역시 거기에 대해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100 쪽에서 재인용)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말
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는 설교는 곧 그리스도교 영성을 상실한
것이며,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신비가 열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영성과 생명의 신비의 연관성은 우리 설교자들에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단초라 할 그리스도론의 요체
를 간단하게나마 해명하는 게 좋겠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본질은 우리가 매주일 공동의 신앙고백으로 드
리는 사도신경에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 부활을 우리 생명의 토대로 삼는 태도이다. 여기서 십자가는 이 세
상에서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졌고, 헬라
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간주했다는(고전 1:23)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인간 삶의 완전한 실패였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단 한번뿐이었던 부활
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바로 이것이, 즉
인간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엄정한 사실이 곧 그리스도교 신
앙의 패러독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론의 요체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어떤 인간적인 실패도 더 이상 완전한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는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옳다. 만약 십자
가와 부활의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설교자라
고 한다면 더 이상 물질축복과 유사한 것들을 설교의 중심으로 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생명형식과
질적으로 다른 생명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부활생명은 공산주의도 아
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혁명도 아니고 수구도 아닌, 진보도 아니고 개
량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구원행

위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발생하는 부활생명에 집중하도록 청중들을 이끌어야 할 설교 행위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듯한 ‘기다림의 영성’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회력이 대림절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한 청의의 영성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적과 성취와 성공을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한 의로움에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가리킨다.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설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한 두 번의 설교로 끝날 뿐이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며 오해이다. 이 주제는 우리가 평생 설교해도 끝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이다. 생명의 완성인 종말과 그것의 선취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사이의 역사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심층을 성서 텍스트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전체 존재를 여기에 던질 것이다. 그것 말고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설교자는 재(財)테크나 행복론을 외치는 교양강좌 강사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운명과 사건이, 왜 약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폐의 방식으로 현재화하는 궁극적인 생명의 토대인가를 해명하는 데 모든 걸 걸어둔 구도자 아닌가!

사족으로 한 마디,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에 근거하는 한 우리의 목회에서 실패는 없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목회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며, 거꾸로 목회의 성공이 반드시 성공도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한 궁극적 생명 사건인 부활은 이런 인간의 실패와 성

공이라는 범주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극복하고, 초월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은 오직 한 가지이다. 십자가의 신학, 부활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곧 고난의 영성이며, 희망의 영성이다. 그것은 곧 역사적 영성이며, 영광의 영성이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설교자로서 허 목사의 좋은 점들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쉽게 생각한다. 예컨대 그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며, 선정적인 예화로 신자들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그는 청중들에게 감성적으로 어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다. 공연히 눈물을 보이거나 공연한 재담에 한눈팔지도 않고, 물 흐르듯이 진실한 태도로 청중들에게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신자들을 열광주의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필자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허 목사에게 설교자로서의 좋은 점들이 더욱 빛날 날을 기대하며, 말씀선포의 길에 도반(道伴)으로 나선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활천 2006년 7월호)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

-여주교회 이성관 목사-

필자는 활천사 편집부를 통해서 여주교회 이성관 목사님(이하 ‘이 목사’)의 설교문 15편과 동영상 10편, 그리고 설교집 <사다리가 있습니까>를 넘겨받았다. 2000년 성탄절에 강남교회에서 출판한 이 설교집의 뒤표지 날개에 이 목사의 경력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이 목사는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으며, 에모리대학교의 캔들러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했다.(D. Min can) 이 목사의 부친과 형제들, 그리고 매제들도 모두 목회자이며, 이 목사의 할아버지가 순교자 이판임 장로라고 한다.

이 비평 글쓰기 초장부터 이 목사의 이력을 거론한 이유는 그의 설교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그의 이력에 이미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간단히 추리면 세 가지이다. 첫째, 그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기독교 윤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그의 설교에 인간 삶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했다. 둘째, 이 목사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설교학의 큰 스승들에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나름으로 고유한 설교의 패턴을 개척할 수 있었다. 셋째, 그의 몸에 흐르는 순교자의 피는 그의 설교가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원천이다.

이 목사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즉 문학적 상상력과 고유한 설교의 경지, 그리고 영성은 구별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목사의 인격과 신학적 사유와 신앙 안에서 서로 변증법적으로 상호

연관됨으로써 이성관 유의 설교를 이루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 과정 중에 있다. 오늘 필자의 소임은 이 목사의 설교를 ‘이성관 유’라고 부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보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설교의 본질주의

필자가 이 목사의 설교를 대하면서 받은 가장 강렬한 인상은 그가 성서 텍스트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을 향해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는 30분 동안의 설교 시간에 변죽을 울리는 일 없이 흡사 비너스 상을 조각하는 예술가처럼, 또는 외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곡예사처럼 신앙의 본질에만 천착하고 있었다. 그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역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쉽게 떠나고, 쉽게 포기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묶여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 가셨다는 예수님은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일도 생기지 않겠지요. (“두로와 시돈에서”)

필자는 그의 이러한 특징을 ‘설교의 본질주의’라고 일컫고 싶다. 청중들의 요구와 성서의 요구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오직 성서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설교자라는 말이다. 수영을 하려면 두 발을 땅에서 완전히 떼어내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의 본질에만 영혼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 목사의 설교에서 발

견할 수 있는 본질주의적 성격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목사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런 본질을 전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 신앙의 본질만 설교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사가 아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설교는 잔소리로 떨어진다. “설교하고 있네!”라는 표현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에 대한 비아냥거림인 것처럼 설교와 잔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매우 미묘한 경계선에서 발을 헛디디면 잔소리가 되고, 바르게 디디면 설교가 된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십일조 해라, 사랑해라, 충성해라 등등, 많은 신앙적 가르침이 한끝차이로 어떨 때는 설교가 되고, 어떨 때는 잔소리가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자. 어떤 어머니는 예의 잔소리로 이 아이를 다그칠 것이다. 공부해라. 다른 애들은 밤 12시까지 공부한다는 데 너는 10시만 되며 자냐. 거꾸로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솔깃해할 약속을 줄 것이다. 다음에 3등 안에 들면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마. S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승용차를 뽑아 주겠다. 그것이 채찍이든, 당근이든 학습 자체 이외의 요소로 아이들을 뒤흔드는 행위는 잔소리이다. 반면에 아이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학습결과와는 상관없이 학습 내용 자체만을 바르게 제공하는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다. 성서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는, 그래서 그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설교자와 달리 이 목사는 성서 언어의 본질에 지독하게 매달리는 설교자이다.

필자는 이런 설교만이 청중들의 영성을 살린다고 본다. 선정적인 예화에 휩쓸리지도 않고, 어떤 종교적 권위에 안주하지도 않으며, 그

형다고 일종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도 않은 채 하나의 쫓대를 향해서 구도 정진하듯 나가는 설교야말로 청중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상상력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질주의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서 텍스트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요구된다. 그것에 관한 깊은 인식이 따라주지 않는 설교는 교리문답처럼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단조로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설교자와 청중들은 변칙 플레이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사람의 종교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설교의 중심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심리치료의 기제로, 또는 처세술의 방법론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 뿌리는 곧 성서를 영적인 깊이에서 읽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필자가 보기에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목사의 설교 능력이 돋보인다. 그가 설교의 본질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서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 해석의 천편일률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뽕잎만 먹으면서도 명주실을 뽑아내는 누에처럼 그는 성서 텍스트라는 문자의 표층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의 세계를 풀어낼 줄 아는 설교자이다. 그에게 성서 텍스트의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곧 문학적 상상력에서 주어진다. 이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저의 이야기 설교는 상상력의 설교입니다. 물론 공상이나

망상과는 다릅니다. 추상적인 상상과도 다릅니다. 다 실현 불가능한, 실제로 있지 아니 한 일들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상상력은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귀납법적인 설교는 그 발원이 현대 과학이었거든요. 상상력이 전화를 만들어 내고, 진공청소기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설교집 <사다리가 있습니까>에서, 이하 ‘사다리’)

이것은 옳은 자평이다. 그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그리듯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성서 본문을 살아 움직이게 할 줄 아는 설교자이다. 상상력이 설교 행위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성서 자체가 고도의 상상력에 의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예컨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예언자적 상상력의 결과이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중략>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그뿐만 아니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암 5:24)는 아모서 예언자의 진술이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 22:5)는 요한계시록 기자의 진술도 역시 놀라운 예언자적 상상력에 의한 말씀들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신앙적 상상력에 의해서 형성된 말씀 사건의 압권이다. 노파심으로 한 마디 해 두자. 이 목사가 이미 지적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 영적 통찰력이다. 이사야, 아모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인간과 세계의 영적인 현실에 분명한 토대를 둔 상상력이다. 이런 상상력에 의해서 성서는 단순히 문자와 정보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인 생명이 완성될 종말론적인 진리의 길을 열고 있다.

이런 말씀 해석의 상상력이 이 목사의 설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두로와 시돈에서 생긴 일”(마 15:21-28)에서 이 목사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벗어나 가장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단순한 여행 같지만, 잘 살펴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식사 할 때 손을 안 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위의 글을 약간 길게 인용한 이유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 목사가 성서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설교자들은 단순히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로 직접 들어가지만 이 묵사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는 문장 안에서 본문을 심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줄 안다. 즉 그는 이 사건 앞에 서술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함으로써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돋보이게 했다는 말이다. 이런 통찰력에 의해서 평면적이고 정적이었던 성서 본문은 이제 입체적이고 동적인 세계로 발전한다.

2005년 11월6일 설교에서 이 묵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소위 탕자의 비유를 해석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품꾼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신앙적 결단으로 해석하지만 이 묵사는 다르게 해석했다. 집으로 돌아가 종이 되겠다는 탕자의 생각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구태의연한 눈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눈으로 성서 본문에 접근함으로써 이 묵사는 탕자의 비유가 말하려는 그 중심을 포착하고 있다. 그는 그 설교에서 청중들에게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삼상 1:12-18)이라는 설교에서 이 묵사는 본문을 전후로 하는 전체 콘텍스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설교했다. 이 설교에도 문학적 상상력은 빛을 발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나의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서 이 묵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매우 리얼하게 풀어내고 있었다. 한나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까지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으로써 이제 그의 설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목사의 성서 해석은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런 상상력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간 삶에 개입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인 성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설교 행위의 본질주의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의 모든 설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설교자 자신과 청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본질 이외의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이다. 이는 곧 고도의 피아노 연주의 세계를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피아니스트는 청중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음악의 세계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만 피아니스트와 더불어 청중들도 음악의 존재론적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성서읽기의 통찰력

이 목사의 설교적 특징이라 할 문학적 상상력과 설교의 본질주의가 성서읽기의 통찰력을 어떻게 구현시키는지 한 두 대목만 확인해보자. “해피엔딩”(룻 1:1-5)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옴과 룻 사이를 맺어준 고부간의 따뜻한 정리(情理)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관계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 여자 룻은 다윗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옴과 룻의 관계만을 설교의 중심 주제로 부각하는데 비해서 이 목사는 훨씬 심층적인 차원까지 파고들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끔찍한 상황을 맞았지만 나옴과 두 아들은 살아 “남았으며”(3절),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참척(慘慼)의 슬픔을 당했지만 나옴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5절)는 것이다.

남았다는 것을 비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떠난 뒤에, 아무 대책 없이 남겨진 그 자체가 더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것입니다.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것입니다. 다 데려 가지 않고 남겨 두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남겨 두신 만큼,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목사의 성서읽기가 놀랍지 않은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경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남았다.”는 사실이 이제 이 목사에 의해서 전면으로 클로즈업되었다. ‘남은 자’는 구약성서 전체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 백성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신다. 룻기서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놓여 있다는 이 목사의 결론은 전적으로 옳다.

“만일 주시어든”은 풍량을 만난 제자들과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마 14:22-33)이다. 여기서 이 목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게 던진 두 마디 문장에서 설교의 동기를 캐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만일이라는 말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만일이란 말은 무한한 다른 가능성들을 상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말입

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 주신다면, 만일 망한다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목사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제시했다. 이 설교의 결론은 “만일이라는 말을 빼십시오.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였다. 이렇게 작은 단서를 통해서 신앙의 깊은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이 목사의 성서읽기가 나름으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목사의 설교행위에 나타나는 성서읽기의 통찰력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맞물려 있다.

참고적으로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한 이 목사의 이해를 가늠할 수 있는 그의 진술을 두 대목만 제시하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세상적인 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를 약속할 뿐입니다. 승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공략 당하여 정복되지 않았으며, 지배되지 않고 물리쳐 이겨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성공 지향적입니다.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면 도태되고, 쓰레기장으로 직행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삶의 부산물이자 목표가 아닙니다.”(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는 이 목사의 신앙과 설교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

교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짚은 셈이다. 복음의 본질에 분명하게 서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성서 텍스트의 깊이를 노련하게 풀어내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 필자는 더 이상의 코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설교가 어떻게 새로워질지 기대된다. 다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한 마디 하는 걸 양해하시라.

신학적 상상력

약간 도발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제목의 설교 “어떻게 하시렵니까?”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논쟁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편지(고전 3:11-15) 본문으로 한다. 우선 필자의 생각에,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헬라파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교적 전통을 그대로 안고 가려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이런 긴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갈라디아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9)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한 일까지 있었다.(갈 2:11 이하) 만약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과격하고 치열한 투쟁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자칫 유대교의 아류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논쟁적인 맥락에서 바울은 일종의 혼합주의적 성격이라 할 율법적 복음의 위험성을 위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목사는 이 본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붙들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결가지에 불과한 ‘공력’과 ‘상’을 중심 주제로 삼았으며, 달란트 비유를 길게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공평한 일 겪으며 속상해 살았습니까? 남들과 비교되는 마음 상한 일들 겪으며 사셨습니까? 이제 진짜 차별되고, 구별되는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걱정입니까?(사다리)

필자가 보기에 이런 해석은 전형적인 건강부회에 가깝다. 우리의 상황으로 성경을 가져오지 말고 “우리가 그 성경의 상황과 사건으로 들어가야 한다.”(사다리)는 것을 강조하는 이 목사가 이번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성서 텍스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차별이 있다는 주장은 아무리 그 날이 송년주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서와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어리석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대신 이 목사의 말로 대신하겠다. 그는 한 시간 노동한 사람이나 열 시간 노동한 사람이나 그들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한 데나리온 씩 일당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차별화한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2005년 8월7일)

만약 위의 설교가 이 목사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필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것이다. 성서 텍스트에서 이런 정도 옆으로 기울어지는 설교행위는 흔하게 일어나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 목사의 설교를 접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래, 이게 바로 복음적인 설교

야!” 하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대목을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짚었다. 이 목사도 필자의 이런 좋은 뜻을 헤아려 주리라 본다.

이심전심으로 상호간에 이해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성서 텍스트의 행간까지 세밀하게 살필 줄 아는 이 목사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궁금하다. 다른 설교에서도 간혹 이런 조짐이 보이는 걸 보면 여기에는 어떤 곡절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 목사의 성서 해석은 문학적 상상력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결국 신학적 반성의 자리가 축소된 것 같다. 위의 설교에서도 이 목사가 그 본문의 신학적인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중심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조금 더 깊숙이 받아들였다면 소위 천국 상급론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위의 사태는 문학적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서 일어난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말이다.

오늘 설교 현장에서 신학은, 특히 조직신학은 필수불가결의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칭의론, 죄론, 인간론, 종말론 등등, 그리스도교 교리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성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설교가 청중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으로 안내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서와 영적인 호흡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설교자는 반드시 조직신학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난 2천년 동안 성서를 해석함으로써 얻은 영성이 바로 조직신학의 체계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넨베르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옳다. “조직

신학적 반성 없이 주석으로부터 직접 설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석학의 질문들은 단지 미학적 판단을 통해서 견인될 뿐이다. 결국 설교자들은 자신이 어떤 고유한 신앙적 판단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본주의에 치우쳐버리지 않으려다가 시대정신의 다변적인 유행에 휩쓸려 버린다.”(신학과 철학, 14쪽)

이 목사는 최근에 여주교회로 임지를 옮기셨다고 한다.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하고, 실제로 교세도 상당한 것 같다. 목회자로서는 큰 규모의 교회가 기회일지 몰라도 설교자로서는 위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설교자가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목사는 대중적인 설교자는 아니다. 그는 청중을 감동시키는 데에 마음을 두는 설교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오솔길을 혼자 걸어가는 구도자적 설교자이다. 그런 사람이 대중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필자가 보기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린다. 성결교회 역사에서 이 목사가 성서 텍스트로부터 올려나는 영적인 북소리를 향해 내면의 촉수(觸鬚)를 작동시킨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기로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 소로 우의 <월든>에 나오는 한 대목을 빌려 필자의 생각을 전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鼓手)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음률이 어떻든지,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지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설교의 해석학적 요청

-후암백합교회 김세진 목사-

설교자의 균형감각

설교자에게 어울리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자가 후암백합교회 김세진 목사님(이하 ‘김 목사’)의 설교 동영상 접한 첫 인상은 “착한 사람이군!”이었다. 화려한 언변이나 현란한 제스처, 번뜩이는 신학적 사유나 문학적 상상력이 돋보이기보다는 청중의 영혼을 세세하게 보살피는 목회적 영성이 훨씬 도드라져 보였다는 말이다. 앞의 요소들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목회적 영성은 그 사람의 성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목사에게는 매우 본질적인 은사라 할 수 있다.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능력과 달리 착한 성품이라는 특징은 막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요소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사가 아니다. 예컨대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행 11:24)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다소에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안디옥 공동체를 바울과 함께 꾸린 바나바는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배후 인물이었다. 김 목사의 설교하는 모습에서 바나바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김 목사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선 김 목사의 설교에는 다른 설교자들에게서 자주 표출되는 과장과 자기현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투가 침착하고 설교의 톤도 안정적이다. 그의 설교 스타일은 청중들을 감정적으로 사로잡으려고 오버하는 웅변과는 거리가 멀다. 어떻게 보면 세련미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의 설교는 꾸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결여되었다는 건 결코 아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필요 적절하게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필자의 귀에는 잘 들린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에서 설교자의 인격적 진실성과 복음의 진정성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진실성과 진정성은 곧 그가 착한 목회자요, 설교자라는 사실을 보증한다.

김 목사의 설교에서 진실성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이건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의 이런 진술은 진실하지 않은 설교자들도 있다는 말이나, 하는 반론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필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다.

김 목사의 설교가 필자에게 잘 들어오는 이유는, 그리고 거기서 진실성이 전달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의 설교가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설교의 태도와 그 내용에서 모두 그렇다. 이 말은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씀 선포의 열정과 구원의 확신과 시급성이 설교자를 그렇게 몰고 가는 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격적인 설교 앞에서 필자의 마음은 불편하다. 청중들을 지나치게 책망하고, 주눅 들게 하고, 또는 반대로 자만심에

빠질 정도로 추켜올리거나 종교적 욕망에 도취하게 만들으로써 어떤 설교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작위성이 그런 이들에게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적인 설교에서 진실성을 느끼기는 힘들다.

설교의 공격성은 기본적으로 청중의 대상화에 근거한다. 그것은 곧 청중의 도구화이다. 필자가 보기에 설교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과 태도는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다. 설교자는 청중을 결코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설교자는 청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청중과 더불어서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설교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청중을 마주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청중에게 등을 보인 채 청중과 같은 방향으로 영적인 시각을 놓아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청중들과 말씀의 참된 만남이 설교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의 일이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설교자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의 설교로 청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설교자일수록 한편으로는 종교적 교연영색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 청중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설교를 한다. 양자 모두 청중을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공격적인 설교이다.

필자는 김 목사의 설교에서 위에서 설명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설교는 청중들의 영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청중들과 만날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설교는 바로 그의 착한 성품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모르겠다. 착한 성품이 청중을 대상화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결국 공격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그의 인격과 설교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인

데, 적극적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그는 균형 감각을 갖춘 설교자이다. 극우와 극좌가 아니라, 그리고 극단적 관념에 떨어지거나 극단적 행동주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앙의 중심을 잡는 설교자라는 말이다. 아래와 같은 진술에서 그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감정적인 데만 치우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맹목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에 치우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독선적인 신앙이나 비판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새가 두 날개에 균형을 잘 이루기 때문에 높은 하늘을 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설교 ‘흔들림이 없는 삶’ 중에서, 이하 설교제목만 표기)

균형 감각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의 설교는 단지 설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다.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현금으로 선뜻 바친 채 빈털터리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신앙적 열정이 분명하다는 뜻이며,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습관은 삶의 성실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과 삶의 성실성이 김 목사의 인격에서 균형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소극적으로는 착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김 목사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리라는 건 불문가지이다.

성서 텍스트의 해석학적 요청

착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김 목사의 설교가 필자에게 편안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김 목사의 설교는 어쩌면 ‘무난한’ 설교에 머무를지 모르겠다. 청중들의 영혼에 상처를 내지 않고 잘 감싸기는 하지만 영성의 심화에는 이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무난한 설교를 넘어서기 위해 설교자는 성서 텍스트의 해석학적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설교의 해석학적 요청”을 의미한다. 해석학은 무엇이며, 그게 왜 설교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일까?

제우스의 사자인 헤르메스에게 연원하는 해석학(hermeneutics)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서 텍스트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설교자에게 필수적인 작업이다. 해석학은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설교와 마찬가지로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 통역, 해석하는 행위이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니,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헬라신화에서는 제우스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인 헤르메스가 필요했다.

모든 설교자들은 이미 이런 해석학적 전통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이 이미 해석의 결과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건 곧 해석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번역이 그 텍스트의 실체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번역은 오역”이라거나 또는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이런 데 근거한다. 설령 번역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다. 이런 장애물은 성서 텍스트가 두 가지 현실을 변증법적 방식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는 성서기자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원초적 계시경험이다. 성서 텍스트에는 역사와 계시, 차안과 피안, 내재와 초월이 변증법적으로 얽여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모세의 야훼 하나님 경험에 대한 진술인 출애굽기 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노예생활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나는 나다.”로 자신을 규정하는 초월적 하나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와 하나님 경험이 교차하고 있는 성서 텍스트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설교자가 기울여야 할 해석학적 노력은 매우 엄정하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훨씬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성서 텍스트 자체가 이미 해석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성서 텍스트는 해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 텍스트는 신문기자의 현장 보도가 아니라 당시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구약의 예언자, 또는 신약의 사도 및 속사도에 의해서 해석된, 그리고 전승된 텍스트이다. 우리가 그 성서 텍스트를 청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서 기자들의 신학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뿌리를 두고 있는 원천 계시 사건으로 소급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의 실질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흡사 심장수술 의사가 고도의 의학공부와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설교자들도 역시 이런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당신의 주장은 설교의 토대를 성령에 놓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학문에 놓는 거 아니냐, 하고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

셨다는 기본적인 신론과 성령론과 인간론에 근거해서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는 이런 해석학적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성령에 의존하는 설교인지에 관한 논의로는 깊이 들어가지 말자. 성결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신학과 설교도 보편적 진리의 토대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만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성령은 한 시대, 한 교파의 교리를 훨씬 뛰어넘는 보편적인 진리와 생명의 영이며, 창조와 종말의 영이 아니신가!

필자는 이제 설교의 해석학적 요청이 무엇인지를 김 목사의 설교에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야겠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건전한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김 목사의 설교를 매도하는 것처럼 비칠지 몰라 약간 염려스럽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자가 건네받은 설교 텍스트와 동영상에 그의 설교를 종합적으로 다룰 만큼 충분한 양이 못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이 글쓰기의 오류가 발견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 두루두루 양해를 바란다.

성서 텍스트의 지평 속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의 설교는 딤후 1:8절을 본문으로 한다. 한 구절을 차례대로 명상 방식으로 공부하는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교회력에 따른 케리그마 중심의 주일공동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본문으로 삼는 설교는 별로 추천할만한 방식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제목설교로 떨어지기 쉬운데, 자칫 설교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성서 텍스트를 재단해버릴 위험성이 크다. 어쨌든 그가 선택한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김 목사는 이 본문의 한 단어 “고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 설교에서 별로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설교였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설교자들이 걸려들기 쉬운 함정이 있다. 신앙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설교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설교는 신앙적 덕담이 아니요, 주례사는 더더욱 아니다. 설교는 성서 텍스트의 구체적인 지평으로 일단 들어가야만 한다.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일단 성서 텍스트의 고유한 세계와 만나는 게 설교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작업이다. 왜냐하면 성서 텍스트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경험과 고백이며, 따라서 성서의 세계는 인간 삶과 그 역사가 다양하고 다채롭듯이 놀랍도록 다양하고 다채롭기 때문이다. 김 목사가 설교 주제로 삼은 “고난”에 대해서 성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말이다.

김 목사는 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소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나를 홀로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고난은 나를 주님께 가까이 하게 만든다. 셋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가져다준다. 필자는 김 목사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설교라는 점에서 고개를 끄떡이면서 들을 수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에 신경이 쓰였다.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성서 본문이 말하려는 것인지 확신하기 힘들다. 성서 텍스트의 구체적인 자리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신앙경험에서 나온 설교처럼 들린다는 말이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세 가지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소주제들이 열거될 수 있다. 고난은 기도

하게 만든다. 고난은 찬양하게 만든다. 고난은 말씀을 읽게 만든다. 고난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고난은 성령과 교통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일반론이 파생시키는 설교의 진부성이다.

김 목사는 위의 설교에서 복음에 의한 고난과 자신의 잘못에 의한 고난을 구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고난은 이런 고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소명,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소명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소명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김 목사의 주장은 옳은가? 물론 일반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믿음의 고난과 삶의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다. 트집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설교자들은 인간 삶의 깊이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의 임무를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서 텍스트의 역사적 지평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김 목사가 내린 결론도 역시 이런 일반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저는 이런 믿음에 대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후보칼럼에 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들게 살 때 내 가족이 편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서 텍스트의 구체성을 전제할 때만 유효하다. 더구나 이런 일반론은 신학적으로 충분한 성찰을 거쳐야 한다. 지금 김 목사가 주제로 다룬 “고난”은 매우 오래된 신학적 문제이다. 이미 옮기는 “무죄한 자의 고난”을 실존적 깊이와 우주론적 넓이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 인간 삶에는 알 수 없는 고난과 불행과 좌절이 넘친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물론 신앙적으로 위로할 수도 있으며, 그래야만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구체성을 갖지 않으면 정말 “설교하고 있네!”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음참마속

김 목사는 “힘써 살리라”(호 6:1-3)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소주제를 다루면서 아간을 예로 들었다.

애인을 위해서 외투를 감추고 금을 감추었던 아간을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가운데서 아무것도 손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외투 한 벌과 금을 감추어두었습니다. <중략>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날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김 목사는 이 단락에서 아간 외에도 요나와 베드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해석은 호세아 본문의 오독(誤讀)이다.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개역)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공동번역) “Er wird uns am dritten Tage aufrichten, daß wir vor ihm leben werden.”(루터 번역) 모든 번역본들의 해당구절을 보거나, 또는 1-3절 전체 문맥을 놓고 볼 때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못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에 무게가 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로 든 아간 이야기를 김 목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일단 그는 성서 본문의 사실관계에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이런 문제는 다른 설교에서도 곧잘 발견된다. 본인은 그걸 단지 욕의 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중들에게는 설교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다가갈 것이다. 김 목사는 위의 대목에서 아간이 ‘애인’을 위해서 외투를 감추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성서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암시하는 말도 없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없다. 성서기자는 이 사건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담백한 문장으로 서술할 뿐이다. 여호수아의 추상같은 호령에 아간은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한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이백 세겔, 금 오십 세겔을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고 말이다.(수 7:21)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아들과 딸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재산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았다. 성서기자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아골 골짜기에 연관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기억했을까?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이 끝나고 모세가 죽은 다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도력 확보였다. 그 지도력 문제는 단지 여호수아라는 자연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는 광야시절을 함께 견뎌낸 아간의 전리품 절도사건 앞에서 고뇌했을 것이다. 정상을 참작할 것인가, 아니면 일벌백계인가? 여호수아는 후자를 택한다. 그는 아간만이 아니라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다. 인간의情理(情理)보다는 내부결속을 통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훨씬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이 비참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그곳을 ‘괴로움’이라는 뜻의 아골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아간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겼을 개연성이 높다. 이 아간 전승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나 제비뽑기의 주술적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음참마속(泣斬馬謖)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으로 가나안 정복의 서장(序章)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으며, 그 뒤로도 소위 ‘제로, 섬’ 논리가 작동하는 고대, 특히 수많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해낼 수 있었다.

필자는 구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간전승에 대한 위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자신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성서 텍스트는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서 텍스트는 매번 똑같이 적용되어도 될,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가진 신학자와 설교자에 의해서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문서가 아닌

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서를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한 이미 창조 사건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령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설교자들이 이 맥락을 놓치면 결국 성서는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신앙의 정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성서의 해석학적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서를 단지 신앙정보로만 다루게 될 경우에 설교자들은 성서 언어의 존재론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성서 언어가 존재의 차원의 아니라 기술의 차원에 머물고 만다는 뜻이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이미 기술로 전락해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 성서 텍스트의 영적인 깊이로 천착하는 설교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대신 설교의 기술에 능한 설교자들만 큰소리치는 실정은 아닐까? 성서 텍스트의 해석학적 요청에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설교자를 찾아보기 힘들어 하는 말이다.

목회 패러다임 쉬프트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의 해석학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왕도가 없다. 성서 역사비평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고, 그 성서의 내용을 교리로 체계화한 조직신학적 사유를 훈련해야 하며, 인간 삶의 흔적이라 할 인문학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이런 공부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신학대학교의 신학과정은 사실 초보를 위한 개론에 불과하다. 설교자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평생 구도자처럼 성서와 신학과 삶을 붙들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목회자의 영성이 극도로 소진되고 있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 무의미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매 주일 예배참석자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헌금 액수도 역시 신경 써야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청소와 송합차 기사 역할까지,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말리러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목사가 언제 이런 기본적인 공부와 영성의 심화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의 개신교회도 가톨릭교회처럼 목사를 설교의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때가 왔는지 모르겠다. 가톨릭교회는 교구별로 주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준비된 설교의 기본 매뉴얼을 제공한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예배(미사)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제들의 영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톨릭 교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원인도 교회 시스템과 성직자의 영성을 꾸준히 관리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목사의 영성이 바르게 심화할 수 있는 목회 구조와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끝으로, 김 목사의 설교가 필자의 영혼 깊은 곳에 평안함을 주었다는 처음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다. 목회자에게는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자의 품성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김 목사의 목회를 통해서 후암백합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한다.

“토종목사”가 전하는 토종복음의 정체

-수유리교회 방인근 목사-

수유리교회 방인근 목사님(이하 ‘방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일 게다. 우선 그는 말에서 거침이 없다. 강단이 아니라 저자거리의 표현에 가까운 “개기다” 같은 용어도 그의 설교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다. 원래 그는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설교자에 속한다. 그가 출판한 몇 권의 책에서 우리는 그가 도달한 노장 유의 초월적인 거시세계만이 아니라 고급한 언어세계도 발견할 수 있다. 궁극적인 세계를 구도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온 방 목사의 언어가 이처럼 극과 극으로, 즉 극히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와 거의 육담(肉談)에 가까운 언어로 나뉜다는 사실은 바로 방 목사의 내면세계와 연관되는 것 같다. 헤르만 헷세의 <나르찌스와 골드문트>에서 종교와 예술이, 이성과 감성이, 정신과 육체가, 또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다투듯이 그의 내면에서는 두 언어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에 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원고설교인지 요약설교인지, 아니면 즉흥설교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설교하는 30분 동안 내도록 청중만을 직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청중과의 교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언어구사의 순발력이 돋보였다. 이렇듯 청중을 향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청중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그런 카리스마 앞에서 누가 한눈을 팔수 있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이란 말씀이옵시다.”, 또는 “...이 말입니다.”는 어투가 그의 설교에서 반복된다는 게 재미있었다. 내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편의 설교에서 최소한 스무 번 이상은 나

을 것 같다. 설교학 교수들이 보았다면 그걸 고치라고 말했겠지만, 이런 게 방 목사에게는 고유한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조용기 목사에게도 반복되는 어투가 있다. 그런 어투를 카운트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시간이 잘 간다.

설교하는 태도에서, 그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설교단을 양팔로 껴안듯이 잡고 설교했다. 흡사 고수(鼓手)가 장구를 안듯이 말이다. 죄송스럽게도 나는 설교단을 잡은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교의 리듬을 타면서 손과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일시적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설교 중에 팔의 처리는 골치 아픈 문제이다. 차렷 자세로만 있을 수도 없고, 말할 때마다 흔들어댈 수도 없다. 그렇다고 바지주머니에 찌르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닌가. 방 목사는 그렇게 설교단을 껴안고 있는 게 편하신 것 같다. 어쨌든 지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필자는 그의 설교 텍스트와 동영상상을 재미있게 읽고, 또 시청했다.

설교와 설교자

필자가 방 목사의 설교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들은 더 큰 이유는 그의 설교를 추동해가고 있는 목회적 열정이었다. 이 말은 곧 그의 설교에는 설교와 설교 행위자가 약간의 틈도 없이 실존적으로 밀착해있었다는 뜻이다. 다른 설교자의 경우에 설교의 말과 설교자의 삶이 따로 놀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느슨한데 반해서, 방 목사의 설교에는 그런 게 전혀 눈에 띄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설교 행위는 곧 그의 실존 자체였으며, 설교 내용은 흡사 간증과 같은 열정과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겨우 10편 밖에 되

지 않는 그의 설교를 접했지만 거기서 그의 신앙과 세계관과 삶 자체를 상당히 따라잡을 수 있었다.

예컨대 그는 총각시절에 실연당하고 괴로워 술에 취한 적도 있고 (2006년 7월9일 설교. 이하 월일만 표기), 세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서 욕을 배웠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여성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도(7월23일)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모습도 보인다.(6월18일) 그는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그들이 그곳 인디언들에게 행한 행위를 그는 규탄하고 있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은 조크 뒤에 나온 것이다. 흑인은 성령의 불에 탄 사람들이고, 황인은 적당하게 탄 사람이고, 백인은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이다.(6월28일, 6월25일) 그와 동시에 레드 콤플렉스에 빠진 분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반공주의 정신이 투철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고(6월18일), 군기가 강한 헌병출신이며(7월30일), 강원릉 목사의 죽음을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애도할 정도로(8월20일) 한국 기독교를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본다. 필자는 지금 그의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실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방 목사가 설교 행위에 자기의 전체 실존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이다. 그의 설교 행위에 나타나는 이런 실존적 특징은 <기독교사상> 2006년 9월호에 기고한 “한국교회, 혈연공동체의 탈출을 꿈꾼다”는 그의 글 첫머리에 잘 드러난다. 독자들에게 약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 인근 목사의 자기 정체성이 잘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 여기에 인용한다.

나는 65세, 은퇴를 앞둔 목사이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목사가 되어 은퇴를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겪을만한 일은 다 겪은 사람이다.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로부터 각종 모임의 임원은 물론, 스피커랑 마이크를 메고 장돌뱅이처럼 시골 오일장을 돌며 노방전도하기, 인형극 무대 메고 동네마다 돌며 한 주간씩 전도 집회열기, 청년시절 교회 개척한다고 시골 동네에다 천막치고 집회하기, 목사가 된 후 예배당도 짓고, 교단 내의 이러저런 직책을 맡아 일하기도 했으며, 사흘씩 열흘씩 금식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말 안하는 침묵기도도 상당기간 했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한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CBS, KBS, MBC 등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고, 교계 신문에 글도 쓰고 책도 서너 권 냈으며, 심지어는 민주화운동하는 이들 틈에 끼어 데모하다가 최루탄에 쫓겨 도망질을 치기도 했는데, 그때 주워 들고 온 최루탄 껍데기는 창고 구석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겪을 일 다 겪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가 내 개인 사이기보다는 내 나이 또래 대부분의 목사들이 겪은 일들이기에 한 자락 까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늙은 한국 토종목사”라고 칭한다. 이런 표현은 자긍인가 자조인가? 늙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의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위에 인용한 글 마지막 단락에서 그가 “한국교회 현장을 생각하면 많이 울며 떠날 것 같다.”고 토로했듯이 흘러간 시간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느끼는 당혹스러움에 대한 실토이기도 하다. “토종”이라는 말 자체도 이중적으로 들린다. 한민족 특유의 원초적 파토스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담은 말이 아닐는지. 필자가 보기에 그는 동양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서도 유럽의 문화를 부러워한다. 이런 이중성이 그의 목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성결교회의 원초적인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목회 프로그램은 매우 현대적이다. 그가 “수성타워”를 중심으로 펼치고자 하는 21세기 목회전략은 386 세대보다 앞서 있었다. 토종이면서 토종을 벗어나려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은가. 어쨌거나 그는 설교에서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마는, 보기에 따라서 세련되지 못한 토종목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성령체험과 삶의 변화

지금까지 필자는 주로 방 목사의 설교에 대한 외적인 부분을 설명한 셈이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격적으로 설교의 내적인 부분을 다루어야겠다. 사실은 내적인 부분이 외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서의 진술로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힌 셈이다. 그것은 곧 토종이라는 용어가 암시하고 있듯이 그는 복음의 원초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자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필자는 “토종복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필자가 건네받은 방 목사의 설교는 2006년 6월4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행해진 것인데, 6월4일부터 7월9일까지 다섯 편의 설교는 집중적으로 성령을 설교했다.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성령세례, 또는 성령체험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보자.

“성령침례로 시작된 영성시대”(행 1:4,5)라는 설교에서 방 목사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강조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번에는 성령
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에는
빠져 죽는 것이고, 성령은 불이니 불로 타 죽는 것이 옳습니다.
<중략> 그 악한 죄악성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죽어 버리고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함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
는 성령침례를 받게 될 것이니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6월4일)

“성령은 불이다”(행 2:1-4)는 설교에서 방 목사는 성령 받는다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신앙상태로 돌입하는
금상첨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라고 주장했다.

성령 받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명목상의 구원이 그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
지고 모든 게 달라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
력 많으심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과 이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그 속에 내가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달라짐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6월11일)

“성령은 일치를 이루신다.”는 설교에서 방 목사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방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제 나라말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행 2:5-13) 하나
님과의 일치, 사람과의 일치, 정서적 일치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여기 있는 겁니다. 육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들은 화살이 되어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그런다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언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이 죽일 놈아! 그래도 은혜 받습니다. <중략>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그렇게 만드느 겁니다.(7월9일)

성령세례, 성령체험에 대한 방 목사의 입장은 아주 뚜렷하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령체험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이다. “다른 모든 테크니컬 한 것들은 사기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속임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통적인 것은 오로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죽고 성령으로 불태워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로워짐으로 달라지는 것만이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며 정통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6월 4일)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 목사에게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예컨대 선종(禪宗)에서 말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에 가깝다. 한 번의 깨우침으로 일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의 속성 말이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성화가 순간적이냐 점진적이냐 하는 논쟁은 계속되어 온 것인데, 방 목사는 순간적인 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단 여기서 순간적이라는 말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이다. 그가 성령 중심의 순간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그의 신앙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그가 젊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가 한분 계셨는데,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어눌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는 구음이 정확하게 변화했으며, 아

들을 “똥근아!”라고 부르면서 욕을 해대던 어머니께서 성령을 받은 뒤로 완전히 변해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 가지는 그의 설교에서 성령 받음의 문제가 실천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강조는 나머지 설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설교 제목을 보라. “춤추며 찬양하라”(시 150:1-6, 7월16일), “걸으라, 뛰라, 찬양하라”(행 3:1-10, 7월23일), “꿈을 꾸라, 환상을 보라, 예언하라.”(행 2:14-21, 7월30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행 2:43, 8월13일), “또 다른 구원 조건, 유익한 일에 도전하라.”(마 25:29,30, 8월20일). 필자의 손에 들어온 10편의 설교 중에서 5편이 “... 하라.”는 적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미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거론한 바 있으며,(갈 5:22,23) 성결교회의 신학적 원조라 할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 완전”이나 성결교회의 정서적 원조라 할 미국의 부흥운동이 강조하는 회심과 성결한 삶도 역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뜻한다.

위에서 필자가 방 목사의 설교를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이다. 성령체험을 통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 바로 이것이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토종복음의 정체이다.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인 데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험뜯음의 말에서 칭찬의 말로, 분열에서 일치로 변화하는 삶을 목표로 그는 설교한다.

다른 설교자들도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방 목사의 설교는 그 변화를 존재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가 말하는 변화는 겉모양의 변화인 교양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의 변화인 존재의 차원이다.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존재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우리는 자칫 존재의 변화 없이 무늬만 바뀌어도 그것을 변화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진술이 가리키고 있듯이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쨌든지 방 목사의 설교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구나 그것을 존재론적인 토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필자가 보기에 그것이 그의 설교에 과도하게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설교의 근본이 허물어진 것 같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씀의 적용에 치우치다가 그 말씀 자체가 상당한 부분에서 실종되었다는 말이다. “적응과잉, 말씀축소”는 설교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특히 설교의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베테랑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이다. 이제 그 현상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서텍스트의 실종

필자가 받은 설교에 한정해서 보면, 방 목사는 사도행전 2:1-4절만으로 세 번이나 설교했다. 그 내용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다.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사건은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매우 특별한 경험에 대한 진술이다. 120명으로 추정되는 그들이 모여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이다. 그 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급기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방언을, 정확하게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자인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전해들은 것일까? 그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첫머리에서 보도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기서 성서비평의 문제를 언급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가알부하지 않겠다. 다만 성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의 설교자는 이 성서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정황 안으로, 즉 성서텍스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설교는 청중들을 성서텍스트의 지평으로 안내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간과되는 경우에 성서는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다.

동일한 본문으로 세 번에 걸쳐 설교하면서도 방 목사는 본문 사도행전 2:1-4절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는 본문을 거의 거들떠보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필자의 궁금증이 이것이다. 왜 그는 본문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성령을 불, 바람, 허라는 비유로 설교했을까? 청중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걸까? 필자는 지금 설교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설교의 단초인 성서텍스트를 왜 소홀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중이다. 다른 설교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받아본 10편의 설교는 모두 동일하게 성서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미미했기에 하는 말이다. 한 군데만 더 예를 들겠다. “또 다른 구원의 조건, 유익한 일에 도전하라”라는 설교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구절을 본문으로 한다.(마 25:29~30) 그는 이렇게 설교를 열었다.

내가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내어 쫓는다니 그러면 안은 어디입니까? 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구원 받은 공간, 복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깥으로 내어 쫓긴다. 그런 말입니다.(8월20일)

그 뒤로 그는 다음과 같은 작은 주제를 열거했다.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심판을 받는다.”, “웁으냐 그르냐의 단계에서 유익하냐 무익하냐의 단계로”, “유익한 일의 결과가 곧 자기가 얻을 몫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구원이 명목상의 구원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구원이 되려면 유익한 일에 도전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유익한 일을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하나씩 차근 차근 도전해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으로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되길 축원합니다.(8월20일)

필자가 설교 전체를 설명하지 않아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의 설교 어디에도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영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 비유가 마 25장에 등장하는 다른 비유들과는 어떻게 연관되며, 예루살렘 멸망(70년) 이후 극우로 돌아서는 바리새인 운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불문곡직하고 청중들

의 삶에 적용시켰을 뿐이다. 이 본문을 직접 읽었던 2천 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필자는 그의 설교에서 맛볼 수 없었다. 오늘의 청중들이 듣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됐지 과거 성서공동체의 영성, 그런 게 뭐 중요한가, 하고 말씀하지는 마시라. 설교는 오늘의 청중이 은혜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다. 본문설교가 아니라 제목설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의 문제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거나, 또는 설교는 신학강의가 아니니까 굳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설교 내용의 전개를 본문에 의존하지 않는 제목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제목이나 주제에 이르는 성서적 토대의 해명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또한 성서텍스트의 지평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전문적인(성서)신학을 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설교행위에서 전문적인 신학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사족이지만, 앞으로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필자가 부연하지는 않겠다. 신학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직결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

성서텍스트의 중심찾기

이왕에 성서텍스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필자는 설교자가 성서 본문의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설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짚어야겠다. “걸으라, 뛰라, 찬양하라.”(행 3:1-10)는 설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의 앓은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본문으로 한다. 많은 목사들은 이 본문으로 신앙의 앓은뱅이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삶

으로 나가자고 설교할 것이다. 방 목사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설교를 셋으로 구성했다. 1) 앓은뱅이-과거에 갇힌 현재, 2) 미래가 오늘을 결정하는 열려있는 삶, 3) 예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생활, 생애 전체가 걷고 뛰고 달리는 축복의 생애로 변화되기를 빕니다.”(7월23일)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솔로몬 행각에서 행하게 될 베드로의 설교를 암시하는 단서인데, 필자가 보기에 설교자는 이 본문에서 앓은뱅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앓은뱅이처럼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찬양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설교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서텍스트가 말하려는 중심은 아니다. 이 보도를 왜 그렇게 고정된 시각으로만 보는지, 왜 본문의 중심을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게 아쉽다. 설교자들은 성서텍스트를 늘 새롭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신학적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본문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그 문제는 훨씬 복합적이기도 하고, 설교자 개개인의 창조성이 발휘되어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필자가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원칙만은 제시할 수 있다. 본문 행 3:1-10 전체와 그 앞뒤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성서기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일단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미 본문이 그걸 적시하고 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10절) 초기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주변 세계에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당연히 그래야만 했다. 그런 놀라움의 한 사건으로 앓은뱅이 치유사건이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치유 사건이 왜 그 당시에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사도행전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

여 있었는지를 청중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떤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사건으로, 생명사건으로, 구원의 신비를 담지한 공동체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설교자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일어나서 뛰고 찬양합시다.” 하고 설교한다면 그런 설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성서의 중심을 놓친 채 인간변화를 위한 종교교양강좌나 웅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설교자가 천착해야 할 성서의 놀라운 세계는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통치)이다.

인간변화? 염려하지 마시라.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또한 설교자가 아무리 계몽하고 뉘달하더라도 청중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설교자가 가까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청중들이 생명의 영인 성령의 신비로운 활동을 맞본다면 그때 청중들에게 존재론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성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따라서 설교는 적용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이 글을 읽게 될 방 목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필자의 눈에 선하다. 그는 틀림없이 껄껄 웃으실 것이다. 그는 통이 크며, 섬세하시다. 그의 삶 자체가 그렇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배 노릇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방 목사가 어디 자신의 설교를 평가받고 싶어서 이런 자리에 나섰겠는가. 정 목사, 당신이 내 설교를 마음껏 비평하면서 성결교회의 젊은 설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시오. 그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필자도 그런 편만한 마음으로, 또 송구스러운 마음

으로 거칠게 몇 자 적었다. 토종목사의 남은 사역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내러티브 설교의 함정

-만리현 교회 이형로 목사-

이형로 목사님(이하 ‘이 목사’)이 2005년과 2006년에 행한 설교 14편을 텍스트로 읽거나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필자는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편안하다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나의 영성이 그의 설교에 공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쉽지 않다. 어떤 경우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허황하거나, 심지어는 속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 목사의 설교가 표면적으로 대중을 사로잡을만한 카리스마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중들의 영성을 잔잔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는 전반적으로 매우 침착하게 설교한다.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일이 없다. 강조하는 대목에서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오버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아마 그의 내면세계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탓이리라. 이런 대목은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웅변하듯이 목소리와 감정을 고조시키는 설교가 순간적으로는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안정적인 태도로 진행되는 설교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가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설교를 끌고 나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던 목숨을 건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중략>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감정은 변하고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내 감정에 기초해서 내가 믿는다 하고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려서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실에 근거를 둔 믿음과 확신은 영원합니다.(2006년 1월15일 설교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라.” 중에서. 이하 연과 월일만 숫자로만 표기)

이 목사는 영혼의 심층에서 올라나는 존재론적 음악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예술가처럼 믿음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설교한다. 그런 설교자는 공연히 흥분해서 열을 올릴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청중들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영적인 세계에 포착되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설교는 청중들의 이성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영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내면세계에 평화를 제공한다.

필자가 그의 설교에서 영적인 평안, 혹은 평화를 느낀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그가 신앙의 근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접한 설교에서 그는 십일조 헌금을 비롯해서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설교 시간에 신자들을 책망하는 법이 없다. 신자들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설교에서 헌금과 책망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설교의 중심에 자리할 수 없으며, 특히 케리그마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주일공동예배의 설교에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요소들은 신앙의

결과일 뿐이지 신앙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목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보석처럼 연마하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야기 식 설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찬찬히 풀어가면서 청중들을 설득해가는 그의 설교는 일단 필자의 눈에 건강해 보였다. 이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이를 멘토(mentor) 영성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 목사의 설교를 큰 틀에서 윤곽을 잡았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겠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의 설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멘토 영성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의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그의 설교가 ‘내러티브’(narrative), 즉 이야기 식의 특징을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설교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한결같다. 그는 말 그대로 청중들과 이야기 하듯이 설교한다. 친구나 연인, 또는 자상한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그는 상대방에게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이야기하는 설교자이다. 마음의 문이 닫힌 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 드는 법이다. 우선 형식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목사의 설교 어투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그의 어투는 명령형이 아니라 설득형이다. 예컨대 2005년 3월27일 “나는 승리했노라.”(요 20:1-10)는 설교의 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적이었던 그 세 가지 적, 죄와 죄책과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설교자였다면 “믿으십시오!”하고 말았을 텐데, 이 목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하고 말한다. “...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어투는 그의 설교 어느 곳에서나 지천으로 발견된다. 이런 어투가 일반대화에서도 나오는 이 목사의 습관인지, 아니면 설교 행위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청중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안내하는 멘토라는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긴 하다. “사실 목회자는 명령이 필요한 것이지 사정하거나 부탁하거나 ...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점잖아 가지고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니예요.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십시오.”(06.1.8) 그러나 그는 천성적으로 청중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못된다. 이런 점들이 오히려 그의 설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그의 설교에는 의문문이 놀랍게 자주 등장한다. 이 부분도 청중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이 목사의 개인적인 캐릭터인지 필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또한 청중들을 향해서 거의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방식의 설교패턴이 옳은지 아닌지도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는 말할 입장이 못 된다. 다만 그의 이러한 어투가 매우 효과적으로 청중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의 설

교에서 의문문 형식의 어투는 앞에서 언급한 설득형의 어투보다 훨씬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물이 무엇인가요?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나요? 연약함에 옵니다. 강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하면 무엇이 두려운가요?(06.1.8)

반복적인 의문형의 어투는 때에 따라서 설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위험 요인도 된다. 그러나 이 목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설교형식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위험 요소가 극복된 것 같다. 약간 다른 뉘앙스이지만 그의 어투에 수동형이나 수동의 반복형이 예상외로 자주 나오는데, 이걸 명확한 문장으로 바꾸는 게 좋다. 예컨대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기록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06.1.1)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06.4.16)는 “해결됩니다.”로 표현해야 한다.

이 목사는 위에서 말한 어투에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청중과의 소통에 큰 비중을 두는 설교형식을 취한다. 그는 영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설교 도중에 필요한 성구나 요약된 본문을 프로젝터로 보여주면서 설교를 끌어간다. 그가 사용하는 예화도 청중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간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나온 통계치를 이렇게 인용했다. 교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투크대학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혈압 수치에서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온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정상 수치에 훨씬 가깝다고 한다. 수술 후 회복기간에 대한 조사, 우울증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통계수치를 통한 예화들은 청중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설교의 설득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높은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 목사가 제공하는 예화들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현실적인 것들이 많았다.

전도설교

위에서 짚은 대로 필자의 생각에 이 목사의 설교는 청중들과의 소통에 무게를 둔 이야기 식 설교이다. 물론 설교는 기본적으로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설교자는 없으며, 또한 설교는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름으로 이야기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 설교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이런 특징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청중과의 소통은 접어둔 채 설교자 혼자서 권위적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흔하고, 신학 에세이나 논문처럼 ‘내러티브’보다는 개념에 중심을 둔 설교도 있다. 이 목사의 설교는 이런 점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소통과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설교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가 행하는 설교 내용은 거의 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설교이다. 이런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분들이 있겠지만, 필자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의 설교가 청중들과의 소통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역시 청중들의 눈높이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전하는 데 치중한다. 2005년과 2006년의 부활절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겠다.

이 목사는 2005년 3월27일 부활절에 “나는 승리했노라”(요 20:1-10)는 설교를 했다. 그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부활

절 전승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자신의 신학적 해석을 곁들이지 않고 성서의 진술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는 무덤 속에 놓여있는 예수의 수의가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았으며, 개인의 생애도 바꿔 놓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은 우리의 최종 거주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다 죽어서 묻히는 무덤은 우리의 최종 거주지가 아니라 임시 체류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은혜에 응답하는 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다. 그는 이날 복잡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 부활의 확실성과 그것에 근거한 우리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의 태도인 감사와 충성이 그것이다.

2006년 4월16일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12가지 이유 (1)”(요 11:17-27)라는 설교는 세 주간에 걸친 연속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이다. 죽어 장사 지낸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집에 들르신 예수가 마르다와 나눈 대화가 성서본문의 내용이다. 이 묵사는 이 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는 7,80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에 비해 영원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우 극적으로 설명해나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을 살게”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둘째,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안, 영광, 건강, 소망, 구원, 영생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셋째,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병에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마음에 속한 것도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건강해진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므로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고 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 믿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가정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요약만으로 그의 설교가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는 없겠지만, 필자의 눈에는 그의 설교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초기 선교사들이나 조선의 1세대 설교자들이 행한 설교처럼 들렸다.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진 설교이다. 이 목사는 말 그대로 순전한 복음에 천착하는 설교자이다. 우직하게 보일 정도로 그는 복음의 기초와 진수에만 골몰하고 있다. 설교자의 주관적인 간증과 해석이 범람하는 오늘의 강단 풍조에서 볼 때 이 목사의 설교는 마치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파묻혀 살다가 모처럼 예쁘게 단장하고 나선 시골처녀와 같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니까 이해를 바란다.

그런데 설교에 비해서 목회는 놀랍도록 진취적이고 화려하다. 2006년 교회 표어는 “우리는 축제예배로 간다. 우리는 구역교회로 간다!”였다. “34비전”도 야무지다. 3천명의 신자, 300명의 평신도 목회자, 30억 비전센터, 3개 교회개혁이 그들의 꿈이다. 3으로 시작한 4

가지 목표이다. 이런 비전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차츰 다가오는 것 같다. 오늘의 만리현 교회는 성결교회 중에서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4월13일 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만리현 교회에 관한 보도를 보면 이 목사가 만리현 교회에 부임한 1994년 이후 10년 동안 장년 신자가 350명에서 900명으로 늘었다. 만리현 교회의 활동은 지역교회에 밀착되어 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전형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리현 교회는 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독서교실, 코스영어, 음악학교 등 지역과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당을 전방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인근의 홀몸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우들을 꾸준히 도와주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경노당과 효창공원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수지침을 놓아드리거나 치매 예방을 위한 종이접기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목사의 순수한 설교와 열정적인 목회가 교회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가지치기 식 설교

오늘 필자가 처한 입장이 좀 난처하다. 내려티브 설교의 한 전형을 보이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필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만리현 교회가 지역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사족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한 채, 짝죽걸기라는 욕을 먹을 각오로,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의 설교에서 맞본 아쉬운 대목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해야겠다. 이것은 곧 내려티브 설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설명이다. 물론 이런 함정이 반드시 내려티브 설교

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성이 높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필자는 이 목사가 실제로 그런 함정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청중들을 배려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인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그 함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교가 너무 길다. 40분이라는 시간도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설교의 흐름이 그렇다는 뜻이다. 그의 설교는 질질 끌린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순수한 설교라고 하더라도 진부하다고 느끼게 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는지. 그의 설교가 필자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의 설교는 하나의 관점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 식으로 분산된다. 전체 설교를 서너 가지 작은 주제로 나누고, 그 작은 주제를 또 다시 서너 가지 소주제로 나누기도 한다. 소위 대지소지 식의 구성이다. 이렇게 되면 청중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 맥을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2005년 9월4일 설교 “내 눈을 열어서 무너진 것을 보게 하소서”(느 1:1-11)에서 이 목사는 느헤미야가 처한 역사적 배경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삶과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적 태도를 그는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바르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 뒤로 이 목사는 4절에 나오는 일련의 동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필요한 항목들을 나열했다. 둘째, 울며 슬퍼하는 것이다. 셋째, 기도이다. 여기까지는 이 목사의 설교 패턴이니까 그렇다 하고, 그가 세 번째로 제기한 기도 문제를 또 다시 네 가지 소주제로 가지치기를 했다. 즉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첫째로 찬양, 둘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셋째는 회개, 네 번째는 간구이다. 설교가 옥상 옥처럼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의 조건을 네 가지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전체 주제

로 돌아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 요소를 헌신이라고 제시했다.

그가 대지와 소지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라. 질문, 회개, 기도, 헌신, 찬양, 위대한 하나님, 회개, 간구, 헌신이 필요에 따라서 순서만 바뀌고 있다. 그의 다른 설교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가 나열하고 있는 각각의 신앙 용어들은 제 각각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모두 담고 있는 것들이다. 그중에서 하나만 붙들고 씨름한다고 하더라도 3,40분의 설교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그 모든 것을 한 설교에서 다루고 있으며, 서로 중복되고 있으니 장황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내러티브 설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성서 언어의 심층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채 흡사 ‘돌려막기’ 식으로 설교를 끌어가는 방식 말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설교학에서 언급되는 내러티브 설교가 무조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야기 방식에 무게를 두다보면 이런 개연성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 목사의 설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서와 신앙 언어를 생각 없이, 즉 해석학적 과정 없이 쏟아내는가? 필자가 보기에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신앙언어의 인플레이션과 형해화! 창조, 영생, 기도, 종말, 사랑, 희망, 믿음, 구원, 실존, 칭의, 성화 등등, 이런 신앙 언어 안에 놓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채 그걸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한다. 설교의 차이는 다만 감동적인 예화,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입담, 또는 설교자의 인격에 있을 뿐이다. 매주일 설교제목과 본문은 바뀌지만 내용은 늘 “그 시절 그 노래”에 불과하며,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 강단의 이런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불행이고, 설교

자에게는 비극이다.

신앙언어의 심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슬쩍 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목회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가벼운 종교적 욕구를 건드려주는 방식의 목회와 설교에 길들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자의 영성은 그런 방식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 예컨대 설교자가 창조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으로는 도저히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설교자의 영성은 신탁(神託)에서만 보존된다. 그건 깊이의 영성이자 높이(神性)의 영성이 아니다. 그건 존재의 차원이자 소유의 차원이 아니다. 목회의 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서의 영적인 깊이에서 존재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성이다. 만약 이런 영성 없이 설교자로 활동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든지 아니면 기독교 영성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필자가 도사처럼 굴었다면, 용서를 바란다.

한편의 설교를 더 예로 들어야겠다. 2006년 4월23일의 설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12가지 이유(2)”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신 사건을 본문(요 6:16-21)으로 한다. 지난주에 이은 연속설교인 탓에 그는 네 번째 이유부터 열거해나가기 시작했다. 넷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섯째, 예수를 믿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여섯째,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일곱째, 예수를 믿으면 형통함을 얻는다. 그는 이 설교에서 성서텍스트를 거의 무시했다.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앞의 세 가지 요인에 관련된 성구는 다른 데서 인용했고, 마지막 요인만 호수 위를 걸으신 본문으로 설명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적적인 사건으로 해명하고 있는 본문을 형통의 원리로 제시한다는 것도 정당한 성서해석은 아니다.

이 목사는 성서텍스트의 변죽만 울리면서 부단히 설교를 옆으로만 확대재생산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유로 제시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는 이미 한편의 설교로 답아야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여러 대지 중의 하나로 삼은 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건들을 성서전체에서 끌어들이고 있었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 옥에서 벗어난 바울, 비를 몰고 온 엘리야 등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설교자는 성서텍스트와 씨름할 필요 없다. 성구사전 한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성서가 한낱 소품처럼 취급되는 이런 설교를 만날 때마다 필자는 설교허무주의를 맛본다.

찬송가 설교?

이 목사의 설교에서 성서텍스트가 소품 정도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2006년 사순절 기간에 행한 찬송가 중심의 설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3월5일 주일에 그는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 기도를 본문으로(마 26:36-46) “주님을 생각할 때에”라는 설교를 했다. 그는 성서본문은 접어둔 채 찬송가 510장 “겿세마네 동산의”라는 찬송가 가사를 중심으로 설교했다. 찬송가 1절은 함께 부르고, 2절은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3절은 탁응수 전도사가 독창으로 부르고, 4절은 현악팀이 연주하면서, 그야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 시간이 기도원에서 개최한 신앙수련회였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주일공동예배라는 사실 앞에서 필자는 뭔가 찝찝했다. 그에게는 성서기자들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진솔보다 찬송가 작사자들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는 말인가?

3월12일의 설교는 마태복음 11:28-30절을 본문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크로비가 작사한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

네”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 성서본문은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짚었을 뿐이다. 그는 왜 성서텍스트 없이 설교하는가? 대답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성서를 하나님의 은혜된 계시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주간에 걸쳐서 찬송가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의 말은 성서실증주의에 불과한 것 같소,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됐지 성서에 묵일 필요가 있겠소, 하는 반론이 가능하다. 성서실증주의와 은혜지상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 입장만 변호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는 “솔라 피데”(오직 성서)라는 신학적 슬로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간혹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서보다는 개인 신앙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때가 있었지만, 결국 기독교는 성서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서의 해석인 신학을 통해서 성서의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 없이 신앙체험을 강조하거나 청중들의 은혜나 목회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길을 잃는다. 대개의 사이비 이단들의 단초가 바로 성서 중심으로부터 체험과 은혜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이었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목회, 은혜, 교회는 모두 성서의 하부구조이다.

글머리에서 필자는 이 목사의 설교가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이 목사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인 신뢰는 분명하다는 뜻이다. 위에서 필자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의 설교 전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며, 더 근본적으로는 필자의 비평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독자들께서 필자의 중심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앞으로 만리현 교회가 이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과 삶에서 더욱 풍

요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설교의 중심에 대해

-안산영광교회 송창원 목사-

필자는 안산영광교회 송창원 목사께서(이하 ‘송 목사’) 설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씀을 시원스럽게 잘 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렇다고 달변이라는 말은 아니다. 숙달된 조교처럼 스피치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기술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일견 화려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식상하게 마련이지만 송 목사의 스피치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뜨거운 신앙과 진솔한 삶의 토대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설교라 할는지. 개인적으로 송 목사를 모르는 처지에서 필자가 그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살필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쉽지만 대충 윤곽만 그려야겠다.

송 목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외적인 행태는 세 가지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학자풍의 면모이며, 둘째는 목회자적 영성이고, 셋째는 부흥사적 열정이다. 그는 신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답게 설교에서 진부한 신앙 용어를 생각 없이 쏟아내지 않는다. 누에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충분히 소화된 말을 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 언어의 관념성과 공소(空疎)성을 극복했다. 이것은 곧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둔 목회자적 영성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청중들의 심령을 강하게 뒤흔드는 부흥사적 카리스마를 통해서 설교의 역동성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듯 신학, 영성, 열정이 그의 설교행태에 녹아들으로써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송 목사만의

고유한 설교 경지를 이뤄낸 것 같다.

신학, 영성, 열정을 한 설교자가 모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신학이 깊은 설교자는 영성이 부족하고, 목회자적 영성이 풍부한 설교자는 신학적 깊이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신앙적 열정과 더불어 신학과 영성을 두루두루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송 목사에게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자람이나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좋은 목회자, 신학자, 부흥사를 꿈꾸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일까? 어쨌든지 앞으로 그의 설교는 연륜과 더불어 훨씬 강력한 대중적인 호소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우리는 성결 교단을 뛰어넘어 인정받을 수 있는 설교 명망가 한 분을 배출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송 목사의 설교전달 능력은 필자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며, 또한 그런 것은 필자의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접고, 이제 설교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내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설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그가 성서 텍스트에 충실하려는 흔적을 보인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가 성서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해당되는 각각의 설교를 한편씩 예로 들겠다.

성서의 깊이로!

“자기의 것 자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갈 6:1-5절을 본문으로 한다. 바울 서신을 전공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송 목사는 설교의 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2절 말씀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는 5절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4절 말씀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송 목사는 이런 난해구절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 나가는 길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런 제안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약간 긴 대목이지만 그대로 인용하겠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후문맥을 잘 참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어의 뜻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뜻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그 원어의 뜻이 성경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경우일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이 읽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 의미가 확연하게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읽고 또 읽고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 후에 원어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여러 주석도 참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평체로 된 원고를 경어체로 바꾸었음, 필자 주)

이 뒤로 송 목사는 2절과 5절에 나오는 ‘짐’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2절의 짐은 ‘baros’인데(마 20:12; 행 15; 고후 4:17; 살전 2:6; 계 2:24)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가리킨다. 5절의

짐은 'fortion'인데,(마 11:30; 마 23:4; 눅 11:46)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짐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2절과 5절은 서로 모순되는 문장이 아니다.

이어서 그는 4절 말씀을 설명했다. “살피라”는 dokimazo의 번역인데, 이 헬라어는 “신중히 여러모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헬라어에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다. 부정적으로는 alazoneia가, 긍정적으로는 kauchema가 사용된다. 물론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 후자이다. 송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4절은 각 사람이 그 자신의 일을 잘 살펴보고, 경험을 통해 테스트하고 검증해 본 다음에, 자랑이 그 자신에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원어를 전문가답게 풀어낸 다음에 송 목사는 여기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낸 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신자들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성서텍스트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는 방식의 설교는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가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랑’의 문제이다. 그는 남에게서 자랑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으라고 권고한다.

자기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가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일, 즉 맡겨진 일, 직분, 또는 직업 등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직분, 내가 하는 일,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집, 이 모든 것들

을 자랑해야합니다.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고, 불만족해 하지 말고 내 것에 자부심 갖고 감사하고 자랑해야합니다.

그 뒤로 송 목사는 행복에 관한 심리학자 미할리 칙스젠트미할리 씨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행복은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어지며, 따라서 자기 내면에서 그걸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내게 맡겨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에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행복을 낳는 가정, 행복을 낳는 교회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외쳤다. 필자가 보기에 이렇게 성서텍스트의 깊이와 충실한 설교는 당장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씀 자체가 청중들의 영혼에서 활동함으로써 참된 의미에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성서읽기의 새로운 시각

“다음에 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라는 설교는 사도행전 17:32-34절을 본문으로 한다. 이 설교는 아덴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특히 부활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청중들이 보인 세 가지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송 목사는 바울의 설교를 냉소적으로 대한 사람들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사이에 중간자적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양 극단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그렇게 나쁜 발언은 아닙니다. ‘다시 듣겠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들어

봅시다,’ ‘제가 아직까진 모르겠는데 다음에 들어봅시다.’ 이렇게 유예를 했습니다.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언뜻 볼 때에 이 반응은 그렇게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기롱한 사람, 비웃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돌로 쳐 죽이려 하며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송 목사에 따르면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고 싶어 한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사모한 이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아덴을 떠나는 바람에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설교자들은 바울의 복음 선포를 극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그는 약간 비틀기 식으로 본문에 접근하고 있다. 송 목사에 따르면 ‘다음에’ 해도 될 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야 하는데, ‘다음에’ 해도 될 일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먹는 문제이다.

그러나 보세요, 먹는 거 한 끼 안 먹어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40일 금식기도를 했지만 40일을 안 먹어도 삽니다. 사람이 40일을 안 먹어도 되요. 지금 안 먹고 다음에 먹으면 되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먹는 데 목을 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는 거 다음에 해도 되요.

그뿐만 아니라 잠도 그렇고 청소도 역시 그렇다. 몸을 씻는 일도 대충 해도 된다. 시장 보는 일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송 목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다음에’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에 반해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게 있다. 군인들의 경계근무 같은

것들이 그렇다. 건강을 돌보는 일도 뒤로 미루면 안 된다. “건강은 있을 때 잘 돌봐야 됩니다.” 송 목사는 위암 수술을 받은 이웃교회 이 아무개 목사 에 관한 이야기와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우울증에 걸린 아무개 여 전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송 목사가 정작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은 영혼의 건강이다.

여러분, 몸과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라고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CCC 집회에 참석했다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이 그 친구의 권유를 ‘다음에’라고 미루지 않은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다. 복음을 선포하고 청중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즉시 따르지 않아 벌어진 불상사를 그는 집회 중에 결단의 초청을 뒤로 미루었다가 결국 화재로 그 집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무디 목사의 예에서 찾았다. 결론적으로 송 목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필자는 위에서 송 목사의 설교 구성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설교 두 편을 예로 들어 확인했다. 다른 설교도 대체적으로 이런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성서텍스트 자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이 놓치기 쉬운 새로운 시각이 그의 설교 전체를 끌어가는 동력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설교를 다른

이들의 설교와 구별해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의 설교가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바디매오의 부르짖음

대중 설득력과 탄탄한 구성력으로 전개되는 송 목사의 설교에 매료되면서도 필자는 무언가 아쉬움을 숨길 수 없었다. 이 아쉬움은 단순히 입장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설교의 중심에 연관된 것인지 모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송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보다는 청중들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필자의 입장에서 조금 꺼림칙하다. 이는 곧 그가 현대 설교학의 전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요자 중심의 설교 패턴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청중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교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설교로부터 눈높이를 완전히 청중들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수요자 중심의 설교 패턴은 소위 ‘강해설교’라는 트렌드로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았다. 수요자 중심의 설교와 강해설교는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비슷한 범주로 놓아도 된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성서텍스트와 동떨어진 교리설교로부터 성서와 밀착된 강해설교로, 그리고 설교자의 일방적인 독백(모노로그)에 불과한 연역적 설교로부터 청중들과의 대화(다이얼로그)에 초점을 둔 귀납적 설교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 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해서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현대 설교학에서 주장하는 이런 일련의 요청들이 극단화하면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요청들은 말씀의 존재론이 아니라 말씀의 실용론에 중심을 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서와 기독교 신앙이

도구적 실용주의는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실용주의적 세태를 꿰뚫고 하나님의 존재론적 통치에 응맹 정진하는 영성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필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설교의 이론적 담론에 대해 알가알부하려는 게 아니다. 송 목사의 설교에서도 청중 중심적 경향이 매우 노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의 입장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마디 했을 뿐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 그는 왜 성서텍스트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생명, 계시, 종말, 그리고 그의 신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반면에 청중들을 향한 신앙적 계몽, 위로, 격려에 대해서만 말이 많을까?

“바디매오가 됩시다.”라는 설교는 시각장애인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결국 장애를 치유 받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사건을(막 10:46-52) 본문으로 한다. 송 목사는 이 본문의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끌어나갔다. 그는 분명히 성서텍스트에 밀착 접근하는 설교자다. 송 목사는 여기서 소리치는 바디매오와 그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리들을 비교한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디매오도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을 받았다.

여기 바디매오도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시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불러댔습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디매오에 관해서 설명했다. 바디매오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시각장애인이고, 가난했다. 생존의 위기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고 말았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바디매오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송 목사는 우리도 바디매오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외쳤다. 딸이 죽게 된 어떤 가난한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압복강을 앞에 둔 야곱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바디매오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디매오가 되어야 합니다. 바디매오처럼 구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구하십시오. 바디매오가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았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말고 구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당신 바디매오를 예수님께서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그는 매우 은혜로운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롭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설교는 아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마가 복음 기자는 이 대목에서 우리도 바디매오처럼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에 복음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건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기에 바디매오를 고치셨는가? 바로 이 사실에 설교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게 아닐는지. 부르짖는 바디매오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하겠지만 송 목사처럼 그의 부르짖음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는 성서텍스

트의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르짖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도 있다.(요 9:1 이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적 태도가 무의미하다는 게 결코 아니다. 필자는 이 사건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에서 바다 매오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말이다. 그런데 송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한 진술인 성서에서 사람의 태도만을 클로즈업 시킨다는 건 성서읽기에서 무언가 혼란이 개입된 것 같아 보인다. 송 목사의 다른 설교도 전반적으로는 이런 구도로 전개되었다. 한편의 설교를 더 확인하자.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통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창 37장)라는 설교에서 송 목사는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설교 앞부분에서 요셉을 둘러싼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형들은 요셉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다음 이렇게 말한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음모를 꾸몄지만 우여곡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 송 목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비전은 어떠한 방해의 세력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 목사는 이런 꿈의 성취가 성서 전체의 맥락이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예를 들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구약성서의 메시아 예언인 예수의 오심과 공생애와 십자가, 다윗, 솔로몬, 바울 등등이 열거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일 수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진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자로 살고, 그 꿈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방식의 설교 앞에서 조금 당혹스럽다. 그런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설교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해명하고 설득하고, 그 쪽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거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구호와 선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런 방식의 설교는 “불가능은 없다.”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리학적 자기신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꿈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는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닌가.

이 기회에 한 마디 하자. 필자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무슨 생각으

로 “요셉의 꿈”을 과대 포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곡식 단,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 이야기가 특별한 신탁(神託)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꿈을 꺾야 한다고 외치는 설교는 성서와 신학의 심층적인 영성에서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이다. 요셉의 꿈은 없다. 아니 그런 꿈은 없어야 한다. 요셉의 꿈 전승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야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통로일 뿐이다. 그 꿈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전제에서만 소극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만약 그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야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을 지키셨을 것이다. 설교자는 이 본문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요셉도 흠이 좀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집트 이방 종교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년과 흉년 시절에 매점매석을 통해서 이집트의 자유농을 농노로 만들었고, 그런 방식으로 일인지하만인지상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필자가 요셉 전승을 판죽결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까닭이다. 성서기자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활동이다.

영성, 기술인가 도인가?

필자의 주장에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보충 설명을 드려야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활동에 중심을 둔다는 것은 곧 설교자가 온전히 창조와 생명의 영인 성령에게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랍과 어원이 같은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프뉴마의 번역인 성령은 곧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노력, 또는 업적이 아

나라 당신 스스로의 뜻대로 활동하는 힘, 즉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영이다. 이런 영만이 청중들의 영혼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반면에 설교자는 영과 청중과의 사이에서 무능력하다. 설교자는 질그릇이 그것을 만든 주인의 뜻을 모르듯이 영의 뜻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청중들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모른다. 기껏해야 피상적으로만 알뿐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유지하며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실 성령만이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설교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성서기자들의 진술인 성서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에 만족해야 한다. 말하자면 청중들로 하여금 성령이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 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뿐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것마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과중하며, 따라서 두렵다.

비유적으로, 성서는 바둑의 기보다. 기보 안에 많은 바둑의 길이 숨어 있듯이 성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숨어 있다. 바둑을 아는 사람은 기보에서 그 수를 찾으려고 노력하듯이, 기독교 신앙(신학)을 아는 사람은 성서에서 그 길을 찾아 나선다. 좋은 바둑 해설가는 청중들을 바둑의 잔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라 바둑의 길로 끌어들이듯이, 좋은 설교자는 신자들을 신앙 기술이나 규범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와 도(道)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청중들은 고유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송 목사는 도를 몸으로 익힌 분이다. 합기도와 검도 7단, 유도 2단이라고 한다. 영의 세계도 기술이 아니라 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으리라. 필자는 송 목사의 설교에서 그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설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 14:6)

케리그마와 설교

-삼천포교회 박상진 목사-

아주 일반적인 분류에 따르면 목사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학자 형, 둘째는 부흥강사 형, 셋째는 목자 형이다. 학자 형은 목회의 이론에는 밝지만 현장에 약하며, 부흥강사 형은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목회의 이론과 본질이라는 차원에서는 약점을 보이며, 목자 형은 목회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하지만 어떤 강력한 외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물론 모든 목사들을 이런 틀로 범주화할 수는 없다. 개인에 따라서 이런 저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세 유형의 분류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삼천포교회 박상진 목사님(이하 ‘박 목사’)은 영락 없는 목자 형 목사이다. 그는 교회성장을 지상 목표로 해서 신자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건전하게 교회 공동체를 키워내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은 박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지난 5년 동안 (2002년 10월6일 취임) 삼천포교회에서 이룩한 목회 업적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그가 어떤 자세로 목회에 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하겠다. 보수적인 색채를 띤 <목회와 신학> 2004년 5월호와 진보적인 색채를 띤 <기독교사상> 2006년 4월호에 박 목사의 목회에 관한 특별 취재 기사가 각각 실렸다. 성결교회 목사가, 그것도 대도시라 아니라 시골이라 불려도 관심을 삼천포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쪽의

잡지로부터 관심을 받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다. 이것은 곧 박 목사의 목회가 그런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기도 하고, 매우 본질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사실의 적나라한 증거다.

편안한 설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박 목사의 “설교도 역시 그런가?”에 있다. 물론 설교도 목회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 근본적으로는 설교의 열매가 목회라는 점에서 박 목사의 설교는 이미 일정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봐도 잘못은 없다. 그렇지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필자는 목회의 업적과는 상관없이 설교의 본질이라는 관점으로만 그의 설교를 검토하려고 한다. 필자는 2006년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2월 마지막 주일 사이에 행해진 설교 44편을 건네받아서 꼼꼼히 읽었으며, 필요한 대목은 삼천포교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보았다. 최근의 설교 몇 편도 동영상으로 접했다.

우선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박 목사의 설교가 매우 편안하게 들린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접한 여러 설교자들 중에서 청중들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반해서 박 목사는 그런 이들과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설교이다. 이건 설교자가 억지로 꾸며서 생산해 낼 수 없는 설교자 고유의 존재론적 설교 능력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박 목사의 목자 형 영성이 이런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신학자처럼 성서의 이론에 치우치지 않으며, 부흥강사처럼 감정적으로 몰아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청중들의 영혼을 감싸는 태도로 청중들에게 접근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매주일 그의 설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박 목사는 설교를 청중들과 주고받는 식으로

전개할 때도 많다. 필요한 성구를 함께 읽도록 유도하기도하고, 청중들의 대답을 끌어내는 경우도 많다. 마치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아주 편안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식으로 설교를 끌어간다. 삼천포교회 교우들도 아마 박목사의 설교가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이 나누는 신앙적인 대화와 비슷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의 설교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설교이론이 필요 없다.

박 목사의 설교가 편안하게 들려오는 이유는 그런 청중과의 신뢰 관계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설교의 내용에 놓여 있다. 그의 설교는 거의 성서와 신앙적인 삶에만 집중한다. 이는 그의 설교가 영성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독자들은 모든 설교가 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서 본문을 던져 놓고 온통 자기 자랑에 빠져 있거나 노골적으로 헌금이나 기복만 강조하는 설교도 많다. 박목사는 비본질적인 이야기들로 신자들을 뒤흔들지 않고 바른 신앙의 세계로 초청하는 일에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설교는 청중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든다. 설교가 청중들의 영혼에 공명될 때 참된 영적 만족이 일어나며, 그것이 곧 편안한 설교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독자들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박 목사의 설교가 편안하다고 해서 청중들의 영적인 귀를 단순히 솔깃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설교는 편안하기는 하지만 영혼을 잠재울 수도 있다. 박목사는 옳고 그름을 간과한 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쑥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개혁적인 마인드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간혹 세례교인수와 헌금통계를 정직하지 않게 처리하는 관행에 관해서도 자신

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63회 경남서 지방회에서 그는 이렇게 발언했다.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을 실천해야 할 교회와 목사님들이 정직하지 못한 오늘을 개탄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의 수는 부풀려 보고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거짓말해서 총회 대의원 수는 늘리려고 하면서, 정작 교회의 경상비 결산액은 축소 보고해서 교회가 부담해야 할 지방회비와 총회비를 적게 내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지방회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합니다!(2006년 2월5일 설교, 이하 월일만 기재)

교회 개혁을 향한 박 목사의 방향은 아주 분명하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고 세속주의에 빠져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그의 일침을 들어보자.

오늘 교회들마다 고급 예식장 혹은 고급 호텔을 뺄 정도로 치장을 해 놓고, 기존에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 떠도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교인이 모인다는 것이 요즘 교회 성공담의 첫 번째 정설입니다. 또 사업처럼 장소와 위치가 곧 목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정설입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돈을 빌려서 교회에 투자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리한 물질적 충성이 전부인 것처럼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와 사랑이 전부인 복음의 본질은 무시한 채 복음의 껍데기만 치장해 놓고 교회라고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10월8일)

필자는 박 목사의 진단이 옳다고 본다.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의 시대정신이라 할 물질 경쟁력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에 매몰될 때가 많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의존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경제논리가 그대로 작동한다면, 교회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의미가 아닐는지. 그 혼한 말로 사람이 모이다보니 현실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심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스럽게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아훼의 일꾼이 칠천 명이나 남아있었던 것처럼 곳곳에 박 목사처럼 개혁적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설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쫓קות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필자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케리그마에 무게를 둔 설교

위에서 필자는 박 목사의 설교에서 맛볼 수 있는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셈이다. 목자의 영성에 기초한 청중들과의 신뢰관계, 신앙 중심주의, 개혁 마인드가 그것이다. 다. 두 번째 요소는 여기서 설교 한편으로 예로 들어서 설명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대목이 설교를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자주 놓치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전달에 치중하는 현대설교는 설교의 중심에서 흔들릴 때가 많다. 멋있고 감동적으로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할 케리그마가 손상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이에 반해서 박 목사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케리그마에 충실하다.

박 목사가 2006년 2월19일에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행한 설교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오는 한 대목인 요한복음 3:14-18절이다. 이 본문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충설명이다. 역사비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텍스트는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모두 암기하고 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믿음과 영생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 뱀을 장대에 달았던 역사적 사건(민 21:4-9)과 연결시키면서 15절에서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다시 요 3:16절에 반복해서 나온다. 이는 곧 요한복음 기자가 구약 사건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이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기자의 이런 해석을 오늘의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설교의 문을 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 높이 매달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의 진술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전하는 설교에 누가 귀를 기울이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설교는 늘 이 사실에 집중해야만 한다. 특히 주일공동예배의 설교라고 한다면 이것 이외에 우리가 전할 내용은 없다. 어떤 설교자들은 세련된 설교를 한답시고 온갖 윤리와 복지 프로그램, 또는 상담학과 심리학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설교의 외도다. 설교는 우직하게 케리그마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런 박 목사의 신학이 바로 이 설교에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선포했다.

문제는 이 케리그마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가에 있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할 수는 없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자칫 하면 이 믿음은 값싼 믿음이 되거나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박 목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너무 단조롭고, 쉬운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야, 조금은 어려워야, 힘든 과정을 거쳐야 그 소중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자 금욕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염세주의자가 되어 세상을 등집니다. 고행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쌓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 합니다.

지금 박 목사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하다. 이미 율법과 복음의 대립, 중세 로마가톨릭의 업적의(義)와 루터의 칭의론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에까지 소급된다. 오늘 개신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복음의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에 속명적으로 묶여 있는 현대인들은 아무 행함도 없이 의로움, 영생, 즉 구원을 받는다는 성서의 가르침과 그 약속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것은 인격이나 교양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서 그대로 작동된다. 오늘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현대인들의 이런 선입견을 해체해서(패러다임쉬프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박 목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선입견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사이에 벌어졌던 일화를(왕하 5장) 전한다.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성서 자체에서 찾는 게 좋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나아만은 특별한 의료조치나 종교적 의식 없이 단지 요단강 물로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곧이들을 수 없었다. 나아만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담지하고 있는 은총의 깊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박 목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았다.

이제 설교는 중반으로 들어섰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의 해석학적 순서에 따라서 구리 뱀과 연결해서 설명한 다음, 그런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나아만과 비교한 박 목사는 본 설교의 주제인 “그를 믿는

자마다”의 실질적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곧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박 목사의 대답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행위이다. 필자는 창조와 사랑에 대한 박 목사의 설명을 여기서 자세하게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박 목사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인 기독교론을 창조와 사랑으로 풀어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한다. 설교는 무슨 본문을 다루든지 결국은 기독교 교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명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교리이다. 설교자는 그런 특정한 교리를 전체 기독교 교리와 연결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이다. 예컨대 창조의 문제를 설교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조나 종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성서본문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본문을 창조론의 지평,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론이라 할 사랑의 지평과 연결해서 풀어냈다는 것은 바람직한 시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중들은 기독교론과 창조론의 지평융해를 경험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적 해석학의 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 설교가 지향하는 초점은 바로 아래와 같은 그의 진술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고행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외에는 결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박 목사의 설교는 케리그마에 충실하다. 공연히 겉멋 부리지 않고 예수 사건에 천착하고 있다. 필자는 설교자가 성서텍스트를 차분하게 전달하기만 해도 청중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성서텍스트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존재론적으로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 목사는 설교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다. 기교를 부리는 설교자가 흔한 이 시절에 필자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연속설교와 교회력

이 글쓰기를 끝내기 전에 필자가 그의 설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몇 대목을 짚어야겠다. 우선 필자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박 목사가 주로 요한복음을 시리즈 형태로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다. 2006년과 2007년 전반기에 그는 요한복음을,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최근에는(6월 말)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연속설교를 행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설교는 박 목사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재철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김영봉 목사 등, 많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설교했으며, 지금도 그런 이들이 많다.

시리즈 형태의 설교는 일단 한 성서를 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교함으로써 신앙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설교자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한 매주일 설교주제와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시리즈 형태의 설교

가 갖는 메리트이기도하다. 다른 한편으로 시리즈 형태의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본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신구약 전체를 망라하면서 설교할 수 있다면 본문의 편중현상을 극복할 수도 있다. 박 목사도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하지만 다른 성서본문들을 설교 안에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박 목사의 요한복음 연속설교는 형식적으로만 시리즈 설교이지 실제로는 성서 전체를 본문으로 하는 건전한 복음적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가 아무리 성서 전체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담아내는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교해야 할 본문이 하나의 성서로 제한되면 결국 그 메시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박 목사는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4월9일에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사건을 설교했다. 이상한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그 설교의 내용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케리그마 설교로서 손색이 없었지만, 일 년에 단 한례밖에 없는 종려주일을 무시하면서까지 시리즈 설교를 고집할 필요가 있었는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12월24일 주일에도 그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요 8:10-14절)을 설교했다. 대림절 넷째주일이며, 성탄절 전주일이라는 사실이 무색한 설교였다. 물론 이 설교에서도 박 목사는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했다. 아무리 설교 내용이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극단적이지 않기로 하면 시리즈 형태의 설교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가능하다. 종려주일, 부활절, 성령감람절, 대림절, 성탄절 같이 중요한 절기에는 이에 맞는 본문으로 설교하고, 나머지는 시리즈 형태로 설교의 진도를 나가는 것 말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자제해야한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는 지난 2천년 기독교역사가 이룬 신학적 결과물이다. 기독교인들의 영성 성장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말씀의 공급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만으로 일 년 설교하는 것과 신구약성서 전체에서 골고루 선택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성서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자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있다. 무슨 뜻인가?

우리 목사들은 자신들이 성서를 잘 설명해야만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 성서만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런 생각과 주장은 틀렸다. 성서는 목사가 설명하기 전에,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요 1:1) 예수, 하나님, 성령은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만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일개 인간인 설교자가 무슨 수로 해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르트의 고백처럼 우리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설교를 해야만 한다. 이 불가능성(Unmöglichkeit)과 당위(Sollen) 사이에서 설교자는 긴장하며 살아간다. 그게 곧 설교자의 영적 실존이다.

교회력은 이런 설교자의 한계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신자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이다. 비록 설교자가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 년의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 읽혀지고, 설교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성령이 청중들에게 말을 건다. 우리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결국 성령이 성서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

거니와 그것의 방식이 곧 성서일과이다. 오해는 마시라. 성서일과에 기계적으로 묶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을 바탕에 놓고 교회의 상황과 사회의 현안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골고루 설교의 본문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은 영적으로 편식하게 될 것이다. 영양가 좋다고 자식에게 비타민만 먹일 수는 없지 않은가. 편식도 괜찮다고 한다면 필자는 요한복음 1장1절만으로 신구약성서 전체를 오르내리면서 52주 동안 설교할 수 있다.

사족 줄이기

설교 형식에 관해서 한마디 해야겠다. 이것은 순전히 옥의 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설교 듣기의 집중력을 깨뜨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짚어야겠다. 우선 설교의 도입부에 자주 등장하는 우스갯소리다. 인터넷 등지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기 전에 청중들의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어야겠다는 대중연설의 테크닉에 기인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 가능한대로 예화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그런 것들이 유감천만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을 우스갯소리로 마음이 열리는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청중들이 설교의 내용은 모두 잊어버리고 우스갯소리만 기억할 수도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박 목사에게 케리그마에 근거한 복음 선포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복음에 근거한 설교는 그런 우스갯소리 없이도 얼마든지, 아니 그런 우스갯소리가 없어야 청중들의 영혼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으니 말이다.

다른 설교자들에게서 자주 반복되는 습관이지만, 박 목사도 설교의

과정에서 “...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멘트를 날릴 때가 있다. 설교의 방향을 분명하게 전달한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해 영적으로 행복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1월22일)라고 반복하고 있다. 2월19일에도 니고데모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라고 언급한 후에 또 다시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반복한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축복, 또는 축원합니다, 하는 멘트를 빼놓고 보자. 그래도 말이 통한다면 이런 건 사족에 불과하다. 이런 멘트의 남용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청중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박 목사가 설교 중에 청중들에게 성구를 읽게 하는 습관도 이런 사족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설교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다. 설교 준비를 위한 박 목사의 개인적인 기도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원래 설교를 가능한 짧고 명확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족과 같은 멘트와 청중들의 성구 읽기는 과감하게 줄이고 설교의 중심을 밀고 나가야 한다. 박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보기에 박 목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박 목사는 청년 시절 교회연극에서 거지 역을 맡은 후로 “교회나 저희 집을 찾는 걸인들을 보면 혹시 주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시려고 직접 찾아오시거나 혹 누군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여 섭섭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2007년 2월25일) 교회를 순례하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을 돈만 쥐어주고 보낸 뒤에 더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다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다.(9월17일) 이런 감수성은 삼천포 교회의 아주 독특한 후보와 박 목사의 수필 글쓰기에

서 그대로 맞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감수성이 그의 설교에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것 같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서 혹시 주님이 앉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설교하는지 모른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상처도 쉽게 받는 법이다. 설교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의 입장에서 필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 설교에는 요즘 보기 드물게 케리그마가 살아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진도 나가시오!”